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학부모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 연구

책임연구원 :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오현석(서울대학교 · 교수)

최윤미(서울대학교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 선임연구원)

주지현(가족세대통합연구소 · 소장)



##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삶에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부모-자녀의 상호기대 및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차이가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갈등 요인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및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를 한 쌍으로 총 700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인생관, 양육관, 성취관, 재능관, 사회관, 학교관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대응표본 t-검정으로 상호기대 및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으로 상호기대와 인식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밝혔으며,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계층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녀상에 대한 상호기대 및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각 영역에서 나타났다. 부모-자녀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자녀의 대화횟수가 적고, 자녀에 대한 희망교육연수가 많으며,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상호기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학부모와 자녀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자녀상은 자신의 행복과 갈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과 갈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특성에 따라 학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갈등 수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래가 일찍 재단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적어도 부모세대만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학업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고, 어머니의 불안감은 자녀에게 공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로 표출되면서 부모-자녀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었다. 다만 출생순위가 후순위거나 자녀가 딸인 경우 성공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덜한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집단 인터뷰 결과 청소년들은 진로 진학지도가 입시지도로 경도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배금주의 사회분위기 속에 사회경제적 성공을 지향하는 경향이 컸으나,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자신의 꿈과 기대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꿈과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잃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 기대에 대한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가 갖고 있는 기대와 인식에 차이가 있고, 자기 인식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인식 주체의 행복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기대 특성과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녀 세대 이해를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 실시, 부모-자녀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 진단도구 개발, 부모-자녀 의사소통지수 (Parent-Child Communication Index; PCCI) 개발, 청소년들의 행복관 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 학부모가 행복한 마을 조성 등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여러 지표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
  - 청소년 행복지수
    -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9년부터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함
  -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교 3학년까지 7014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2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함
    - 22위와도 10점 이상의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초등학교생 7명 중 1명, 고교생은 4명 중 1명꼴로 가출 및 자살충동을 경험함
  
- 아동 및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그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의미있는 타자 중 부모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임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아동은 부모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성역할과 태도를 학습함
  -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체성, 정서기능 등 정의적 특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쌍방 간 기대불일치는 많은 갈등과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주도적 영향력을 부모가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인식은 표면화되어 전달되기 쉬운 반면, 자녀의 인식은 내면화되어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의 문제, 잠재적 갈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큼
  - 이러한 인식 차이가 커지면 부모는 물론 자녀의 불만족도 커지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 자녀의 행복한 삶에 장애요인으로 전환될 것임은 자명함

-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과제임. 특히 부모와 자녀가 자녀의 인생과 관련 있는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하는지 혹은 생각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자녀의 현재 및 미래 생활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 부모가 자신의 자녀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인식을 갖고 있는지
  
- 본 연구는 자녀의 현재와 미래 삶의 주요 이슈에 대해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과 기대를 파악하고, 부모의 생각과 기대에 대한 자녀의 기대와 인식 상의 차이와 그 차이가 발생하는 근원적 이유를 규명하며, 이러한 차이가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 과제와 열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연구 과제 1: 학부모와 자녀가 기대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함
    -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의 자기 기대에 차이가 있는가?
    -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인식과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자녀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는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학부모의 자녀상과 자녀가 인식한 학부모의 자녀상이 행복과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학부모의 자녀상 특성에 따라 학부모와 자녀의 자기 기대, 상호 인식 및 행복, 갈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 과제 2: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함
  -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상호기대에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측면의 특성은 무엇인가?
  -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은 무엇인가?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녀의 삶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자녀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청소년)가 지니고 있는 상호기대와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또한 이러한 차이가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하여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선행문헌 분석에서는 행복과 기대 불일치는 부모-자녀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갈등이론과 의사소통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부모의 생각과 행동의 모순이나, 자녀가 자신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부모의 기대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 현상을 분석하고자 인식과 행동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 및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기대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음

### ○ 학부모와 자녀가 기대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차이에 관한 실증 분석

-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와 상호인식에 나타나는 차이 조사
  - 자녀상에 대한 인생관, 양육관, 성취관, 재능관, 사회관, 학교관의 총 6개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상호기대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 학부모와 자녀라는 대응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의 차이를 비교 분석
-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와 상호인식의 차이와 관계가 있는 영향 요인 조사
  - 어떠한 학부모와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이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와 상호인식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 정도와 상호인식 차이 정도에 대해 학부모와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
  - 관련 요인들을 연구 모형에 함께 고려하여 통제한 후 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의 차이와 상호인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의 차이 외의 다른 관련 요인들 중 어떠한 것이 유의미하게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을 설명하는지 분석
  - 관련 요인들을 연구 모형에 함께 고려하여 통제한 후 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
- 학부모와 자녀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이 행복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상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행복과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상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학부모와 자녀 내 각자의 특성과 학부모와 자녀 간 공통 특성 중 어떤 부분의 영향력이 강한지 분석
  - 학부모와 자녀라는 대응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짝 자료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형 적용
-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특성에 따른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와 상호인식, 행복 및 갈등의 차이 조사
  - 학부모를 자녀상에 관한 응답특성에 근거하여 유형화함
  - 분류된 유형에 따라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인식 및 상호기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 분류된 유형에 따라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 학부모와 자녀가 갖는 행복에 대한 인식 차이의 근원에 대한 심층 탐구
  - 중학교 1학년예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과 고등학교 1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에

대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의 원인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을 탐색

-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집단에 대한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의 원인에 대해 자녀 관점에서 분석

### 3. 연구방법

[연구 과제 1]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 규명

#### ○ 연구대상

-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청소년) 한 쌍으로 총 700쌍을 대상으로 하였음
  - 서울지역을 4개의 구역(동서남북)으로 구분하고, 4개의 구역에서 응답자 수가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 거주 지역이 중복되지 않게 무선 표집하여 랜덤 조사와 학교 조사 방식으로 자료 수집함

#### ○ 연구도구

- 학부모-자녀 간 상호기대차이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학부모용과 자녀(청소년)용 두 가지를 개발
- 학부모용 설문도구의 문항구성
  - 인구사회통계학적 정보영역 13문항과, 인생관 8문항, 양육관 7문항, 성취관 7문항, 재능관 5문항, 사회관 5문항, 학교관 4문항, 갈등 4문항, 행복감 3문항 등 8개 영역 43문항, 총 56문항으로 구성
- 자녀(청소년)용 설문도구의 문항구성
  - 인구사회통계학적 정보영역 8문항, 어머니의 생각에 대한 자녀의 인식 16문항, 인생관 8문항, 양육관 7문항, 성취관 7문항, 재능관 5문항, 사회관 5문항, 학교관 4문항, 갈등 4문항, 행복감 3문항 등 8개 영역 43문항, 총 67문항으로 구성

## ○ 자료 분석

-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 본인의 생각 간 차이인 상호기대 차이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의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간 차이인 상호인식 차이 검증을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함
-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와 상호인식 차이에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함
- 짝(Dyadic) 구조를 이용한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 방법을 적용하여, 학부모와 자녀의 자녀상 인식이 행복과 갈등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부모-자녀 내 수준이 1수준, 학부모-자녀 간 수준이 2수준으로 설정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Analysis)을 실시함
- 학부모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 (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고 적절한 유형의 수를 정해 학부모 집단을 분류한 후,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과 사후분석으로 Scheffe 방식의 분석을 실시함

[연구 과제 2]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의 원인 심층 탐색

## ○ 연구대상

- 집단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청소년 총 31명(5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음
  - 서울소재 고등학교 1학년 2집단(각 6명), 고1자녀를 둔 어머니 1집단(8명)과 경기소재 중학교 1학년 1집단(5명) 및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1집단(6명)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심층 면담을 실시함

## ○ 연구절차

- 조사 기관을 통한 연구참여자 모집과 눈덩이 표집을 병행하여 집단을 구성한 뒤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8일 사이에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각 집단은 동일한 인터뷰어

- 의 진행으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면담이 실시됨
-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고, 이를 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상호기대 차이의 원인과 관련된 테마를 도출하고 분석이 이루어짐

## 4. 연구결과

[연구 과제 1]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 분석

- 여섯 가지 영역의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 기대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각 영역의 자녀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인생관 영역에서는 학부모는 자녀에 비해 경험을 중시하고 사회공헌이나 가족 중심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는 사회경제적 성공이나 일상생활의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목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관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자녀보다 애정적인 양육 태도와 아버지의 참여 확대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취관 영역에서는 자녀가 성취를 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녀보다 학부모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재능관 영역에서는 학부모보다 자녀의 재능과 좋아하는 일의 일치 정도에 대한 확신이 높았고, 자녀의 성공과 학부모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것은 학부모보다 자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또한 학부모는 자녀의 노력과 같은 능력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관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더 긍정적이고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을 지향하는 정도는 학부모가 강하게 나타났고 패배주의적 경쟁 회피 경향, 왕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자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관 영역에서는 자녀에게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학부모가 높았지만,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학교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자녀보다 학부모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상과 관련해 양쪽의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부모는 자녀에 비해 공동체주의, 과정주의, 직업의 사회적 인정 지향, 직업의 사회적 기여 지향, 인성 교육 지향, 자율적 양육관과 애정형 양육관 및 자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상과 자녀가 인식한 학부모의 자녀상 간 상호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자녀의 행복한 생활과 경험을 강조하는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해 자녀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회경제적인 성공이나 대입준비 학업성취에 대한 필요성, 학교생활 참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에서는 자녀가 인식하기에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으로 지각함
-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및 인식의 차이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탐색한 결과, 학부모 배경 요인 중 일주일 중 자녀와 15분 이상 대화하는 횟수가 적고, 자녀에 대해 희망하는 교육년수가 많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상호기대 차이가 더 큰 경향이 나타남
  - 자녀의 배경 요인 중에서는 첫째 자녀가 아닌 경우와 자녀 스스로 자신에게 기대하는 교육년수가 적을수록 학부모와 자녀의 자녀상에 대한 상호기대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
  -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학부모 및 자녀 배경 요인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음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어떠한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자녀상에 대한 여섯 가지 영역에서의 자기 인식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와 자녀 간 차이 요인 중에서는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 차이만 그 값이 클수록 자녀의 행복을 낮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인식의

차이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 배경 요인 중에서는 학부모의 행복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이, 자녀의 행복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횟수와 가구소득이, 학부모와 자녀의 갈등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유의미한 영향 변수인 것으로 나타남
- 자녀 배경 요인 중에서는 자녀가 희망하는 교육년수가 학부모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행복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년과 성적 수준이, 학부모의 갈등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첫째자녀 여부와 성적수준, 자녀가 희망하는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갈등에 대해서는 남학생 여부와 자녀가 희망하는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자녀상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 분석방법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분석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남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자녀 간 공통 특성보다 학부모와 자녀 내 특성이 행복의 분산을 설명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학부모의 자녀상이 학부모 자신과 자녀에게, 자녀의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이 자신과 학부모에게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학부모와 자녀의 갈등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자녀 간 공통 특성과 학부모와 자녀 내 특성이 비슷한 정도로 갈등 분산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학부모의 자녀상은 학부모 자신의 갈등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의 갈등은 더 늘리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고,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자녀의 인식은 자녀 자신의 갈등을 낮추지만 학부모의 갈등은 증가시키는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 학부모의 자녀상 인식 형태에 따라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상호인식 및 행복과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학부모는 자녀상 기대 특성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첫 번째 집단은 성취지향형 집단, 두 번째 집단은 절충형 집단, 세 번째 집단은 과정지향형 집단으로 명명함
  -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와 상호인식 차이는 절충형 학부모 집단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성취지향형 학부모 집단은 학부모의 행복이 가장 낮았고 갈등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자녀의 행복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녀의 갈등은 성취지향형 학부모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연구 과제 2]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의 원인 심층 탐색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의 원인에 대해 학부모 집단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테마들이 도출되었음
  - 불안하고 흔들리는 학부모들: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정책과 자녀교육은 어머니 책임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진로지도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학부모들에게 대중매체마저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결국 어머니들의 불안감은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압력과 메시지로 표출되면서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함
  - 공부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나만큼은 살아야 되니까: 지금의 부모들은 그들의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교육받았고 더 좋은 직업과 경제수준에 오른 한편, 소위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성공을 재생산시키는 기제가 되는 시스템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적어도 나만큼은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녀가 원하는 재능을 살리기 보다는 공부에 몰입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게 됨
  - 자녀의 미래가 너무 일찍 재단되어 안타까운 학부모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학업성취와 성공이라는 동일한 욕망을 지니고 있는 한편으로, 특목고와 같은 서열화 된 입시체제 하에 자녀들의 진로가 예전보다 더 빠른 시기에 결정되어야 하는 냉엄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미래를 일찍 재단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음
  - 출생순위,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 학부모들은 아들에게 결혼 후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므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직업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딸에게는 결혼과 직업을 선택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출생순위에 있어서 후순위 자녀에게 진로에 대한 기대나 압박이 덜한 경향이 있음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의 원인에 대해 청소년 집단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테마들이 도출되었음
  - 성적에 맞춘 진학지도를 진로·직업 탐색이라고 해요: 학교에서 진로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로지도가 입시지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청소년들은 불만을 지니고 있으며, 입학사정관과 같이 새로이 등장하는 입시제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희망 진로를 동일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현실이 오히려 진로 장벽이 됨

- 배금주의 사회풍토에 지배당하는 아이들: 사회경제적 성공을 지향하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배금주의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경제적 상황 때문에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 패배주의를 경험하기도 함
- 꿈을 꿀 수 없게 만들고,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말하는 어른들: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진학할 수 없다는 현실적 벽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처음 갖고 있던 꿈과 진로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게 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성적이나 문과, 이과 성향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나 목표를 잃기도 하였고, 꿈을 꿀 수 없는 사회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함

## 5. 논의 및 정책제언

- 이 연구에서 부모-자녀의 상호기대와 인식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러한 차이가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의 갈등, 스트레스가 부모와 기대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 학부모와 자녀 모두 사회공헌 및 봉사나 사회경제적 성공보다 가족중심 행복 및 일상생활의 재미를 인생목표로 추구하는 경향은 전반적 사회 변화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학부모가 자녀보다 사회공헌 및 봉사와 가족중심 행복을 더 추구하는 집단 간 차이는 서로 다른 시대를 경험한 세대의 차이로 보이며, 부모는 자녀의 가치관 및 행동에 대해 세대의 차이로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에는 출생순위, 학부모의 희망 자녀 교육년수 및 맞벌이 가정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과잉 기대는 부모-자녀 상호기대의 불일치와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음
- 학부모-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자녀의 대화횟수, 학년, 성적 수준 등 기준에 밝혀진 주요 변인과 함께, 본 연구를 통해 인생관, 양육관, 성취관, 재능관, 사회관, 학교관 영역에 대한 자녀의 인식 및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요소임이 입증되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바람직한 자기인식을 함양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으로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년수는 부모의 과잉 교육 및 성취기대처럼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의 불일치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는 자기불일치 현상을 보여줌
  - 학부모-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학부모가 자녀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갖고 있을 때 행복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와 자녀의 자녀상이 서로와 자기 자신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화횟수가 행복수준에 중요 영향 요인으로 밝혀져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확인됨
  - 자녀는 보다 물질적, 외재적 목표를, 학부모는 관계적, 내재적 목표를 더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부모가 사회적 바람직성을 더 지향하는데 비해, 자녀는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해 학부모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학부모의 자기인식과 행동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부모의 사용이론과 신봉이론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중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 자녀 세대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 부모-자녀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 진단도구 개발
    - 부모-자녀 의사소통지수(Parent-Child Communication Index; PCCI) 개발
    - 청소년들의 행복관 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
    - 학부모가 행복한 마을 조성 정책 제안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문제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	7
1. 부모-자녀 관계 연구 .....	9
1)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 .....	9
2)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	12
2. 인식과 행동의 차이 연구 .....	17
1) Lewin의 장(field) 이론 .....	17
2) 신봉이론과 사용이론 .....	19
3) 자기불일치 이론 .....	21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기대 연구 .....	25
1) 부모의 양육태도 .....	25
2) 부모의 기대 .....	27
제 3 장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 통계 분석 .....	31
1. 연구방법 .....	33
1) 연구대상 .....	33
2) 연구도구 .....	34
3) 연구절차 .....	41
4) 자료분석 .....	42

2. 연구결과 .....	43
1) 학부모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	43
2)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 차이 분석 .....	47
3)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 차이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61
4) 학부모-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65
5) 학부모-자녀의 자녀상 인식이 자신과 상대방의 행복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73
6)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	77
<b>제 4 장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 원인 분석 .....</b>	<b>85</b>
1. 연구방법 .....	87
1) 연구대상 .....	87
2) 연구절차 .....	90
3) 자료분석 .....	92
2. 연구결과 .....	93
1) 학부모의 기대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	93
2) 청소년의 기대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	111

<b>제 5 장 논의 및 정책제언</b> .....	121
1. 논의 .....	123
2. 정책제언 .....	133
1) 자녀 세대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	133
2) 부모-자녀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 진단도구 개발 .....	134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지수(Parent-Child Communication Index; PCCI) 개발 .....	135
4) 청소년들의 행복관 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 .....	135
5) 학부모가 행복한 마을 조성 정책 제안 .....	136
<b>참 고 문 헌</b> .....	137
<b>부 록</b> .....	155

# 표 목 차

[표 III -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37
[표 III - 2] 영역 설명 및 해당 문항수 .....	38
[표 III - 3] 영역에 따른 일반문항 내용과 명칭 .....	39
[표 III - 4] 의미변별문항의 영역에 따른 문항 내용과 명칭 .....	40
[표 III - 5]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	44
[표 III - 6] 자녀의 일반적 특성 .....	46
[표 III - 7]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 차이 검증 결과 .....	47
[표 III - 8] 학부모와 자녀 간 대립 개념에 대한 상호기대 차이 검증 결과 .....	55
[표 III - 9]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인식 차이 검증 결과 .....	60
[표 III - 10] 다중회귀분석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량 .....	61
[표 III - 11]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대한 배경 변인의 영향력 분석 .....	63
[표 III - 12] 학부모-자녀의 상호인식 차이에 대한 배경 변인의 영향력 분석 .....	64
[표 III - 13]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량 .....	65
[표 III - 14] 학부모의 행복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	67
[표 III - 15] 자녀의 행복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	69
[표 III - 16] 학부모의 갈등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	71
[표 III - 17] 자녀의 갈등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	72
[표 III - 18]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대한 자녀상 인식 관계 분석을 위한 HLM모형 .....	74
[표 III - 19] 학부모-자녀의 학부모 자녀상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HLM분석결과 .....	76
[표 III - 20] 학부모-자녀의 학부모 자녀상 인식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HLM분석결과 .....	77

[표 III - 21] 잠재계층분석 결과 .....	78
[표 III - 22] 잠재계층분석으로 분류한 학부모 집단의 특징 .....	79
[표 III - 23] 학부모 집단에 따른 학부모와 자녀간 상호기대와 상호인식 차이 ...	80
[표 III - 24] 학부모 집단에 따른 학부모와 자녀간 상호기대의 차이 .....	82
[표 III - 25] 학부모 집단에 따른 학부모와 자녀간 상호인식의 차이 .....	83
[표 III - 26] 학부모 집단에 따른 학부모 및 자녀의 행복, 갈등에서의 차이 .....	84
[표 IV - 1] 학부모 집단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88
[표 IV - 2] 청소년 집단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89

# 그림 목 차

[그림 Ⅲ - 1] 연구절차 및 연구수행 내용 .....	41
[그림 Ⅲ - 2] 인생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	49
[그림 Ⅲ - 3] 양육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	50
[그림 Ⅲ - 4] 성취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	51
[그림 Ⅲ - 5] 재능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	52
[그림 Ⅲ - 6] 사회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	53
[그림 Ⅲ - 7] 학교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	54
[그림 Ⅲ - 8]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인식 차이 중 학부모의 응답이 더 높은 경우 ...	58
[그림 Ⅲ - 9]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인식 차이 중 자녀의 응답이 더 높은 경우 ...	58
[그림 Ⅲ - 10] 학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상대방 효과와 자기 효과 .....	73
[그림 Ⅲ - 11] 잠재계층분석으로 분류한 학부모 집단의 특징 .....	79
[그림 Ⅳ - 1] 조사체계 .....	91

# 제 1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2009년부터 5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교 3학년까지 7014명을 대상으로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23개국 중 최하위일 뿐 아니라 22위와도 10점 이상의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생 7명 중 1명, 고교생은 4명 중 1명꼴로 가출 및 자살충동을 경험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하는 청소년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 중 상당수가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 갈등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교사를 확충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청소년 문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문제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교육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미래 사회를 담보하는 사회문제이다. 청소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감은 그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의미 있는 타자 중 부모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다.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기대가 자녀의 삶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성적이 우수 그룹에 들지 못해도 부모가 학교성적 보다는 리더십과 사회적 친화성을 더 중시한다면 자녀 자신의 성적으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모의 역할과

기대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Bowlby, 1958; 이재경, 2012), 아동은 부모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성역할과 태도를 학습할 뿐 아니라(Bandura, 1971),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한신애, 문수백, 2010).

부모의 양육태도는 특히 자녀의 정체성, 정서기능과 같은 정의적 특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김선옥, 유미현, 2012).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정은선, 조한익, 2009).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현상으로,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양육태도가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통해 드러낼 수도 있다. 아동은 주변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아동의 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김선옥, 유미현, 2012).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행동과 그 영향은 양자 간의 기대불일치로 인해 많은 갈등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쌍방향적 영향관계이지만 주도적 영향력을 부모가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인식은 표면화되어 전달되기 쉬운 반면, 자녀의 인식은 내면화되어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의 문제, 잠재적 갈등의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커지면 부모는 물론 자녀의 불만족도 커지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자녀의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 정서,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들의 정서적 측면에 부모의 기대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학부모의 인식과 자녀의 인식을 각각 조사해 왔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기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일 현상에 대해 부모의 인식과 자녀의 인식, 양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의 현재 및 미래 생활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부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다른 한 편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방식을 통해 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이상과 실재를 보다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부모와 자녀의 인식 차이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녀의 현재 및 미래 삶의 중요한 이슈를 인생관, 양육관, 성취관, 재능관, 사회관, 학교관을 중심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 및 부모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근원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녀의 삶에 얽혀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상호 기대와 그 차이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자녀가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여 행복한 청소년을 길러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자녀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의 일환으로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이 본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 인식이라는 가정 하에, 부모가 자녀의 인생과 관련된 각 영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기대를 파악하고, 동일 영역에 대한 자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이들 각 영역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기대를 자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와 인식의 근원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연구과제와 열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과제는 학부모와 자녀가 기대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의 자기 기대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인식과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자녀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는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학부모의 자녀상과 자녀가 인식한 학부모의 자녀상이 행복과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섯째, 학부모의 자녀상 특성에 따라 학부모와 자녀의 자기 기대, 상호 인식 및 행복, 갈등에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연구과제는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상호기대에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측면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학부모와 자녀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한 ‘생각’ 안에는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한 지각, 인식, 기대, 바람 등 분명히 구분되기 어려운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문맥에 따라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문제와 내용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연구문제에 진술된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자녀상이라 함은 자녀의 현재 및 미래 삶의 중요한 이슈인 인생관, 양육관, 사회관, 재능관, 학교관 등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에게 지닌 기대나 생각을 말한다. 연구문제 진술에 있어서 용어사용의 통일성 위해 같은 이슈에 대해 자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자녀상이라는 용어로 통칭하였다.

상호기대라 함은 부모의 자녀상과 이에 대해 자녀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기대를 말한다. 특히, 자녀의 기대는 인생관, 양육관, 성취관, 재능관, 사회관, 학교관 등에 대해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라고 생각한다, 바란다’ 등과 같이 서술되었다.

상호인식이라 함은 부모의 자녀상과 이에 대해 자녀가 갖고 있는 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특히, 자녀의 인식은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지각하게 된 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의 부모가 자신과 관련된 제 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에 관한 이해와 추측에 바탕한다. 자녀의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어머니는 ~ 바라신다, 생각하신다’ 등의 술어로 표현하였다. 상호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어머니의 인식과 행동의 모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rgyris와 Schön(1974)의 사용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 제 2 장

---

#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 관계 연구
2. 인식과 행동의 차이 연구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기대 연구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 부모-자녀 관계 연구

#### 1)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갈등

갈등이란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욕구나 기회 혹은 목표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갈등이란 필연적이면서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천이 된다. Doherty(1981)는 가족관계 측면에서 가족 간 갈등을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을 갖고 그 차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믿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갈등은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인지적(지각), 감정적(느낌), 행동적(표출) 차원에서 발생된다고 한다. 인지적 갈등은 생각하는 과정으로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 관심, 가치 등이 상대방과 서로 모순되었을 때 발생하고, 감정적 갈등은 어떤 상태에 대한 감정적 반작용이나 어떤 종류의 불일치를 표현하고 적개심이나 반감 등과 같은 상태로 발생되며, 행동적 갈등은 인지되거나 느껴지는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최창욱, 권일남, 문선량, 2004).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로 인해 불안과 긴장 그리고 갈등을 경험한다. 청소년기의 변화로 인해 그들은 높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함에 있어 우울, 불안, 좌절과 같은 정서적 행동을 한다(최외선, 백양희, 이미옥, 1997). 사춘기에 진입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부적응이 유발된다(Silverberg & Steinberg, 1990)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상호간의 갈등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청소년 자녀는 갈등이 잘 해소되지 않으면 가출충동, 자살 충동을 느끼며(Patersen, 1988), 정체감 혼란, 우울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저항, 학업성적이나 성취도 평가와 같은 학업에 관한 도전, 흡연, 원하지 않은 임신, 약물이나 음주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게 된다(Barber, 1994). 이러한 문제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갈등의 관계에 있는 부모-자녀 관계의 결과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심각한 문제에 관련되지 않은 많은 청소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부적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도 있다(김경화, 1989).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다. 좁게는 싸움, 불일치, 논쟁 등과 같이 외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는 반대 행동만을 갈등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넓게는 경쟁, 공격성, 말을 중단시키는 것, 성격 특성, 개인내의 심리적 사건들까지 포함해서 갈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Laursen, Coy, & Collins, 1998). 가족은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이익이 상충되는 주요 장으로서, 일치와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타협한다. 가족 내에는 이해관계나 권력 또는 자원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반복될 때 가족체계가 구조화된다고 한다. 이주옥(1993)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대치되는 가정 내의 위치와 견해 및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을 갈등으로 정의하고, 말다툼이나 폭력 사용 등 외연적 행동에서부터 내적 긴장감까지를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Smetana(1989)는 대부분의 자녀와 부모는 잘 지낼 때조차 서로 갈등이나 불일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 책임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부모-자녀 갈등은 다양한 청소년기의 문제행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Ary 외 (1999)는 부모-자녀 갈등이 반사회적 행동, 위험한 성행동, 학업실패, 약물복용 등의 다양한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현수와 김현실(2001, 2002)도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재범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박영신과 김의철(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은 낮은 학업성취와 이탈행동을 설명하는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의 우울과 비행에 관련된 요인들을 밝혀왔는데, 가족기능이 그 어느 요인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수, 1997; Cumsille & Epstein, 1994; Reed & Dubow, 1997). 즉, 기능적 가족의 자녀는 발달과업 과정을 원활하게 겪으며 적응도가 높은 반면 역기능적 가족의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이는 다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antisteban et al., 1999).

부모-자녀 갈등은 다양한 종류의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Warrick-Swansen(1999)은 6학년 학생이 있는 368명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우울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연관된 5개의 위험요소(경제적 지위, 부모의 우울증, 부모-자녀 갈등, 학업능력, 동료의 거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위험요소 모두가 공격성과 우울증의 공통변량을 잘 설명해 주었으며, 특히 부모의 우울증, 동료의 거부, 부모-자녀 갈등이 공통 변량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미(2013)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갈등 촉발 원인을 청소년의 자율성의 욕구와 부모의 통제적 행동으로 인한 갈등, 청소년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과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 부모-자녀 간의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부모의 과잉 교육 및 성취기대로 분류하였다. 부모-자녀 간 갈등의 인과적 조건에 대해서 이영미, 한재희(2013)는 부모됨의 미숙함, 원가족에서 학습한 양육경험의 대물림, 자녀의 나약함에 대한 근심, 자녀에 대한 믿음 부족, 부모의 불안으로 기다려주지 못함, 자녀의 성취에 대한 동일시,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부모 주도 통제적 양육 행동의 한계, 자녀에 대한 통제 행동, 부모 주도 양육의 한계, 절망감 등이라는 것이다. Melching(2011)도 부모-자녀간 갈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자녀 요인으로는 통제에 저항하는 기질, 우울감, 반사회적 행동 등이고, 부모 요인으로는 우울감, 적개심 등이며, 맥락적 요인으로는 성별, 수입, 인종 등이고, 청소년 고유 요인으로는 자율성 기대, 정당성 신념이 있다고 하였다.

Burt, Krueger와 McGue(2003)는 세 개의 아동기 외현적 행동장애(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부모-자녀 갈등이 이 세 가지 외현적 행동장애와 모두 관련이 있다는 이전 연구결과들에 기초해서, Minnesota Twin Family Study에서 뽑은 808명의 동성 쌍생아 들을 대상으로 유전적인 요인을 통제하고서 도 부모-자녀 갈등이 세 개의 외현적 행동장애의 공통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부모-자녀 갈등은 세 가지 행동장애의 공통변량의 33%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부모-자녀 갈등이 다양한 아동기 장애들을 일으키는 공통된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부모-자녀 갈등은 청년기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Blaustein(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갈등이 없는 대학생들은 부모와 더 애착을 느끼고,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고,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느끼며, 더 적은 우울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영희(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갈등경험은 자녀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어머니와의 갈등 경험은 딸의 정신건강과, 아버지와의 갈등 경험은 아들의 정신건강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희(2007) 역시 부모와의 부정적 갈등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이 심한 것을 밝혀냈다. 즉,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부정적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 청소년들 일수록 분노, 불안,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 생애에 걸쳐 자녀들의 발달과 적응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데서 생겨나는 부정적 갈등의 경우에는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갈등은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2000).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무관심(냉담, 거부, 무시)과 높은 과잉간섭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경, 민병배, 2006).

## 2)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말은 현대에 들어와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뜻도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전달이라고 번역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의사의 상호소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소통이라고 함이 보다 포괄적이다. 의사소통의 어원은 공동, 공통 또는 공통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Communis"이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생각, 의견 또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 특히 상호간의 이해가 중심개념이 된다(박연호, 2000). 의사소통은 감정, 생각, 느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그것을 통하여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Bienvenu(1980)은 의사소통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려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점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자기의 느낌과 의미를 상대와 교환하는 방법이라 했다(이기숙, 1988).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분류된 유형들은 크게 두 가지 성격, 즉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폐쇄적인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 두려운 것, 기대하는 것 등이 분명하며 솔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 활기가 있고 자발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고 반응을 잘하는 것,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상대방에게 식별 있는 기대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반면, 폐쇄적인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의미를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서로 희망, 투사, 거의 관계하지 않으며, 고집스럽고 의미 없고 불명확한 애매모호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한다(이기숙, 1988; 이창숙, 유영주, 1988; Edwards, 1980; Gibb, 1961; Hawkins, Weisberg, & Ray, 1977; Wish, D'Andrade,

& Goodnow, 1980).

인간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태도, 정서적 통제, 기타 행동의 습관을 조성하며 인성 발달을 이루게 된다. 특히, 가족 구성원간의 인간관계 중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 성장발달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인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인간발달에 있어 독립된 성인기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심리적 발달이 병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조력자 또는 사랑의 대상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부모-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관계로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모든 인간의 행동양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업이나 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수의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요인이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갖는 긍정적 관계이다(소옥현, 2005; 안현정, 2005; 이영숙, 2001;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한지선, 2006). 이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부유할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이영숙, 2001), 자녀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소옥현, 2005) 자녀의 우울성향이 낮고,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한지선(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정신건강 수준이 더 높았다. 최희철, 황매향과 김연진(2009)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인과적 효과가 있어 청소년이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가질수록 그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이러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안현정(2005)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한 65편의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부모 변인군, 자녀 변인군, 환경 변인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는 환경 변인군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이에겐 가족구성원 내의 많은 상호작용과 관계, 적응성, 응집성, 대화시간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Thomas(1977)는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며, 태도·생각·애정·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는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서로 다른 관점과 세대 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가족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가족 간의 정보공유와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고 태도, 생각, 사상 등을 전달해 주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이며,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이 타인과 교섭함으로써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행동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의사소통이다. 가족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의사소통은 ‘상징적 거래 과정’ 즉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고, 만일 의미를 상호 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Galvin & Brommel, 1986).

Duvall(1965)은 부모와 청소년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감정을 정확하고 정신건강을 도와주며, 능동적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개인에게 수용되고 이해된다는 느낌을 주는 이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권혜진, 1993; 신수정, 199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Dornbusch et al., 1987; Bronstein et al., 1993)은 주로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관해 다루고 있다 권위적이고 애정적인 양육방식을 채택한 부모의 자녀들이 심리적, 행동적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숙진, 1998; Steinberg, Elmen, & Mounts, 1989). Miller(1995)는 부모의 지나친 엄격함과 지배성이 자녀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자녀관계, 특히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구자은, 2000). 윤진, 최정훈(1989), 전귀연, 최보가(1995) 등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긴장이 청소년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폐쇄적인 의사소통보다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폐쇄적인 의사소통보다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경숙, 권용신, 2004). 반면, 박소혜(1995)는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가 낮을수록 학교생활은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지나친 애정과 관심은

오히려 학교생활 적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대조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기 가족은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도 중년의 확대가족기에 접어든 시기로서 자녀들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되어 가기를 원하며, 부모는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버리고, 친구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이금, 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촉진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부모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관계 확립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김영애, 1990),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김양숙, 1995; 김정희, 1987; 이경주, 1989; 이진용, 1990), 사회성(김영애, 1990), 도덕성발달(김양숙, 1995), 적응수준(이연숙, 1991), 내외통제성(김양숙, 1995) 등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특성이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Tesser와 그의 동료들(1989)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원활할 경우 자녀의 적응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Grossman, Shea와 Adams(1980)는 부모-자녀간의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청소년 자녀들이 주관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방황과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정윤, 이경아, 2004 재인용). 김지현(1996)은 청소년 자녀가 가족구성원 간의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학교에 더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부족할 때 자녀에게 부적응 행동이 유발되어 학교적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남민숙(2006)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은 아동으로 하여금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김홍규와 최재향(2006)도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 주의 집중 문제, 게임 중독 경향성에서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장발달과 행동양식의 학습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들 간 의사소통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부모 자녀관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학교생활적응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부모의 온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고 있어, 부모가 온정·수용적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학교생활 일반이나 친구관계, 학교행사에 대해 더 잘 적응하였으며, 부모와 개방적으로 대화할수록 학교수업,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학교행사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영애, 박정희, 2008).

김양숙(1995)은 부모-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이 있으며 부모 문제형 의사소통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희화(1998)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환경적인 변인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증가에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신효식, 김근화, 2004).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김경원, 1998; 이경주, 신효식, 1990; 최인경, 2001)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진용(1990)이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이 심화축진적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다고 하였고, 권은정(1996)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만족하다”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시간이 많고, 만족도가 높을 때, 감정을 정화시키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반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부족은 부모-자녀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을 준다. 부모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주게 되므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살펴본 것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대부분으로, 이 연구와 관련한 요인들만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생활수준, 부모의 직업 등이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40대일 때 가장 우호적 비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의사소통에 적극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금, 1993; 오연옥, 1987).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대화가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연옥, 1987; 권은정, 1996). 학력이 낮은 집단이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 시간이 적고 의사소통 만족도가 낮았고,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은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 시간과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다. 부모-자녀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 시간이 많을 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 때 중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신효식, 김근화, 2004).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고소득 집단이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주, 1989; 김인희, 1993).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공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공부나 성공압력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 소득수준이 높거나 종교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자녀는 부모와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반면 부모의 소득은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김진숙, 1983; 장호선, 1986; 박은주, 1994). 이금(1993)은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때는 부정적 대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오연옥(1987), 김경신과 김오남(1994)은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의사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인식과 행동의 차이 연구

### 1) Lewin의 장(field)이론

Lewin의 장(field)이론은 인간 행동을 포괄적으로 묘사한다. 레빈은 전자기장 이론의 장(field) 개념을 빌려 장이론을 개발하였다. 장이론을 처음 도입한 것은 게슈탈트(gestalt) 심리학자였다. 게슈탈트 심리학자에서는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부분들의 상호관계가 개별적 특성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Hall & Lindzey, 1957). 초기 게슈탈트 심리학자와 베를린 대학에서 교류하였던 레빈은 심리적 실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이론을 활용하였다(오현석, 이현웅, 2010).

장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행동은 그것이 일어나는 시점에 존재하는 장의 함수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행동(B)은 사람(P)과 그 사람의 심리적 환경(E) 간의 상호작용의 함수' 라고 할 수 있다( $B=f(P,E)$ ). 둘째, 분석은 우리가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상황 전체(게슈탈트)로부터 시작한다. 셋째, 특정한 상황에 처한 특정한 사람은 수학

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Hall & Lindzey, 1970; 오현석, 이현웅, 2010 재인용).

첫 번째 전제에서 레빈은 환경의 정의를 사람에 의해 인식되고, 조직되어 지는 것으로 보고 이 환경을 '심리적 장(field)' 또는 '생활공간(life space)'로 정의하였다. 레빈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주어진 단위시간 내 장의 상태 변화로 이해된다." 그는 이를 개인의 '생활공간(life space)'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생활공간은 개인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장이나 생활공간은 "관심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실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들은 배제한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현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거나 현실의 일부분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오현석, 이현웅, 2010).

부모와 자녀의 인식차이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가 처한 환경,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의 상과 자녀가 인식한 부모상의 차이를 밝히는 과정이 곧 부모가 현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거나 현실의 일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레빈이 이야기한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다. 생활공간에서 각 부분들은 상호연결 되어 역동적으로 균형 상태를 지킨다. 전자기장과 같이 어떤 한 부분의 변화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장이론에서는 장은 단순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과 겹쳐지면서 사회적 장(social field)을 만들어 낸다(Argyris, 1952). 따라서 우리는 개인 내의 조직을 연구함으로써 조직을 이해 할 수 있다. 장이론에서는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조건이라는 형태라고 본다.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조건이다. 한 예로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개인 내적으로 구축된 구속 및 수치심이 이 사람의 현재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적 사실들의 집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실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장이론의 가장 의미 있는 점은 어떤 객관적 실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실재를 설명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레빈은 이 이론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면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이론이 작용하는 것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이 인간 행동의 다면적 속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검증 방법으로 액션 리서치(action research)라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장이론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건에 기대하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장에 의존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레빈의 주장에 따르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 혹은 미래의 사건이 어떻게 현재에 투영되어 나타나느냐이다. 즉, 그는 오늘의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장은 현재의 사건들이 어떻게 인식되는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상호간의 기대와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에서 단순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혹은 미래가 어떻게 현재에 투영되어 나타나는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생활의 장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또한 부모가 지각하고 있는 사실들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기대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단서를 배제할 수 있고, 부모와 청소년의 행동과 미래 행동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신봉이론과 사용이론

쾨른(Schön)은 1983년 '반성적실천가'를 통해서 특정 전문 분야에 있어 초심자와 구별되는 전문가의 특징을 탐구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전문가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숙고하는 단계와 실행하는 단계로 연결되거나 실무행위는 숙고하는 그 자체와 다르다고 하였다. 전문가가 현장에서 숙고하는 의도와는 반대되거나 상당히 다르게 실무행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신봉이론; *espoused theory*),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원리(사용이론; *theory-in-use*)는 다를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에 관한 개인의 의식적 신념에 관한 이론이고, 후자는 최소한 타인이 보는 관점에서 실제로 그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신봉이론은 실제 행동을 이끌어 가는 원리들로서 즉각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신념을 의미한다. 부모로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몸에 배어있는 생각과 신념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나오는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신념들이다. 흔히 자신의 행동을 떠받들고 있는 이러한 신봉이론은 분명하게 즉시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말한 내용과 실제 행동은 불일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신봉이론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행동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행동을 설계하고, 행동의 주체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봉이론을 파악하게 되면 실제 상황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사용이론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부모의 역할이나 부모-자녀의 관계에 관한 신봉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가치와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바를 분석해야 한다. 말이란 행동의 논리를 나타내는 창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행동을 왜 하였는지를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반추하는 것이 되므로, 부모가 표현한 말은 육아에 대한 현상과 신봉이론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Argyris와 Schön(1974)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특정 상황 하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을 경우 보통 하는 대답은 그 상황에 적합한 행동에 대한 신봉이론이다. 이는 그가 헌신 하려는 행동이론이며 요청에 의해 타인에게 의사소통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실제 지배하는 이론은 그가 신봉하는 이론과 양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개인은 양 이론 간의 양립 불가능성을 인식 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봉이론이 행동에 대한 근거로 사용된 것이라면 사용이론은 실무행동을 위해 사용된 원리로서, 관찰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신중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사용이론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기술하지 못한다. 사용이론은 개인이 행동을 설계하는 암묵적이며 인지적인 지도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반성의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이론에 의해 지배 받는다(Argyris, Putnam, & Smith, 1985).

부모교육, 부모-자녀 관계에 관련된 이론,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연구 분야에서 부모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위의 근거를 이루며 또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하다. 부모교육의 핵심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부모가 실제 수행하는 행동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부모가 갖고 있는 지식은 실행하는 단계로 연결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행위는 숙고하는 그 자체와 다르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는 부모와 자녀의 행복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숙고하는 의도와는 반대되거나 상당히 다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부모-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의도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윤리적 범위 내에서 틀이 형성되어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의도에서 벗어난 어떤 실제 행동은 비효과적이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을 살펴보고 부모 자신의 행동에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원리나 지침이 무엇이고,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됨에 대하여 믿는 것과 몸에 배어있는 신봉이론은 무엇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Argyris와 Schön(1974)은 행위이론이 신봉이론과 사용이론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행동이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계획된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행동은 행위자가 믿고 있는 신봉이론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신봉이론은 사용이론과 불일치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로 행동과 신념이 마찰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과학이 요구된다. 행동과학이란 자기화 된 신봉이론과 실제 활용이론이 명백히 불일치 될 때, 그 행동에 대한 신념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행동과학은 현장에서 실무행위를 반영하여 전문직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Argyris, Putnam, Smith(1985)에 의하면 행동과학은 개인의 사용이론과 신봉이론의 불일치점을 발견하고 대안적인 사용이론을 적용하도록 돕는 전략 개발에 관심이 있으며 개인 고유의 사용이론을 위해 자기 노출과정에 대해 아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 혹은 부모-자녀 관계를 주제로 한 행동과학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경험에서 비롯된 신념과 육아에 관련된 이론들은 무엇이고, 또한 부모로서의 행동은 어떠한지 질문을 가질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신념, 가치, 생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자기불일치 이론

사람은 누구나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 자기, 의무적·당위적 자기 간 불일치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으며, 자기안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슬픔과 실망 또는 죄의식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자기불일치라 한다(Higgins, 1987). '자기 영역'의 종류는 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그리고 의무적 자기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실제적 자기는 한 개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속성들의 자기 표상이다. 둘째, 이상적 자기는 개인이 이상적으로 소유하기를 바라는 속성의 자기 표상(희망, 소원, 포부)이다. 셋째, 당위적 자기는 개인이 소유해야만 한다고 믿는 속성의 자기 표상(의무, 책임, 도덕적 기준)이다. 이와 더불어 Higgins(1987)는 자기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자신과 타인이라는 두 가지 조망을 두고, 이 두 차원의 조합으로 실제 자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 실제 자기에 대한 타인의 관점, 이상적 자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 이상적 자기에 대한 타인의 관점, 당위적 자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 당위적 자기에 대한 타인의 관점 등 총 여섯 가지의 자기불일치 상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의 불일치가 생기면 불만족감, 실망, 슬픔과 같이 '낙심한 상태와 관련된 감정'을 겪기가 쉽다. 반면에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 상태에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위협, 죄책감, 자기경멸감, 안절부절못함 등과 같은 '초조한 상태'와 관련된 정서'를 겪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인간은 자기불일치를 줄이려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게 되는데, 실제적 자기와 자기 안내자<sup>1)</sup>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자기 안내자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불일치를 줄이려고 한다.

자기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자기 표상간의 불일치는 서로 다른 정서적 불편감과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다른 종류의 정서적 불편감과 연관된 두 종류의 기본적인 부정적 심리상황에 관해서 보고하고 있다(Roseman, 1996; Stein & Jewett, 1986). Higgins(1987) 에 따르면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불일치는 긍정적 결과가 부재하는 심리적 상황을 표상하게 하고, 실제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간의 불일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존재하는 심리적 상황을 표상하게 한다. 긍정적 결과의 부재상황은 낙담과 관련된 정서 즉, 슬픔, 실망감, 불만감과 연관되며, 부정적 결과의 존재 상황은 초조와 관련된 정서 즉, 공포, 위협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교영과 이민규(1998)는 편집성향이 높을수록 타인의 관점에서 본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현재 실제 자기와 타인의 관점에서 본 자기간의 불일치가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불일치가 커질수록 긍정적 정서는 적게 경험하고 불행감이 증대되며(김연주, 2011; 이상철 외, 2008; 이영호, 최정원, 1998), 자기불일치가 적을수록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Morretti & Higgins, 1990). Higgins(1987, 1989a, 1989b)는 자기불일치와 행복의 관계는 전반적인 불일치 정도뿐 아니라 불일치를 경험하는 세부 영역별로 개인이 부여하는 상대적인 중요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하였다. 대인관계측면에서의 만족에 자기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김영수와 신희천(2012)은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자기(self) 개념은 자기불일치로 인해 야기된 대인관계의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부정적 영향을 받은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개념은 더 큰 자기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인 대인관계적 경험은 개인의 적응과 성장, 정체성 형성에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1) 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는 자기를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기 안내자라고 함

제시하였다.

학업적인 기대가 최고조에 있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로 인한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개체 발달 과정에서 자아 주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통합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김향림, 2001).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자기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주 발달과제인 청년기(12-18세)에 속하며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므로 자기개념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Erikson, 1963).

자기불일치는 다양한 자기의 모습간의 차이를 인식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역동적 변화 가운데서 자기를 탐구해나가고 자기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개인이 지각하는 자기불일치가 크면 클수록 우울 및 불안의 경험도 보다 심하게 야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청소년기 안에서도 연령에 따라 자기불일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불일치를 보다 선명하고 크게 지각한다고 주장한 결과가 있고(Ferguson, Hafen, & Laursen, 2010; Harter et al., 1997),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자기에 대한 개념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Crocetti et al., 2008)와 자기개념과 자기불일치 수준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가은, 강민주, 2011)도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부모, 형제, 가까운 친구 등)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모습, 또는 자신이 꼭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모습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자기불일치가 클수록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다(Higgins, 1987). 또한 다양한 자기표상을 하고 이를 통합해 가야 할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이 지각하는 현재의 자아상과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자아상 및 미래에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자아상과의 불일치가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자기불일치는 학문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 자기불일치는 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 및 불안(서수균, 1996; 최정원, 1996), 시험불안(박현희, 2006)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자아개념 간 차이 즉, 실제적 자기를 기준으로 당위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와와의 차이는 각각 불안과 우울이라는 심리적 긴장을 유발시키며 부적자아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철 외, 2008). 박현주와 조공호(2003)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불일치와 우울, 불안 및 자기효능

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신민희와 강문희(2005)는 비행청소년이나 문제행동을 보인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기불일치 유형과 정서적 특징을 일반청소년들과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업성취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이상적 불일치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거나(박현주, 조궁호, 2003), 성적하락을 많이 느낄수록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신혜린, 2002)와 자아불일치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인 연구결과(정혜중, 1986)로 소수이며,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의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척도를 개발하여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가 수행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조용래, 김선태, 표경식, 1996).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시험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신혜린, 2002), 자기불일치가 학업성취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정소희, 양성은, 2011), 자기불일치와 자기효능감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연구결과도 있다(서수균, 1996;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그리고 자기불일치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기불일치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정혜중, 1986).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불일치와 우울, 불안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박현주, 조궁호, 200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불일치 유형과 정서적 특징을 비교한 연구(신민희, 강문희, 2005) 등에서 학업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한국방정환재단, 2011), 여러 연구에서 이들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재선, 김의철, 2006; 김청송, 2009; 전경숙, 정태연, 2009; Dumont & Provost, 1999). 가정은 정신적인 안식처이며,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김의철, 박영신, 2004), 가정에서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만(구자경, 황진숙, 2007; Christenson, Rounds, & Gomey, 1992), 그렇지 못한 경우 등교 거부, 탈선, 가출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문제를 경험하기 쉽다(유성경, 2000; 이정미, 양명숙, 2006). 이런 측면에서, 한국 고등학생이 가족관계 영역에서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현실 경험 간에 불일치(이하 '가족관계 자기불일치')를 더 많이 느낄수록 덜 행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불일치를 느끼는 요인 중 가족관계에 대한 자기불일치는 가정경제 자기불일치보다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짓는데 행복보다 상대적으로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소, 임지영,

2003; 김신영, 백혜정, 2008; 김지윤, 이동귀, 2012; 전경숙, 정태연, 2009). 그러나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한 요소로 가족관계(24.9%)와 돈(24%)의 중요성이 비슷했던 연구(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한국방정환재단, 2011)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어떤 요소가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신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복감과 생각만큼 관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구재선, 김의철, 2006)처럼, 청소년이 경제적인 영역을 가족관계 영역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행복감에 기여하는 정도에서는 가족관계 영역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지윤, 이동귀, 2012).

### 3.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기대 연구

#### 1)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적 수준,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된다. 부모는 청소년이 태어나 최초로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화 뿐 아니라 다양한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자녀의 행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Shaffer(2009)는 애정성-적대성 차원과 허용성-제한성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Baumrind(1971)는 권위주의적, 권위 있는, 그리고 허용적인 양육행동 유형으로 구분하고, 부모의 통제에 따라 그리고 부모의 행동영역으로 통제, 온정을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분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 김혜영(2000)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친밀감 및 합리성, 통제, 과잉보호, 그리고 방임요인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네 개 요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로 흔히 언급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애정, 친밀·합리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 유형과 부모의 통제, 거부, 과보호와 방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 유형이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주로 연구하였다(최미경, 2011; 이은경, 박성연, 2006; Anderson & Hughes, 1989).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친밀·합리와 같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김연희, 박경자, 2001), 통제와 과잉보호 그리고 방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신민진, 하은혜, 2010; 문경주, 오경자, 2002; 김혜영, 2000; 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

Symonds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최초 체계화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사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녀간의 관계 유형을 수용형과 거부형으로 구분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지배하려 하느냐 자녀에 복종하려 하느냐에 따라 지배형과 복종형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김홍규, 1994). Hurlock(1978)은 자녀 양육태도를 익애적, 거부적, 수용적, 지배적 태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Baldwin(1955)은 부모 행동의 평정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로 가정의 분위기를 민주적, 전제적, 익애적, 거부적 가정으로 유형화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네 개의 차원으로 구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하였다.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Ketsetzis, Ryan과 Adams(1998)는 지지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Chen, Liu와 Li(2000)는 2년간의 종단연구에서 어머니의 온정성은 아동의 정서적 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언해주었다. Chartrand(1992)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의 학교적응이 양호하다고 하였다. 또한 Bronstein 등(1996)은 부모의 지지적이고 지각 있는 양육행동은 5학년 시기의 긍정적인 학업적, 사회적,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긍정적 양상은 7학년 시기에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강유진과 문재우(2005) 역시 부모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는 학생이 교사와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밝혔다. 경제상태가 좋고 부모관심을 많이 받으며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이 학습활동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보이고, 학업성취의 경우, 경제 상태와 가족갈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이

되며, 부모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가족 갈등이 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2004)은 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더 잘 형성하고 학교규칙을 더 잘 준수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성숙요구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더 잘 형성하고, 학교규칙을 더 잘 준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가진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모의 사회화 요구에 대한 내면화 정도도 높아 학교규칙을 더 잘 준수하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계획해 나가도록 요구하는 부모의 성숙요구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기규제와 관련이 되고, 자기규제를 잘하는 청소년들은 규칙과 도덕의 내면화 정도가 높아 학교규칙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은영과 김경혜(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이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배숙진(1998), 이정아(2002)의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각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아, 가정에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성장, 발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한편 이선경과 이재연(1998)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문제행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이어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 박영애, 장창현(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거부·제재적 이거나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기대

기대의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어떤 연구에서는 기대를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하여 분명한 예기, 즉 예언으로서 논의하였고(Entwise & Hayduck, 1978), 다른 연구에서는 가치나 의견, 태도, 행동으로 언급하였다(Goodnow, 1990; Hess et al., 1980).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기대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 등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기다리는 행동의 준비상태를 말한다. Deosaran(1978)은 기대의 개념을 열망과 구분하여 정의를 하였는데 열망은 하고자 하는 것이나 성취해야 하는 목표이며, 기대는 행동이나

목표에 대한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 했다. Tillery와 Kildegaard(1973)은 Deosaran(1978)의 개념정의를 인용하여 열망은 미래의 성취에 대한 소망과 바람인 반면 기대는 미래의 성취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 현실적인 고려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열망과 기대에는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 열망은 기대보다 상위체계이며, 기대는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성적 등과 같은 변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적 열망은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성적 등의 변수에 기대보다 영향을 적게 받는다. 교육기대는 한 개인이 현실적으로 얻기를 기대하는 가능성 위에 수립된 한 개인의 태도라는 현실적인 행동의 선택인 반면 교육 열망은 이상적 바람으로 실제적 가능성의 고려를 하지 않는 교육적인 태도를 의미한다(Deosaran, 1978).

이와 달리 아동학이나 가족학에서는 기대의 개념을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련짓고 있다. Collins(1992)는 기대를 사고,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내에서의 행동과 반응을 이끄는 정서의 복합적 도식으로 규정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Lee, Daniels와 Kissiner(2006)는 기대가 사고와 정서를 포함할 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행동과 반응을 유도한다는 전제에 의거해서 기대를 행동과 관계를 이끄는 이동의 기술이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미래지향적 사고로 정의하였다.

기대와 행동에 관한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기대가 인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임종석, 2000). 부모의 기대는 특히 자녀들의 발달과 성취에 관련이 있다.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의 부모의 기대와 아동의 발달, 이 두 개의 독립적인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Daniels, 1999).

Rosenthal과 Jacobson(1968)의 자기-충족적 예언에 관한 연구는 부모의 기대가 가지는 힘과 이러한 기대가 어린 아동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부모의 기대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또는 부모가 아동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부모의 기대와 아동발달에 관한 문제는 과거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였다(Entwise & Hayduk, 1978; Renk et al., 2007). 특히 부모와 교사의 기대가 아동의 성취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Goodnow, 1988; Miller, 1995; McGillicuddy-Delisi, 1985), 그 결과 부모의 기대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대학에 입학할 것을 기대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Kirk et al., 2011). 부모 기대는 학업성취와도 밀접한 정적 관련을 맺고 있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학업 성취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김종백, 김준엽, 2009; Jacobs & Harvey, 2005; Zhan, 2006)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기대는 학생들의 기대 및 가치 신념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enner & Mistry, 2007; Eccles & Wigfield, 2002). 즉,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를 높이 지낼수록 자녀는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나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니게 된다. 부모의 기대는 교육 포부 수준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학습 능력과 교육 포부 및 교육적 성취와의 관계에서 조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Benner & Mistry, 2007).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높은 수준의 부모 기대는 높은 학업 성취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Grossman, Kuhn-McKearin, & Strein, 2011). 또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Davis-Kean, 2005). 학업성취 외에 부모는 자녀의 미래 직업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직업에 대한 포부는 현재 자신들의 직업 환경, '좋은 직업'에 대한 인식과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추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직업 환경보다 더 나은 위치의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 특히 이러한 환경의 아버지의 경우 아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Irwin & Elley, 2013).



## 제 3 장

---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 통계 분석

1. 연구 방법
2. 연구 결과



# 제 3 장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 통계 분석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나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한 양적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포커스그룹(FGI)을 통해 심층면담하는 질적 연구이다. 양적 연구를 먼저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가 추후에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과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 제4장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및 결과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부모와 자녀(청소년)가 기대하는 자녀상에 대한 인식차이를 밝힘으로써 서로가 기대하는 자녀상에 대한 차이와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학부모와 자녀의 자녀상과 행복, 갈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궁극적인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와 자녀(청소년)를 한 쌍으로 하여 총 700쌍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 700명, 자녀(청소년) 700명 총 140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부모와 자녀(청소년)가 기대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를 한 쌍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중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대상으로 어머니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머니는 주요 양육자로서 자녀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며 짧은 연구 기간 안에 비교적 큰 사례수를 수집해야 하는 절차적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어머니와 자녀의 선정은 서울 지역을 4개의 구역(동서남북)으로 구분하고, 4개의 구역에서 응답자 수가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고 거주 지역이 중복되지 않게 무선 표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면접 조사원이 직접 어머니와 자녀를 조사하는 랜덤 조사와 학교를 접촉하여 학교로 학생을 방문하여 자녀를 조사한 후 학부모 질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학교 조사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랜덤 조사에서는 총 752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그 중 716부가 회수되었고 학교 조사에서는 배부된 모든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오류가 발견된 설문을 제거하고 총 1400부의 어머니, 자녀에 대한 설문 자료를 확보하였다.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하고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350명씩이며, 조사를 수행한 4개의 구역에 동일하게 각각 175명씩 포함되어 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학부모-자녀 간 행복, 기대, 갈등, 역할 및 관계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 정리하여 학부모-자녀 간 자녀상에 대한 상호기대차이의 영역을 도출하고, 해당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도구로 학부모용과 자녀(청소년)용 두 가지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측정도구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전공 교수 및 박사 5인의 반복적인 서면 검토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먼저 학부모용 설문도구의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도구의 문항은 인구사회학적 정보영역 13문항, 인생관 8문항, 양육관 7문항, 성취관 7문항, 재능관 5문항, 사회관 5문항, 학교관 4문항, 행복 3문항, 부모자녀 갈등 4문항으로 총 8개 영역 4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정보영역은 부모 개인과 가정 정보를 묻는 문항으로써 부모의 연령, 성별, 부모의 학력 및 직업, 경제적 수준, 부모와 자녀의 동거 상태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학부모와 자녀의 자녀상에 대한 상호기대차이 영역은 어머니 혹은 학부모가 자녀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바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총 여섯 가지 영역이 설정되었다. 가장 먼저 인생관은 인생 목표설정 및 지향점과 인생 경험에 대한 태도와 관점으로써 “나는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가족 중심 행복 추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나는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사회 공헌 및 봉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공부를 아무리 못하더라도 자녀가 행복하게 생활하기

를 바란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로 양육관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성숙주의, 환경주의와 같은 발달에 대한 인식 및 견해로써, “나는 자녀의 감정이나 기분을 이해하면서 대한다.”, “나는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로 성취관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성취의 의미, 노력, 결과 등에 대한 견해로써 “자녀의 능력에 비해 나의 기대가 더 높은 편이다.”, “나는 자녀가 반드시 전문 직업인(의사, 교수, 변호사)이 되기를 바란다.”, “성공을 위해 자녀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를 기대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 재능관은 능력, 적성, 소질에 대한 인식 및 재능 계발에 대한 견해로써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재능과 자녀가 좋아하는 일은 일치한다.”, “자녀가 한 분야의 소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를 바란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사회관은 윤리관, 공동체 의식 등 사회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과 경쟁주의, 패배주의와 같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및 견해로써 “나는 내 자녀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편이 낫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보았더라도 자녀가 나서서 따지기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나의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더 많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관은 학교교육의 의미와 담임교사에 대한 인식 및 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견해로써 “학교교육에서 입시보다 인성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나는 자녀에게 학교 공부 외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녀가 공부 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등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갈등은 현재 자녀와 의견 또는 관점의 차이로 나타나는 심리적 또는 사회적 관계의 불균형 상태로써, 부모와 자녀 간 여가, 학업, 교우관계, 매체 사용 등에 관련된 생활영역별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현재 나는 자녀와 휴대폰, 컴퓨터 사용 문제(예: 게임, 동영상, SNS 등)로 갈등이 있다.”, “현재 나는 자녀와 공부 문제(예: 숙제, 학교 성적, 과외나 학원 등)로 갈등이 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복감은 가족 구성원과 그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비롯한 현재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 또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을 묻는 내용으로써 “나는 현재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가족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설문 도구는 두 가지 유형의 응답척도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으로 각 영역별 설문문항은 학부모와 자녀의 인식차이를 보다 극명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7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응답척도는 의미분별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 scaling)을 적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정보, 갈등, 행복 영역을 제외한 여섯가지 영역(인생관, 양육관, 성취관, 재능관, 사회관, 학교관)에

서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 대립 개념에 대해, 자신의 의견에 보다 가까운 번호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9문항을 구성하였다. 예컨대 성취관 영역에서 “자녀의 학습과정 보다는 학업성취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학업성적이나 결과보다 학습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는 학습의 과정이 중요한지 결과가 중요한지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묻는 문항으로 이에 대해 어느 쪽에 자신의 의견이 더 가까운지를 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청소년)용 설문도구의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용 설문도구는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용 설문도구는 인구사회학적 정보영역 8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3문항이 학부모용 설문도구와 동일하게 구성되었고, 이외에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기대 수준을 묻는 16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자녀가 인식하는 어머니의 자녀상 문항은 인생관을 비롯한 여섯 가지 영역의 문항 중 어머니의 기대치와 자녀의 기대치가 극명하게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재능을 살리는 것보다 대학입학에 도움이 되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어머니는 내가 공부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등 학교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 등 어머니의 자녀상과 실제 행동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응답하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7점 Likert 척도로 질문한 어머니와 자녀에게 동일하게 사용된 34개 문항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방식을 적용하여 사각회전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다음의 <표 III-1>은 학부모 자료와 자녀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수행 결과 나타난 요인적재치의 절대값을 제시한 것이다.

요인적재치의 절대값이 .40이상인 경우만을 문항의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는 각 문항을 학부모와 자녀 간 자녀상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적재치가 다른 문항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40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문항이라도 해당 영역에 포함시켜서 사용하였다.

학부모 설문도구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는 .677, 학생 설문도구는 .628이었으며, 학부모와 자녀간 상호기대차이 영역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표 III-2>에 제시하였다. 영역의 내용과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최종 문항 구성과 본 연구에서 사용할 문항 명칭은 <표 III-3>에, 의미변별척도에 대한 내용은 <표 III-4>에 제시하였다. 실제 설문도구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III-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영역명	문항번호	요인 적재치		영역명	문항번호	요인 적재치	
		학부모	자녀			학부모	자녀
인생관	9	.642	.830	재능관	23	.460	.700
	3	.613	.615		1	.419	.496
	16	.592	.432		14	.405	.452
	12	.582	.510		15	.399	.408
	31	.520	.389	사회관	7	.674	.624
	19	.462	.468		8	.599	.259
	24	.405	.571		10	.456	.736
양육관	2	.482	.521	20	.408	.518	
	6	.430	.356	학교관	4	.472	.730
	22	.385	.472		13	.436	.356
	34	.309	.503		17	.387	.596
성취관	5	.652	.678	행복	25	.772	.802
	18	.644	.675		33	.555	.721
	21	.632	.587		32	.516	.717
	26	.601	.498	부모자녀 갈등	28	.861	.841
	11	.492	.335		27	.858	.845
				30	.807	.727	
				29	.600	.478	

**표 III-2**    영역 설명 및 해당 문항 수

영역	설명	학부모 설문	자녀 설문	
		문항수	자녀기대 문항수	자녀인식 문항수
1. 인생관	인생 목표설정 및 지향점과 인생 경험에 대한 태도와 관점	8	8	5
2. 양육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역할, 발달에 대한 견해 및 부모 지원과 형제에 대한 대우 등과 관련된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과 견해	7	7	1
3. 성취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성취의 의미, 노력, 결과 등에 대한 기대와 견해	7	7	3
4. 재능관	자녀의 능력, 적성, 소질에 대한 인식 및 재능 계발에 대한 견해	5	5	4
5. 사회관	윤리관,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과 경쟁주의, 패배주의와 같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및 견해	5	5	2
6. 학교관	학교교육의 의미와 담임교사에 대한 인식 및 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견해	4	4	1
7. 행복	가족 구성원과 그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비롯한 어머니의 현재 생활의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 및 현재 생활의 만족도	3	3	·
8. 부모자녀 갈등	부모와 자녀 간 여가, 학업, 교우관계, 매체 사용 등에 관련된 생활 영역별 갈등의 정도	4	4	·
계	·	43	43	16

표 III-3 영역에 따른 일반문항 내용과 명칭

영역	문항번호			문항내용	문항명칭
	학부모	자녀기대	자녀인식		
인생관	3	3	4	공부보다 행복한 생활 지향	인생1
	9	9	6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 중시	인생2
	12	12	8	사회 경제적 성공 인생목표	인생3
	16	16	·	영적 종교적 만족 인생목표	인생4
	19	19	11	가족 중심 행복추구 인생목표	인생5
	24	24	·	일상생활 재미추구 인생목표	인생6
	31	31	2	사회 공헌 및 봉사 인생목표	인생7
양육관	2	2	14	자녀의 감정 수용과 이해	양육1
	6	6	·	아버지 대화시간 증가 기대	양육2
	22	22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양육3
	34	34	·	형제자매간 부모의 공평대우	양육4
성취관	5	5	5	전문직업인(의사, 교수, 변호사) 선호	성취1
	11	11	·	자녀능력보다 부모기대 높음	성취2
	18	18	·	높은 성공목표설정 기대	성취3
	21	21	1	모든 과목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	성취4
	26	26	12	재능보다 대입준비 학업성취 중요	성취5
재능관	1	1	15	자녀, 어머니가 생각하는 재능 일치	재능1
	14	14	1	한 분야의 소질 개발	재능2
	15	15	9	머리는 좋으나 노력이 부족	재능3
	23	23	13	자녀성공과 어머니성공 동일시	재능4
사회관	7	7	·	패배주의적 경쟁 회피	사회1
	8	1	16	손해감수 원칙주의 지향	사회2
	10	10	7	왕따 문제 개입 회피	사회3
	20	20	·	노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사회	사회4
학교관	4	4	·	사교육 필요	학교1
	13	13	·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배려 인식	학교2
	17	17	10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 불필요	학교3

표 III-4 의미변별문항의 영역에 따른 문항 내용과 명칭

영역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명칭
인생관	43	자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존재이다. ↔ 자녀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존재이다.	자녀독립성 대 부모주도성
양육관	35	자녀가 공부를 잘하려면, 타고난 지능이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 자녀가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숙주의 대 환경주의
	41	나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준다. ↔ 나는 자녀들이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	자율적 양육관 대 통제적 양육관
	42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에게 따뜻한 애정과 보살핌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녀의 학업과 생활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다.	애정형 양육관 대 관리형 양육관
성취관	37	나는 자녀의 학업성적이나 결과보다 학습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나는 자녀의 학습과정보다 학업성취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정주의 대 결과주의
	39	나의 자녀는 수입이 적더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 나의 자녀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회적 기여지향 대 물질적 보상지향
재능관	38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도 자녀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기를 원한다. ↔ 자녀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기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를 택하는 것이 낫다.	재능지향 대 사회적 인정지향
학교관	40	학교교육에서 입시보다 인성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 지향 대 입시교육 지향
사회관	36	자녀가 학급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기를 바란다. ↔ 자녀가 학급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공동체주의 대 개인주의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설계 및 설문도구 개발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행복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기대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설문도구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이루어졌다. 개발된 설문도구에 있어 가족학 및 교육학 전문가 5인으로부터 설문도구의 타당도를 검증 후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최종 개발된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적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학부모와 청소년을 소그룹으로 구성한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자녀의 기대차이에 따른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설문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이 이루어진 뒤에, 결과를 심층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후속해서 실시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 및 결과는 제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단계	연구 수행 내용
STEP 1 조사 연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 연구 검토</li> <li>● 학부모, 청소년의 기대 및 가치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설문 문항 개발</li> <li>●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추가한 학부모용, 청소년용 설문 개발</li> </ul>
STEP 2 전문가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학, 교육학 분야 최고 전문가 5인으로부터 설문 내용타당도 검증</li> <li>● 전문가 검증 후 문항 재검토 및 수정 보완</li> <li>● 학부모용 총 56문항, 청소년용 총 6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완성</li> </ul>
STEP 3 설문 실시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 어머니-자녀쌍 700여 명 대상 본검사 실시</li> <li>● 학부모 및 자녀의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 차이에 대한 설문 통계 분석</li> </ul>
STEP 4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중학생(1학년), 고등학생(1학년)과 해당 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총 31명, 5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시</li> <li>● 설문 결과 및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점 논의</li> </ul>
STEP 5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에 대한 실태 분석</li> <li>● 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li> <li>●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li> </ul>

[그림 Ⅲ -1] 연구절차 및 연구수행 내용

#### 4) 자료 분석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 본인의 생각 간 차이인 상호기대 차이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자녀의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간 차이인 상호인식 차이 검증을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와 상호인식 차이에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의 차이와 상호인식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학부모 배경 변인과 자녀 배경 변인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모형과 동시에 투입한 모형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셋째,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학부모 배경 요인을 모형에 투입하고, 자녀 배경 요인, 상호기대 차이와 상호인식 차이 정도 및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섯 가지 자녀상에 대한 응답값을 모형에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어떠한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설정한 네 가지 단계모형에서 일관되게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을 살펴보아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넷째, 자료의 짝(Dyadic) 구조를 이용한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 방법을 적용하여, 학부모와 자녀의 자녀상 인식이 자신의 행복과 갈등에 미치는 효과인 자기 효과와 반대로 서로의 행복과 갈등에 미치는 효과인 상대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학부모-자녀 내 수준이 1수준, 학부모-자녀 간 수준이 2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행복과 갈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학부모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서로 대립되는 양극단의 개념을 제시하여 어느 쪽에 자신의 의견이 더 가까운지를 답하도록 한 의미분별척도 형태의 아홉 개 문항에서 얻어진 응답을 이용하였다. Collins & Lanza (2010)와 Nylund 등(2007)이 제안한 바에 따라 Log-likelihoo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 Entropy,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 지표를 이용하여 적절한 유형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류된 학부모 집단을 명명한 후 분류된 집단 간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상호인식, 행복 및 갈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와 사후검증으로 Scheffe방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과 HLM Version 6.0을 이용하였다.

## 2. 연구 결과

### 1) 학부모와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 (1)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중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5>와 같다. 학부모 중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 54.3%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23.1%, 전문대졸이 11.0%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 41.4%, 고졸이 38.9%, 전문대졸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동안 자녀와 15분 이상 대화하는 횟수는 7회가 25.9%로 가장 많았고,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3.3%, 8회 이상 많이 대화하는 경우는 7.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3%가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하기를 희망하였고 대학원 석사 이상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17.7%, 박사 이상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15.7%였다.

아버지는 자영업(29.4%)과 관리직(25.3%)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45.4%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6.9%,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4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상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전체의 33.1%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그 다음으로 28.9%이었다.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형태가 86%이었고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8.1%에 해당되었다. 부부의 결혼 상태는 대부분 초혼으로 94%에 해당하였고 그렇지 않은 결혼 상태의 경우는 모두 4.1%였다.

학부모 응답자의 연령범위는 36~59세였으며, 평균은 44.29세였다.

표 III-5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 ( 0.4)	아버지 직업	생산, 단순직	10 ( 1.4)
	고졸	162 (23.1)		서비스직	34 ( 4.9)
	전문대졸	77 (11.0)		판매직	24 ( 3.4)
	대졸	380 (54.3)		자영업	206 (29.4)
	대학원 석사	59 ( 8.4)		기술,기능직	63 ( 9.0)
	대학원 박사	16 ( 2.3)		사무직	105 (15.0)
	무응답	3 ( 0.4)		관리직	177 (25.3)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7 ( 1.0)	어머니 직업	전문직	61 ( 8.6)
	고졸	242 (38.9)		무직	2 ( 0.3)
	전문대졸	101 (14.4)		종교인	6 ( 0.9)
	대졸	288 (41.1)		사망	6 ( 0.9)
	대학원 석사	26 ( 3.7)		무응답	6 ( 0.9)
	대학원 박사	4 ( 0.6)		전업주부	318 (45.4)
	무응답	2 ( 0.3)		생산, 단순직	17 ( 2.4)
자녀와 15분 이상 대화 횟수	0회	23 ( 3.3)	어머니 직업	서비스직	58 ( 8.3)
	1~2회	131 (18.7)		판매직	43 ( 6.1)
	3~4회	168 (24.0)		자영업	68 ( 9.7)
	5~6회	131 (19.0)		기술,기능직	31 ( 4.4)
	7회	181 (25.9)		사무직	73 (10.4)
	8회 이상	54 ( 7.7)		관리직	16 ( 2.3)
	무응답	10 ( 1.4)		전문직	74 (10.6)
	무응답	2 ( 0.3)		무응답	2 ( 0.3)
자녀 교육 희망 수준	고등학교 졸업	2 ( 0.3)	경제활동 참여자	아버지	328 (46.9)
	전문대학 졸업	14 ( 2.0)		어머니	52 ( 7.4)
	대학교 졸업	450 (64.3)		아버지, 어머니 모두 참여	314 (44.9)
	대학원 석사	124 (17.7)		아버지 어머니 모두 참여 않음	6 ( 0.9)
	대학원 박사	110 (15.7)			
계	700 (100.0)	계	700 (100.0)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부모 자녀 동거 형태	부부와 자녀	602 (86.0)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44 ( 6.3)
	아버지와 자녀	3 ( 0.4)		200만원~400만원 미만	202 (28.9)
	어머니와 자녀	29 ( 4.1)		400만원~600만원 미만	232 (33.1)
	조부모, 부모와 자녀	57 ( 8.1)		600만원~800만원 미만	126 (18.0)
	자녀 독립거주	2 ( 0.3)		800만원 이상	95 (13.6)
	무응답	7 ( 1.0)		무응답	1 ( 0.1)
	무응답	7 ( 1.0)		무응답	1 ( 0.1)
부부 결혼 상태	초혼	658 (94.0)	계		700 (100.0)
	별거 혹은 이혼	24 ( 3.9)	응답자 연령	평균 (표준편차)	44.29 (3.42)
	이혼 후 남편과 본인 모두 재혼	2 ( 0.3)		최소값	36
	이혼 후 남편만 재혼	4 ( 0.6)		최대값	59
	이혼 후 본인만 재혼	3 ( 0.4)			
	무응답	6 ( 0.9)			
계	700 (100.0)				

### (2) 자녀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 중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6>과 같다. 응답 학생의 성별은 남자 350명, 여자 350명으로 남녀 비율은 동일하였다. 출생 순위는 첫째가 55.4%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37.4%였으며 셋째는 6.7%, 넷째 이하는 0.4%였다. 중학교 350명, 고등학생 350명 가운데 학년별 비율은 중학교 1학년 18.1%, 중학교 2학년 17.6%, 중학교 3학년 17.9%, 고등학교 1학년 23.4%, 고등학교 2학년 23.0%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학교급 내에서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답 학생의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가 65.0%, 사립학교가 35.0%로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고 재학 중인 학생이 44.3%로 가장 많았고, 자율고 1.0%, 특성화고 0.6%, 특목고 0.3%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적 수준을 살펴보면 학급 내 성적 수준이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이 19.7%,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은 20.7%였고, 상위 40%는 34.7%, 상위 60%는 15.1%, 60%이상은 8.4%였으며, 응답자 중 9명(1.3%)은 성적 수준에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70.7%가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였고, 11.4%는 석사 졸업, 8.6%는 박사 졸업을 희망하였다. 반면, 중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 결과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희망 교육수준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을 희망하는 비율이 자녀는 90.7%, 학부모는 97.7%로 자녀 및 학부모 모두 높은 학력기대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석사, 박사 졸업에 대한 희망수준 모두 학부모 응답이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자녀에 비해 학부모의 희망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흡연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의 96.7%가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6**      **자녀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자	350 (50.0)	학교설립형태	사립	245 (35.0)	
	여자	350 (50.0)		국공립	455 (65.0)	
출생순위	첫째	387 (55.4)	성적	상위 10%	138 (19.7)	
	둘째	262 (37.4)		상위 20%	145 (20.7)	
	셋째	47 ( 6.7)		상위 40%	243 (34.7)	
	넷째 이하	3 ( 0.4)		상위 60%	106 (15.1)	
	무응답	1 ( 0.1)		상위 60% 이상	59 ( 8.4)	
				무응답	9 ( 1.3)	
대상학년	중학교 1학년	127 (18.1)		희망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0 (0)
	중학교 2학년	123 (17.6)	고등학교 졸업		34 ( 4.9)	
	중학교 3학년	125 (17.9)	전문대학 졸업		31 ( 4.4)	
	고등학교 1학년	164 (23.4)	대학교 졸업		495 (70.7)	
	고등학교 2학년	161 (23.0)	대학원(석사)		80 (11.4)	
학교유형	일반고	310 (44.3)	흡연여부		대학원(박사)	60 ( 8.6)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0 (0)			무응답	0 (0)
	특목고	2 ( 0.3)			흡연	23 ( 3.3)
	특성화고	6 ( 0.6)			비흡연	677 (96.7)
	자율고	7 ( 1.0)				
계	700 (100.0)	계	700 (100.0)			

## 2)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 차이 분석

### (1)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자녀 간 상호기대 차이

학부모와 자녀가 자녀상에 대해 상호 기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자녀상을 묻는 전체 27개 문항 중 6개 문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21개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III-7**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 차이 검증 결과(N=700)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인생1	공부보다 행복한 생활 지향	학부모	5.39	-.14
		자녀	5.40	
인생2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 중시	학부모	5.79	6.13***
		자녀	5.38	
인생3	사회 경제적 성공 인생목표	학부모	4.07	-4.20***
		자녀	4.40	
인생4	영적 종교적 만족 인생목표	학부모	2.59	1.80
		자녀	2.47	
인생5	가족 중심 행복추구 인생목표	학부모	5.39	7.28***
		자녀	4.92	
인생6	일상생활 재미추구 인생목표	학부모	4.61	-9.79***
		자녀	5.36	
인생7	사회 공헌 및 봉사 인생목표	학부모	4.16	9.38***
		자녀	3.48	
양육1	자녀의 감정 수용과 이해	학부모	5.05	2.74**
		자녀	4.89	
양육2	아버지 대화시간 증가 기대	학부모	5.41	14.46***
		자녀	4.36	
양육3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족	학부모	3.30	11.26***
		자녀	2.56	
양육4	형제자매간 부모의 공평대우(N=628)	학부모	5.23	3.19**
		자녀	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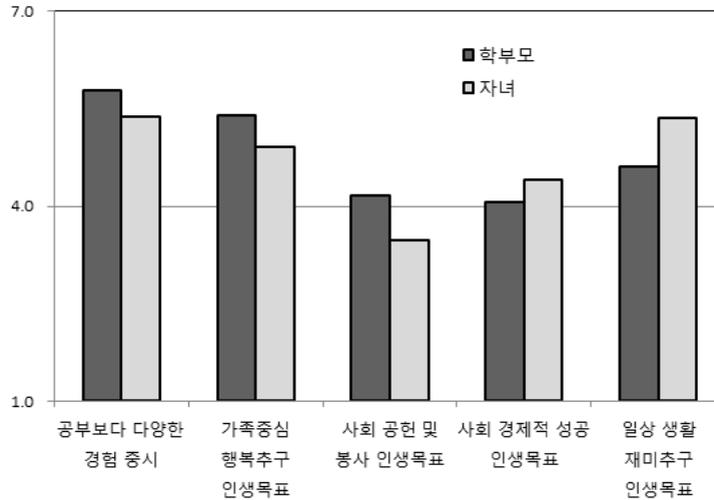
: p<.05, \*\*: p<.01, \*\*\*: p<.001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성취1	전문직업인(의사, 교수, 변호사) 선호	학부모	3.33	-1.93
		자녀	3.50	
성취2	자녀능력보다 부모기대 높음	학부모	4.49	-.12
		자녀	4.50	
성취3	높은 성공목표설정 기대	학부모	5.19	3.30**
		자녀	4.96	
성취4	모든 과목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	학부모	3.95	2.81**
		자녀	3.71	
성취5	재능보다 대입준비 학업성취 중요	학부모	3.66	-.94
		자녀	3.73	
재능1	자녀, 어머니가 생각하는 재능 일치	학부모	4.56	-3.59***
		자녀	4.79	
재능2	한 분야의 소질 개발	학부모	4.59	-.73
		자녀	4.65	
재능3	머리는 좋으나 노력이 부족	학부모	4.92	5.06***
		자녀	4.58	
재능4	자녀성공과 어머니성공 동일시	학부모	2.18	-7.01***
		자녀	2.69	
사회1	패배주의적 경쟁 회피	학부모	3.59	-2.95**
		자녀	3.82	
사회2	손해감수 원칙주의 지향	학부모	5.14	12.13***
		자녀	4.29	
사회3	왕따문제 개입 회피	학부모	3.38	-4.88***
		자녀	3.74	
사회4	노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사회	학부모	4.13	-2.11*
		자녀	4.31	
학교1	사교육 필요	학부모	5.21	8.34***
		자녀	4.61	
학교2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배려 인식	학부모	4.93	2.16*
		자녀	4.80	
학교3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 불필요	학부모	2.32	-6.06***
		자녀	2.77	

\* : p<.05, \*\* : p<.01, \*\*\* : p<.001

인생관 영역에서는 일곱 문항 중 다섯 개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III-2]는 인생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집단 간 기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의 학부모와 자녀 집단 각각의 평균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III-2] 인생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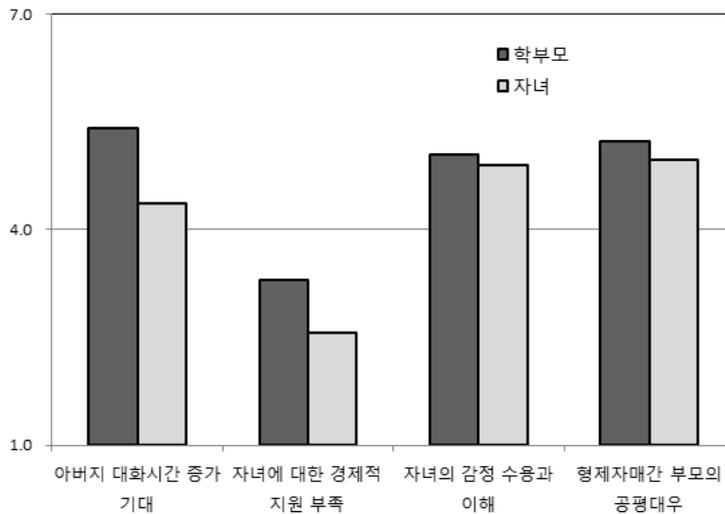
인생관 영역에서는 당장의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있어서 학부모와 자녀의 기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인생관 영역 내 인생목표로 제시된 사회공헌 및 봉사, 사회경제적 성공, 가족중심 행복 추구, 일상생활 재미 추구, 영적 종교적 만족 등 다섯 가지 문항에서 연구 대상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목표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학부모가 중요시하는 인생목표는 가족중심 행복 추구(5.39), 일상생활 재미 추구(4.61), 사회공헌 및 봉사(4.16), 사회경제적 성공(4.07), 영적 종교적 만족(2.59) 순이었다. 반면 자녀가 가장 중요시 하는 인생목표는 일상생활 재미추구(5.36)였으며 다음으로 가족 중심 행복추구(4.92), 사회 경제적 성공(4.40), 사회 공헌 및 봉사를(3.48), 영적 종교적 만족(2.47) 순이었다.

영적 종교적 만족을 인생 목표로 추구하는 정도는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머지 네 가지 인생 목표에 대해서 학부모와 자녀의 기대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가족 중심 행복추구와 사회공헌 및 봉사를 인생목표로 삼기를 기대하는 정도는 학부모 집단이 자녀 집단 보다 높았고, 사회 경제적 성공과 일상생활의 재미 추구를 인생목표로 삼기를 기대하는 정도는 자녀 집단이 학부모 집단 보다 높았다.

한편 공부보다 행복한 생활을 지향하는 정도는 학부모와 자녀 사이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두 집단 모두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부모 평균 5.39, 자 평균 5.40).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술한 인생목표 문항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인생 목표의 우선순위에서 학부모와 자녀집단 모두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족중심 행복 및 일상생활의 재미 추구를 인생목표의 상위 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일관되게 학부모와 자녀 집단 모두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양육관 영역에서는 네 문항 모두 상호기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III-3]은 인생관 영역에서 각 문항별로 학부모와 자녀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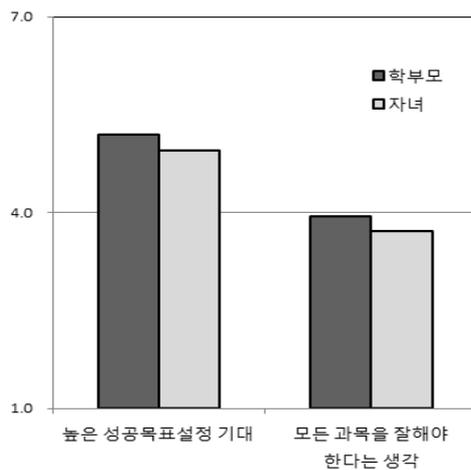
[그림 III-3] 양육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자녀가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학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원하는 아버지와 대화시간 증가에 대한 기대(4.36)에 비해, 학부모는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증가되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바람(5.41)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와 학부모의 생각에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 가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자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문항에 대해 자녀와 달리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질문인 자녀의 감정이나 기분을 이해하면서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녀보다 학부모의 응답 수준이 더 높았고, 형제자매를 공정하게 대우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즉, 자녀가 생각하는 학부모의 양육태도보다 학부모가 자신의 태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관 영역에서는 다섯 문항 가운데 자녀가 성공을 위해서 높은 성공목표를 설정하기 기대하는 정도와 자녀가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기대에 있어서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III-4]은 성취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집단 간 기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에서의 학부모와 자녀 집단 각각의 평균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성공을 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자녀(4.96)에 비해 학부모(5.19)가 높은 기대를 보여주었다.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 목표설정과 학습 면에서 학부모가 자녀에 비해 성취지향적 기대를 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성취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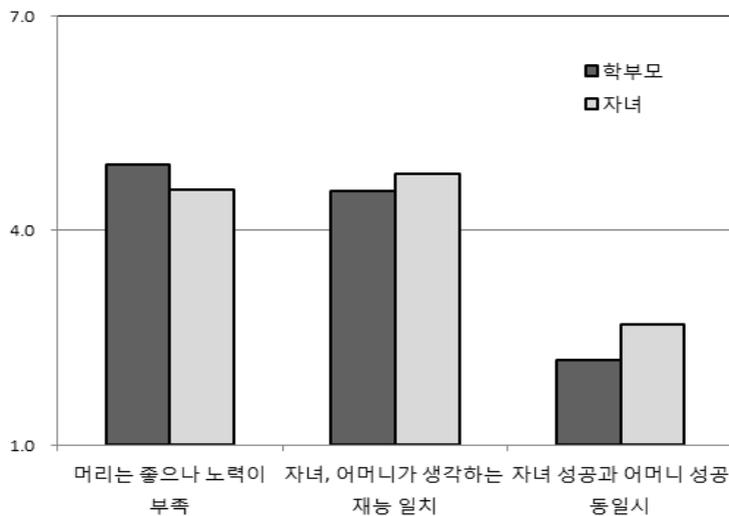
나머지 세 가지 성취관 영역 문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중 자녀의 능력보다 부모의 기대가 높은 편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2) 학부모가 자녀들을 공정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두 자녀 이상 있는 경우만 답하여 전체 연구 대상 700명의 89.7%인 628명만이 응답하였다.

학부모(4.49)와 자녀(4.50)의 평균값 모두 척도의 중심점(4)을 넘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자녀 뿐 아니라 학부모 스스로도 자녀의 능력보다 학부모의 기대가 높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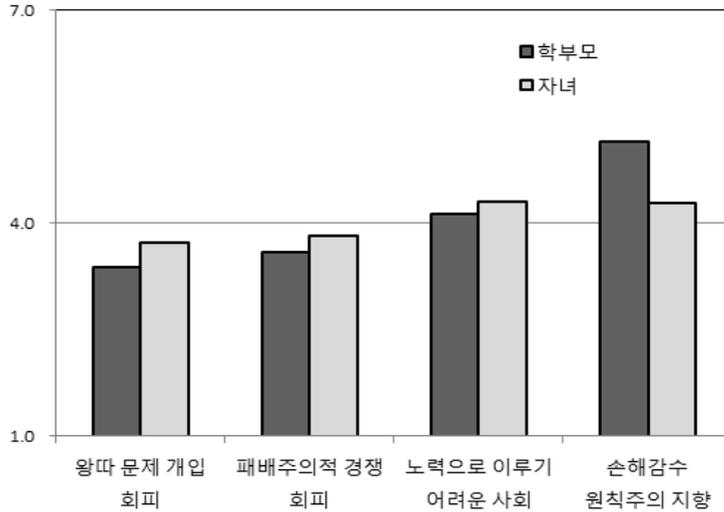
다음 [그림 III-5]는 재능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네 문항 가운데 세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좋아하는 일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학부모 자신이 생각하는 자녀의 재능과 자녀가 좋아하는 일이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보다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모 평균 4.56, 자 평균 4.79). 즉, 자녀가 인식하는 자신의 재능과 관심의 일치에 대한 확신이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공과 학부모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정도 있어서는 학부모의 응답보다 자녀의 응답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녀는 자신의 성공을 학부모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부모는 자녀가 머리는 좋으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녀에 비해 더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자녀 능력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는 자신의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노력에 대해 만족감을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자녀의 능력보다 학부모의 기대가 높게 나타난 성취관 영역의 응답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III-5] 재능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사회관 영역에서는 네 개의 문항에 대해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III-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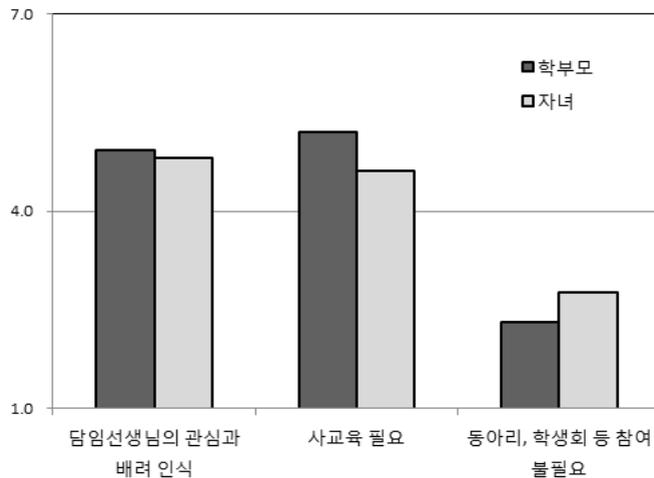


[그림 III - 6] 사회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네 문항 모두 학부모와 자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있어서 학부모가 자녀보다 더 강하게 나타내었다. 원칙지향 문항에 대한 자녀평균은 4.29로 중심점인 4점을 넘어 자녀 역시 대체로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향하려는 윤리적 바람직성을 갖고 있지만, 학부모에 비해서는 원칙지향 성향이 더 약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수에서 자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사회공헌 및 봉사를 인생목표로 삼는데 있어서도 학부모가 더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상에서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가치보다는 정의롭고 원칙에 충실하며, 공동체를 위한 삶, 사회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의 모습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보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문항에 대해 같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학부모와 자녀 모두 중심점보다 낮은 평균을 보여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바람직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부모(3.38)보다 자녀(3.74)의 응답 평균이 높아 자녀가 다소 사회적 바람직성에 위배되는 상황에 대해 허용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는 학부모가 바라는 모습은 왕따 문제에 개입을 하는 모습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때에는 왕따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더 많다’와 ‘지거나 실패로 상처받기보다 경쟁적 활동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문항에 대해 자녀평균이 학부모 평균보다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사회관에 대해 학부모가 더 긍정적이었고, 자녀들은 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의 [그림 III-7]은 학교관 영역에서 질문 문항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집단 각각의 응답 평균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학교관 영역에서도 질문한 세 문항 모두 두 집단의 상호기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부모와 자녀 모두 학교교육 이외에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학부모가 이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을 더 중시하고 공부보다 행복한 생활을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 학부모의 자녀상과는 다소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공부 이외에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자녀 모두 공부 이외 학교생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자녀보다 학교생활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비교적 작은 정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녀에 비해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이 자녀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보인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그림 III-7] 학교관 영역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

다음의 <표 III-8>은 양쪽의 대립되는 개념에 대해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9개의 대립 개념 항목 중 재능 지향 대 사회적 인정 지향에 있어서만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부모와 자녀 모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도 자녀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학부모와 자녀 간 대립 개념에 대한 상호기대 차이 검증 결과

문항	학부모		자녀		N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숙주의 대 환경주의	3.86	1.91	3.56	1.53	700	3.43**
공동체주의 대 개인주의	3.21	1.85	3.81	1.69	700	-6.57***
과정주의 대 결과주의	2.94	1.91	4.01	1.89	700	-11.36***
재능지향 대 사회적 인정지향	3.61	1.96	3.59	1.83	700	.16
사회적 기여지향 대 물질적 보상지향	4.44	1.92	4.77	1.63	700	-3.76***
인성 교육지향 대 입시 교육지향	2.69	1.87	3.19	1.79	700	-5.45***
자율적 양육관 대 통제적 양육관	2.41	1.54	2.66	1.65	700	-3.28**
애정형 양육관 대 관리형 양육관	2.09	1.54	2.31	1.43	700	-2.93**
자녀독립성 대 부모주도성	2.31	1.59	2.65	1.42	700	-4.67***

\* : p<.05, \*\* : p<.01, \*\*\* : p<.001

다른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기대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과정주의 대 결과주의로 학부모는 학습결과보다 학습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는 그보다는 학습결과가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학부모와 자녀의 기대 정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은 공동체주의 대 개인주의 문항이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중앙값 4점을 기준으로 더 작은 값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공동체주의

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자녀(3.81)에 비해 학부모(3.21)가 ‘학급의 중요 결정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더 강하게 긍정하였다. 이는 자녀에 비해 학부모가 더 공동체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상호기대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은 인성교육 지향 대 입시교육 지향 문항이다. 학부모와 자녀 모두 학교에서 입시 보다는 인성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2.69)는 ‘학교교육에서 입시보다 인성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녀(3.19)에 비해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인성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은, 앞선 결과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에 비해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양하고, 학급의 의견을 수용하는 공동체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과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학부모가 사회공헌 및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며 대입준비를 위한 학업성취보다는 재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반면 자녀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성공에 대한 인생목표가 높고 재능보다는 대입준비를 위한 학업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상호기대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자녀독립성 대 부모주도성 문항이다. 자녀의 삶은 자녀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존재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독립성을 인정하는 응답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2.65)에 비해 학부모(2.31)가 ‘자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나타내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더 중요시 하는 반면 자녀는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부모에 대한 의존성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기여지향 대 물질적 보상지향의 문항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응답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중앙점 값인 4를 기준으로 하여 학부모(4.44)와 자녀 평균값(4.77)이 중앙값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자녀 모두 자녀가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물질적 보상지향이 강하였다. 학부모보다는 자녀가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은 직업보다 수입이 높은 직업을 더 선호하였다. 자녀가 전반적으로 물질적 보상을 더 강하게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의 경우 공동체 지향의 목표를 중요시 하고, 사회 공헌과 봉사를 자녀에게 기대하면서도 보상의 직접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물질적 보상을 중요시 하는 결과를 보여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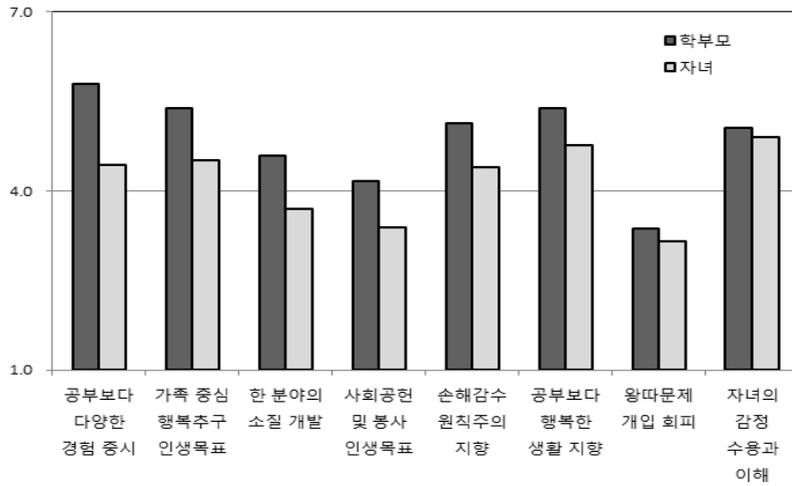
여섯 번째로 성숙주의 대 환경주의 문항에서는 학부모와 자녀 모두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의 적극적인 뒷받침보다는 자녀의 타고난 지능이나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학부모(3.86)에 비해 자녀(3.56)가 부모의 뒷받침보다 지능이나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동조하였으며 사실상 부모의 적극적 뒷받침 보다는 타고난 지능과 능력이 공부에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애정형 양육관과 관리형 양육관 그리고 자율적 양육관과 통제적 양육관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학부모와 자녀 간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모와 자녀 모두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 학업과 생활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는 관리자적 역할보다, 따뜻한 애정과 보살핌을 제공해주는 애정적 부모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2.31)에 비해 학부모(2.09)가 따뜻한 애정과 보살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일관되게 학부모와 자녀 모두, 자녀가 정해진 규칙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통제적 양육관을 지양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양육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2.66)에 비해 학부모(2.41)가 자신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율적 양육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고, 이에 비해 자녀는 학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덜 자율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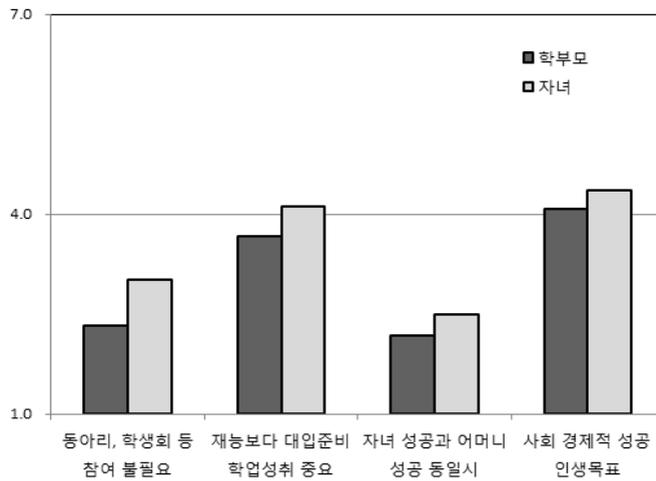
## (2)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인식 차이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상과 이에 대해 자녀가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지 즉, 학부모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상호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9>와 같고, 이 결과 중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인식 차이 중 학부모의 응답이 높은 경우는 [그림 III-9]에, 자녀의 응답이 더 높은 경우는 [그림 III-10]에 각각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 16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모의 자녀상과 자녀가 인식한 학부모의 자녀상에서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인생관 영역으로 재능과 적성을 찾기 위해 성적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아도 공부 이외의 경험을 많이 쌓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모습에 대한 질문이었다. 학부모가 5.79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중시한 반면, 자녀가 인식한 학부모의 자녀상에서는 4.44점으로 학부모의 인식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III-8]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인식 차이 중 학부모의 응답이 더 높은 경우



[그림 III-9]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인식 차이 중 자녀의 응답이 더 높은 경우

두 번째로 학부모와 자녀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 역시 인생관 영역으로 가족 중심의 행복추구 인생목표 문항이다. 학부모는 자녀가 '가족 중심 행복 추구'를 인생의 목표로 삼기를 바라는 경향이 높은 반면(5.39점), 자녀(4.51점)의 경우 학부모가 그러한 자녀관을 낮게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 번째로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항은 한 분야의 소질 개발과 관련한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 학부모(4.59점)는 한 분야 보다는

다방면의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자녀관에 대한 인식을 밝힌 반면, 자녀(3.71점)는 이보다 낮은 평균을 보여 다방면의 소질을 개발하는 것에 학부모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질 개발과 유사한 차이로 사회 공헌 및 봉사의 인생목표에 관한 인식에서도 학부모와 자녀의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학부모(4.16점)에 비해 자녀(3.40점)가 사회 공헌 및 봉사의 인생목표에 대한 인식을 약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공부보다 행복한 생활을 지향하는 인식에서도 학부모의 점수가 5.39점으로 행복한 생활을 지향하는 응답을 나타낸 반면, 자녀들은 4.76점으로 공부를 지향하는 삶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고, 왕따 문제의 개입 회피문제에 있어서도 학부모보다 자녀가 더 회피를 하는 것으로, 자녀의 감정 수용과 이해에 있어서도 자녀가 학부모에 비해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사회경제적 성공을 목표로 할 것을 기대하는 것, 동아리, 학생회 참여와 재능과 대입준비의 학업성취 중요도 비교에 관한 인식, 자녀의 성공과 학부모의 성공의 동일시에 대한 인식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문항에 대해 학부모보다 자녀가 생각하기에 학부모의 생각이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인식 차이 검증 결과(N=700)

문항		평균	표준편차	t
인생1 공부보다 행복한 생활 지향	학부모	5.39	1.64	8.46 <sup>***</sup>
	자녀	4.76	1.63	
인생2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 중시	학부모	5.79	1.25	21.11 <sup>***</sup>
	자녀	4.44	1.46	
인생3 사회 경제적 성공 인생목표	학부모	4.07	1.64	-3.91 <sup>***</sup>
	자녀	4.35	1.38	
인생5 가족 중심 행복추구 인생목표	학부모	5.39	1.24	13.48 <sup>***</sup>
	자녀	4.51	1.37	
인생7 사회 공헌 및 봉사 인생목표	학부모	4.16	1.37	11.32 <sup>***</sup>
	자녀	3.40	1.46	
양육1 자녀의 감정 수용과 이해	학부모	5.05	1.19	2.43 <sup>*</sup>
	자녀	4.90	1.45	
성취1 전문직업인(의사,교수,변호사) 선호	학부모	3.33	1.89	-1.81
	자녀	3.48	1.81	
성취4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	학부모	3.95	1.74	-.22
	자녀	3.97	1.78	
성취5 재능보다 대입준비 학업성취 중요	학부모	3.66	1.56	-6.39 <sup>***</sup>
	자녀	4.11	1.51	
재능1 자녀,어머니가 생각하는 재능 일치	학부모	4.56	1.38	.26
	자녀	4.54	1.42	
재능2 한 분야의 소질 개발	학부모	4.59	1.59	11.61 <sup>***</sup>
	자녀	3.71	1.41	
재능3 머리는 좋으나 노력이 부족	학부모	4.92	1.61	-1.93
	자녀	5.06	1.73	
재능4 자녀성공과 어머니성공 동일시	학부모	2.18	1.37	-4.42 <sup>***</sup>
	자녀	2.50	1.48	
사회2 손해감수 원칙주의 지향	학부모	5.14	1.38	11.31 <sup>***</sup>
	자녀	4.39	1.44	
사회3 왕따문제 개입 회피	학부모	3.38	1.44	3.23 <sup>**</sup>
	자녀	3.15	1.57	
학교3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 불필요	학부모	2.32	1.39	-9.49 <sup>***</sup>
	자녀	3.01	1.56	

\* : p<.05, \*\* : p<.01, \*\*\* : p<.001

### 3)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 차이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1) 분석을 위한 연구 변인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다중회귀분석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인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인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차이 정도 평균	700	1.54	.37	.48	3.27
	학부모-자녀의 상호인식차이 정도 평균	700	1.51	.48	.31	3.88
학부모 변인	아버지 교육년수	681	14.96	1.94	9	18
	어머니 교육년수	694	14.15	2.02	9	18
	대화횟수	697	5.05	3.47	0	40
	희망하는 자녀교육년수	700	17.25	2.22	12	22
	맞벌이	700	.45	.50	0	1
	월소득 400만원 미만	699	.35	.48	0	1
	월소득 800만원 미만	699	.51	.50	0	1
	부모 자녀 거주 초혼	700	.86	.35	0	1
자녀 변인	남학생	700	.50	.50	0	1
	첫째자녀	699	.55	.50	0	1
	학년	700	3.16	1.43	1	5
	국공립학교 재학	700	.65	.48	0	1
	성적수준	691	35.87	20.33	10	75
	자녀희망 교육년수	700	16.46	2.07	12	22

종속변인인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 정도와 상호인식 차이 정도의 평균은 학부모와 자녀 간 응답 차이를 제공한 후 다시 제공근을 구하여 양 혹은 음의 부호를 제거하고 평균을 낸 값으로, 차이 정도의 절대값을 의미한다. 학부모 변인 중에서 맞벌이 여부와 부모와 자녀 거주, 부부의 결혼 상태가 초혼인 경우는 해당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설정한 가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의 월 소득 수준의 경우 8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월소득 400만원 미만인 집단과 4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인 집단을 각각 1로 나타낸 두 개의 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녀 변인 중에는 남학생, 첫째 자녀, 국공립학교 재학하는 경우를 1로 나타낸 가변수와 중학교 1학년을 1, 고등학교 2학년을 5로 나타낸 학년 변수, 학급 내에서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하는 성적 수준과 자녀가 희망하는 본인의 교육년수가 포함되었다.

## (2)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에 대한 차이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부모의 배경 변인과 자녀의 배경 변인을 각각 차례로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모형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1>과 같다. 학부모 변인만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자녀 요인만 투입한 모형 2와 학부모와 자녀 요인을 함께 투입한 모형 2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자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호기대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대화 횟수가 적을수록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년수가 길수록,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대한 배경 변인의 영향력 분석

	모형 1: 학부모 요인만			모형 2: 자녀 요인만			모형 3: 학부모+자녀 요인		
	B	표준 오차	$\beta$	B	표준 오차	$\beta$	B	표준 오차	$\beta$
(상수)	1.580***	.188		1.731***	.139		1.814***	.227	
아버지 교육년수	-.003	.009	-.014				.000	.009	.000
어머니 교육년수	-.005	.009	-.024				-.004	.009	-.019
대화횟수	-.009*	.004	-.086				-.009*	.004	-.082
희망하는 자녀교육년수	.010	.007	.060				.014*	.007	.081
맞벌이	-.052	.030	-.070				-.060*	.030	-.080
월소득 400만원 미만	.038	.050	.048				.021	.051	.027
월소득 800만원 미만	.045	.046	.060				.026	.046	.035
부모 자녀 거주 초혼	-.001	.049	-.001				-.008	.049	-.007
	-.090	.078	-.051				-.085	.078	-.049
남학생				.045	.028	.060	.026	.029	.034
첫째자녀				-.067*	.029	-.089	-.080**	.029	-.107
학년				-.008	.011	-.032	-.009	.011	-.034
국공립학교 재학				-.036	.032	-.046	-.051	.033	-.065
성적수준				.001	.001	.047	.001	.001	.032
자녀희망 교육년수				-.010	.007	-.054	-.016*	.008	-.084
모형	R <sup>2</sup> =.020, Adjusted R <sup>2</sup> =.007, F=1.507			R <sup>2</sup> =.022, Adjusted R <sup>2</sup> =.013, F=2.53*			R <sup>2</sup> =.046, Adjusted R <sup>2</sup> =.024, F=2.085**		

\* : p<.05, \*\* : p<.01, \*\*\*:p<.001

(3) 학부모-자녀의 상호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부모-자녀의 상호인식 차이 정도의 평균에 대한 배경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2>와 같다. 설정한 세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학부모-자녀 간 상호인식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2** 학부모-자녀의 상호인식 차이에 대한 배경 변인의 영향력 분석

	모형1: 학부모 요인만			모형 2: 자녀 요인만			모형 3: 학부모+자녀 요인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상수)	1.309***	.240		1.639***	.178		1.535***	.292	
아버지 교육년수	-.001	.012	-.003				.000	.012	.001
어머니 교육년수	.000	.012	.000				.001	.012	.003
대화횟수	-.007	.005	-.048				-.005	.005	-.038
희망하는 자녀교육년수	.015	.008	.068				.014	.009	.067
맞벌이	-.045	.038	-.048				-.052	.039	-.055
월소득 400만원 미만	-.026	.064	-.026				-.035	.065	-.035
월소득 800만원 미만	-.052	.058	-.055				-.062	.059	-.065
부모 자녀 거주	-.084	.063	-.059				-.084	.064	-.059
초혼	.125	.100	.056				.112	.101	.050
남학생				.069	.037	.072	.048	.037	.051
첫째자녀				-.027	.037	-.028	-.037	.038	-.038
학년				-.023	.014	-.070	-.023	.014	-.068
국공립학교 재학				-.100*	.041	-.099	-.116*	.042	-.116
성적수준				.001	.001	.021	.001	.001	.023
자녀희망 교육년수				-.002	.009	-.008	-.006	.010	-.027
모형	R <sup>2</sup> =.014, Adjusted R <sup>2</sup> =.001, F=1.024			R <sup>2</sup> =.016, Adjusted R <sup>2</sup> =.008, F=1.901			R <sup>2</sup> =.032, Adjusted R <sup>2</sup> =.009, F=1.407		

\* : p<.05, \*\* : p<.01, \*\*\*:p<.001

#### 4) 학부모-자녀의 행복과 갈등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 (1) 분석을 위한 연구 변인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부모 배경 변인, 자녀 배경 변인,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의 차이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섯 가지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각각의 인식을 단계적으로 모형에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어떤 모형이 설명력이 높은지와 어떠한 변인이 설정한 모형들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사용한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량

구분	변인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인	학부모 행복	700	5.29	1.00	2.00	7.00
	학부모의 갈등	700	3.32	1.39	1.00	7.00
	자녀의 행복	700	4.82	1.24	1.00	7.00
	자녀의 갈등	700	3.36	1.32	1.00	7.00
학부모의 자녀상 변인	사회관	700	4.51	.87	2.00	7.00
	인생관	700	5.59	1.17	1.00	7.00
	성취관	700	4.12	1.07	1.00	7.00
	양육관	694	4.12	.89	1.00	6.67
	재능관	700	4.51	.71	2.50	7.00
	학교관	700	4.47	.80	1.00	7.00
자녀의 자녀상 변인	사회관	700	4.11	.89	1.00	7.00
	인생관	700	5.39	1.16	1.00	7.00
	성취관	700	4.08	.95	1.40	7.00
	양육관	693	4.66	.80	2.00	7.00
	재능관	700	4.54	.70	2.25	6.75
	학교관	700	4.48	.92	1.00	7.00

종속 변인인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갈등은 해당 설문 문항의 평균값으로 그 값이 클수록 행복감 혹은 만족감이 높음을, 갈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입 변인으로 학부모의 자녀상과 자녀의 자녀상 변인을 설정하였는데, 각 변인의 값은 연구 설문의 각 영역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같은 영역 내에서 값의 의미가 일관성을 갖도록 코딩을 수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값이 클수록 사회관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인생관은 공부보다 행복한 인생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하며, 성취관은 높은 성취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관의 경우 애정적인 가족관계 및 지원을 의미하고, 재능관은 자녀의 소질과 노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학교관은 학교 학습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부모의 행복에 대해 어떠한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4>와 같다. 가장 먼저 학부모 배경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 1의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부모 배경 변인과 자녀 배경 변인을 함께 투입한 모형 2의 결과에서는 가구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기준집단인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비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변인 중 스스로 희망하는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학부모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의 영향력은 모형 3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모형 3에 추가로 투입된 상호기대 차이 정도와 상호인식 차이 정도는 학부모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과 비교하여 모형 2와 3은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되지 않아 변화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여섯 가지 자녀상 영역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덧붙여 투입한 모형 4의 경우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고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네 가지 모형 중 학부모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부모의 인생관, 양육관, 재능관, 학교관의 응답값이 증가할수록, 즉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이 증가할수록 학부모의 행복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부모의 사회관과 성취관은 학부모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학부모의 행복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상수)	4.67***	.50		4.46***	.61		4.22***	.64		1.42*	.69	
아버지 교육년수	-.01	.03	-.02	-.02	.03	-.04	-.02	.03	-.04	-.03	.02	-.05
어머니 교육년수	.03	.02	.06	.03	.03	.06	.03	.03	.06	.02	.02	.04
대화횟수	.02	.01	.05	.01	.01	.05	.02	.01	.05	.01	.01	.03
희망하는 자녀교육년수	.02	.02	.04	.00	.02	.01	.00	.02	.00	-.01	.02	-.02
맞벌이 월소득 400만원 미만	-.02	.08	-.01	.00	.08	.00	.01	.08	.00	-.01	.08	.00
800만원 미만	-.13	.13	-.06	-.07	.14	-.03	-.07	.14	-.03	.08	.13	.04
부모 자녀 거주 초혼	.21	.12	.11	.25*	.12	.13	.25*	.12	.12	.28*	.12	.14
남학생				-.06	.08	-.03	-.07	.08	-.03	.01	.07	.00
첫째 자녀				-.13	.08	-.06	-.12	.08	-.06	-.11	.08	-.06
학년				-.02	.03	-.02	-.02	.03	-.02	-.01	.03	-.02
국공립 학교 재학				-.01	.09	.00	.00	.09	.00	-.05	.08	-.02
성적 수준				.00	.00	-.05	.00	.00	-.05	.00	.00	-.05
자녀 희망 교육년수				.05*	.02	.10	.05*	.02	.10	.04	.02	.07
상호기대 차이							.14	.13	.05	.14	.12	.05
상호인식 차이							-.01	.10	.00	-.03	.10	-.01
사회관										.03	.04	.03
인생관										.09**	.03	.11
성취관										.08	.04	.09
양육관										.26***	.05	.23
재능관										.17**	.06	.12
학교관										.16**	.05	.13
모형	R <sup>2</sup> =.037 Adjusted R <sup>2</sup> =.024 F=2.790**			R <sup>2</sup> =.054 Adjusted R <sup>2</sup> =.032 F=2.43**			R <sup>2</sup> =.056 Adjusted R <sup>2</sup> =.031 F=2.240**			R <sup>2</sup> =.162 Adjusted R <sup>2</sup> =.132 F=5.364***		
변화량	ΔR <sup>2</sup> =.037 ΔF=2.790**			ΔR <sup>2</sup> =.016 ΔF=1.863			ΔR <sup>2</sup> =.002 ΔF=.806			ΔR <sup>2</sup> =.106 ΔF=13.477***		

\* : p<.05, \*\* : p<.01, \*\*\*:p<.001

자녀의 행복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III-15>에 제시하였다. 설정한 네 가지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으며, 이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형은 학부모의 행복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형 4였다. 네 모형에서 자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학부모 배경 변인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일주일 동안 15분 이상 대화하는 횟수로, 대화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녀의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소득 4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준집단 보다 더 높은 자녀 행복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배경 변인 중에서는 학년과 성적 수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줄어들고 학급 내 상위 퍼센트로 나타낸 성적 수준의 값이 커질수록, 즉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일수록 자녀의 행복이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형 4에서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상호기대 차이의 정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감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음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가지 자녀상 영역에 대해 자녀가 인식하는 정도는 자녀의 행복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취관의 경우는 그 값이 커지면 더 높은 혹은 더 나은 성취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의 행복 인식 수준이 더 높아지는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자녀의 행복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beta$	B	표준 오차	$\beta$	B	표준 오차	$\beta$	B	표준 오차	$\beta$
(상수)	3.53***	.62		3.93***	.74		4.96***	.77		-.01	.85	
아버지 교육년수	.02	.03	.04	.00	.03	.01	.00	.03	.01	.01	.03	.01
어머니 교육년수	.02	.03	.04	.02	.03	.03	.02	.03	.03	.00	.03	-.01
대화횟수	.04**	.01	.12	.04**	.01	.11	.03*	.01	.10	.03*	.01	.08
희망하는 자녀교육년수	.00	.02	.00	-.02	.02	-.03	-.01	.02	-.02	-.02	.02	-.03
맞벌이 월소득 400만원 미만	-.04	.10	-.02	.03	.10	.01	.00	.10	.00	-.03	.09	-.01
800만원 미만	.11	.17	.04	.25	.17	.10	.25	.16	.10	.24	.15	.09
부모 자녀 거주 초혼	.23	.15	.09	.30**	.15	.12	.30*	.15	.12	.23	.14	.09
남학생												
첫째 자녀				.15	.10	.06	.17	.09	.07	.15	.09	.06
학년				-.01	.10	.00	-.05	.09	-.02	-.07	.09	-.03
국공립 학교 재학				-.11**	.04	-.13	-.12**	.04	-.14	-.11**	.03	-.12
성적 수준				.05	.11	.02	.00	.11	.00	.02	.10	.01
자녀희망 교육년수				-.01**	.00	-.14	-.01**	.00	-.13	-.01**	.00	-.11
상호기대 차이				.06*	.03	.09	.05	.03	.08	.02	.02	.04
상호인식 차이												
사회관							-.39*	.15	-.12	-.33*	.14	-.10
인생관							-.21	.12	-.08	-.21	.11	-.08
성취관										.18***	.05	.13
양육관										.14***	.04	.13
재능관										.18***	.05	.13
학교관										.35***	.06	.22
										.21***	.06	.12
										.21***	.05	.15
모형	R <sup>2</sup> =.028 Adjusted R <sup>2</sup> =.014 F=2.075*			R <sup>2</sup> =.080 Adjusted R <sup>2</sup> =.059 F=3.752***			R <sup>2</sup> =.110 Adjusted R <sup>2</sup> =.087 F=4.677***			R <sup>2</sup> =.254 Adjusted R <sup>2</sup> =.227 F=9.411***		
변화량	$\Delta R^2$ =.028 $\Delta F$ =2.075*			$\Delta R^2$ =.052 $\Delta F$ =6.121***			$\Delta R^2$ =.030 $\Delta F$ =10.759***			$\Delta R^2$ =.144 $\Delta F$ =20.420***		

\* : p<.05, \*\* : p<.01, \*\*\* : p<.001

(3) 학부모와 자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의 <표 III-16>은 학부모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네 가지 모형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이었으며, 모든 변인이 포함된 모형 4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배경 변인 중에서는 아버지의 교육년수와 월소득 4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의 집단을 나타내는 가변인이 학부모의 갈등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기준 집단 즉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의 집단에 해당되는 경우가 학부모의 갈등 정도가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배경 변인을 살펴보면, 남학생일수록, 출생 순서가 첫째일수록, 성적 수준이 낮고 자녀가 희망하는 교육년수가 작을수록 학부모와의 갈등이 높은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나 상호인식 차이는 학부모의 갈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인생관, 성취관, 양육관, 재능관의 경우는 학부모의 갈등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성취관에 대한 응답값이 커질수록, 즉 더 높은 성취를 지향할수록 학부모의 갈등이 커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인생관, 양육관, 재능관에 대한 응답 값이 커질수록 학부모의 갈등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표 III-17>은 자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이다. 학부모의 배경 변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학부모의 갈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배경 변인 중에서는 남학생인 경우가 갈등 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스스로 희망하는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학부모와 자녀간 상호기대나 상화인식의 차이는 자녀의 갈등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고, 자녀상에 대한 여섯 가지 영역 중 네 가지에 대한 인식 정도가 자녀의 갈등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영향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 양육관, 재능관에 대한 자녀의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갈등은 낮아지지만, 반면에 성취관에 대해 높은 인식이나 지향성을 보일수록 자녀의 갈등은 높아지는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자녀의 갈등에 대한 분석 또한 학부모 배경 변인, 학생 배경 변인, 기대 및 인식 차이 변인과 자녀상 변인이 모두 투입된 네 번째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학부모의 갈등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상수)	2.80***	.70		3.31***	.82		3.10***	.86		5.84***	.91	
아버지 교육년수	.09*	.04	.12	.10**	.03	.14	.10**	.03	.14	.09**	.03	.13
어머니 교육년수	.02	.03	.02	.02	.03	.03	.02	.03	.03	.05	.03	.08
대화횟수	-.02	.02	-.06	-.02	.02	-.05	-.02	.02	-.04	-.01	.01	-.02
희망하는 자녀교육년수	-.03	.02	-.04	-.01	.02	-.01	-.01	.02	-.01	-.02	.02	-.03
맞벌이 월소득	-.09	.11	-.03	-.11	.11	-.04	-.10	.11	-.04	-.08	.10	-.03
400만원 미만 월소득	-.13	.19	-.04	-.25	.18	-.09	-.24	.18	-.08	-.41*	.17	-.14
800만원 미만 부모 거주 초혼	-.30	.17	-.11	-.36*	.17	-.13	-.35*	.17	-.12	-.35*	.15	-.13
남학생				.50***	.11	.18	.49***	.11	.18	.37***	.10	.13
첫째자녀				.28**	.11	.10	.29**	.11	.10	.21*	.10	.07
학년				-.06	.04	-.06	-.05	.04	-.06	-.05	.04	-.05
국공립 학교 재학				-.06	.12	-.02	-.04	.12	-.01	.01	.11	.00
성적 수준				.01*	.00	.09	.01*	.00	.08	.01**	.00	.12
자녀희망 교육년수				-.09**	.03	-.13	-.09**	.03	-.13	-.07*	.03	-.10
상호기대 차이							-.07	.17	-.02	.02	.16	.00
상호인식 차이							.22	.14	.07	.24	.13	.08
사회관										-.02	.06	-.02
인생관										-.14**	.05	-.12
성취관										.19***	.05	.15
양육관										-.21**	.06	-.13
재능관										-.45***	.07	-.23
학교관										-.09	.06	-.05
모형	R <sup>2</sup> =.030 Adjusted R <sup>2</sup> =.016 F=2.213*			R <sup>2</sup> =.096 Adjusted R <sup>2</sup> =.075 F=4.569***			R <sup>2</sup> =.100 Adjusted R <sup>2</sup> =.077 F=4.212***			R <sup>2</sup> =.248 Adjusted R <sup>2</sup> =.221 F=9.141***		
변화량	ΔR <sup>2</sup> =.030 ΔF=2.213*			ΔR <sup>2</sup> =.066 ΔF=7.893***			ΔR <sup>2</sup> =.004 ΔF=1.484			ΔR <sup>2</sup> =.148 ΔF=20.887***		

\* : p<.05, \*\* : p<.01, \*\*\* : p<.001

표 III-17 자녀의 갈등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B	표준 오차	β
(상수)	2.25**	.67		3.24***	.81		2.74**	.84		6.04***	.95	
아버지 교육년수	.08*	.03	.12	.09**	.03	.13	.09**	.03	.13	.09**	.03	.13
어머니 교육년수	-.01	.03	-.02	-.01	.03	-.02	-.01	.03	-.02	.00	.03	.00
대화횟수	-.02	.02	-.05	-.02	.02	-.04	-.01	.02	-.04	-.01	.01	-.03
희망하는 자녀교육년수	.03	.02	.04	.04	.02	.07	.04	.02	.06	.03	.02	.05
맞벌이 월소득 400만원 미만	-.12	.11	-.04	-.12	.11	-.05	-.11	.11	-.04	-.07	.10	-.03
월소득 800만원 미만	-.19	.18	-.07	-.24	.18	-.09	-.23	.18	-.08	-.23	.17	-.08
부모 자녀 거주 초혼	-.12	.16	-.05	-.16	.16	-.06	-.15	.16	-.06	-.13	.15	-.05
남학생				.25*	.10	.09	.23*	.10	.09	.20*	.10	.08
첫째자녀				.15	.10	.06	.17	.10	.06	.19	.10	.07
학년				-.08	.04	-.08	-.07	.04	-.08	-.07	.04	-.07
국공립 학교 재학 성적 수준				-.10	.12	-.04	-.07	.12	-.03	-.03	.11	-.01
자녀희망 교육년수				.00	.00	.02	.00	.00	.01	.00	.00	.03
상호기대 차이 상호인식 차이				-.08**	.03	-.12	-.07**	.03	-.11	-.08**	.03	-.12
사회관							.10	.17	.03	.19	.16	.05
인생관							.20	.13	.07	.09	.12	.03
성취관										-.12*	.06	-.08
양육관										.01	.04	.00
재능관										.19**	.06	.13
학교관										-.40***	.06	-.24
										-.32***	.07	-.17
										-.08	.06	-.06
모형	R <sup>2</sup> =.022 Adjusted R <sup>2</sup> =.008 F=1.627			R <sup>2</sup> =.052 Adjusted R <sup>2</sup> =.030 F=2.349**			R <sup>2</sup> =.060 Adjusted R <sup>2</sup> =.035 F=2.409**			R <sup>2</sup> =.195 Adjusted R <sup>2</sup> =.166 F=6.685***		
변화량	ΔR <sup>2</sup> =.022 ΔF=1.627			ΔR <sup>2</sup> =.030 ΔF=3.379**			ΔR <sup>2</sup> =.008 ΔF=2.764			ΔR <sup>2</sup> =.135 ΔF=17.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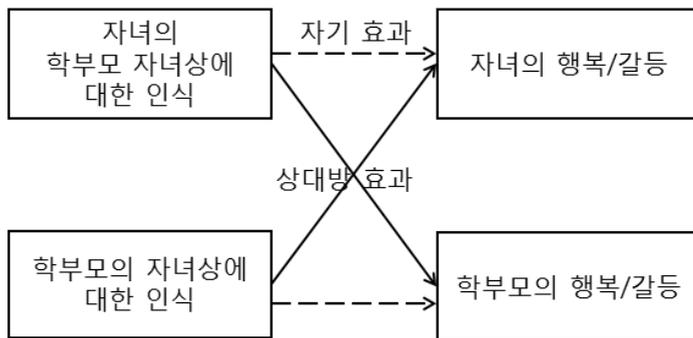
\* : p<.05, \*\* : p<.01, \*\*\* : p<.001

5) 학부모-자녀의 자녀상 인식이 자신과 상대방의 행복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분석 모형

부모와 자녀와 같이 장시간 동안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자료를 짝(Dyadic) 자료라 하는데, 부모-자녀 자료, 부부 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Kenny(1996)는 이러한 짝 자료를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자료로 분석하는 경우 가설 검정에 오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별한 분석 방법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Kenny(1996)가 제안한 분석방법은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로서, 짝 자료를 분석할 때 한 개인의 특징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인 상대방 효과와 자신에게 미치는 자기 효과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학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쌍으로 수집하여 APIM을 적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갖추었으며,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대해 학부모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인식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연구 문제이므로 다음의 [그림 III-10]과 같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I-10] 학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상대방 효과와 자기 효과<sup>3)</sup>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자녀 내 수준을 1수준으로 학부모-자녀 간 수준을 2수준으로 설정하여 이러한 자료의 다층 구조를 다룰 수 있는 위계적 선형 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적용, 분석하였다.

3) 천영희, 고재홍(2005). 모-청소년 자녀의 자존감, 성격특성 및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과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APIM 모형의 적용. 청소년상담연구, 13, 47-60 중 [그림 1]. 모-자녀 관계에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p.49)를 기초로 본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다음의 <표 III-18>은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대한 자녀상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정한 HLM 수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I-18**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대한 자녀상 인식 관계 분석을 위한 HLM모형

모형	수준	수식
기초 모형	학부모-자녀 내	$Y_{ij} = \beta_{0j} + r_{ij}, \quad r_{ij} \sim N(0, \sigma^2)$
	학부모-자녀 간	$\beta_{0j} = \gamma_{00} + U_{0j}, \quad U_{0j} \sim N(0, \tau_{00}^2)$
무선 계수 모형	학부모-자녀 내	$Y_{ij} = \beta_{0j} + \beta_{1j}(\text{학부모 자녀상의 자기효과}) + \beta_{2j}(\text{학부모자녀상의 상대방효과})_{ij} + \gamma_{ij}$ $\gamma_{ij} \sim N(0, \sigma^2)$
	학부모-자녀 간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대화횟수}) + \gamma_{02}(\text{소득수준}) + U_{0j}$ $U_{0j} \sim N(0, \tau_{00}^2)$ $\beta_{1j} = \gamma_{10}$ $\beta_{2j} = \gamma_{20}$

가장 먼저 학부모와 자녀가 학부모 자녀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초모형으로 무선효과 일원분산분석 모형(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s Model)을 설정하여, 전체 분산에서 학부모-자녀 간 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집단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ICC)을 제시하였다.

$$ICC = \frac{\tau_{00}^2}{\sigma^2 + \tau_{00}^2}$$

다음으로 학부모-자녀 간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를 통제된 후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자녀상 인식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무선계수 모형 (Random-Coefficients Regression Model)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부모-자녀 내 수준 변수는 학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로서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학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자녀상이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자녀상의 자기효과와 학부모의 인식이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인식이 학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자녀상의 상대방효과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학부모에 대한 인식을 자녀에게 묻는 총 16개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값이 커질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보다 자녀의 행복과 경험을 지원하는 방향의 인식을 의미한다. 학부모-자녀 간 수준 변수는 한 가정의 학부모와 학생이 같은 값을 갖는 변수를 의미하므로,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 중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일주일 동안 15분 이상 대화하는 횟수를 선택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의 경우 1,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경우는 2,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은 3, 600만원 이상 800만원 이상은 4, 800만원 이상은 5로 코딩되어 있다. 일주일 간 자녀와 15분 이상 대화하는 횟수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연속형 변수의 형태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이다.

행복과 갈등의 두 가지 종속 변수 각각에 대해 모형을 설정하여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이 이들 변수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였다.

## (2) 행복에 대한 HLM 분석 결과

APIM 방법을 적용하여, 인구사회학적 배경 중 학부모와 자녀가 일주일 동안 15분 이상 대화하는 횟수, 가구 월평균 소득을 통제한 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자녀상의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9>와 같다.

기초 모형의 학부모-자녀 내 수준과 학부모-자녀 간 수준의 분산을 이용하여 집단내 상관계수 (ICC)를 구한 결과 .144로 나타나, 행복은 학부모와 자녀 간 특성보다는 학부모와 자녀 내 특성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LM을 이용하여 APIM모형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와 자녀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자녀상이 각각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인 자기 효과와 학부모와 자녀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자녀상이 상대방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인 상대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의 자녀상의 응답 값이 증가하여 자녀의 행복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하면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통제를 위해 모형에 포함된 대화 횟수와 소득 수준 모두 유의미하였는데, 학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횟수가 증가할수록,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학부모-자녀의 학부모 자녀상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HLM분석결과**

구분		기초모형		APIM 모형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부모-자녀 내 수준					
절편		5.058***	.033	5.058***	.032
학부모의 자녀상	자기효과			.309***	.071
	상대방 효과			.154*	.068
학부모-자녀 간 수준					
대화횟수( $\gamma_{01}$ )				.028**	.009
소득수준( $\gamma_{02}$ )				.090**	.028
무선효과					
학부모-자녀 간 수준( $U_0$ )		.191		.145	
학부모-자녀 내 수준( $R$ )		1.132		1.132	
총분산		1.323		1.277	
ICC		.144		.114	

\* :  $p < .05$ , \*\* :  $p < .01$ , \*\*\* :  $p < .001$

### (3) 갈등에 대한 HLM분석 결과

HLM분석을 수행하여 학부모 자녀상의 인식이 갈등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20>과 같다.

기초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ICC가 .508로 나타나 학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분산의 50.8%를 학부모와 자녀 간 수준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는 학부모와 자녀 내의 특성과 학부모와 자녀 간 특성이 비슷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IM 모형 분석 결과 학부모-자녀상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기 효과의 경우 음의 계수가 나타나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이 학부모나 자녀 모두에게서 증가하면 갈등이 줄어드는 관계가 나타났고, 상대방 효과의 경우 양의 계수가 나타나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 서로 다른 상대방에게는 갈등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에서 대화 횟수와 소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학부모-자녀의 학부모 자녀상 인식이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HLM분석결과

구분		기초모형		APIM 모형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부모-자녀 내 수준					
절편		3.330***	.045	3.330***	.044
학부모의 자녀상	자기효과			-.230*	.097
	상대방 효과			.454***	.093
학부모-자녀 간 수준					
대화횟수( $\gamma_{01}$ )				-.022	.013
소득수준( $\gamma_{02}$ )				.051	.039
무선효과					
학부모-자녀 간 수준( $U_0$ )			.937		.882
학부모-자녀 내 수준( $R$ )			.909		.909
총분산			1.846		1.791
ICC			.508		.493

\* :  $p < .05$ , \*\* :  $p < .01$ , \*\*\* :  $p < .001$

### 6)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 (1) 분석 방법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기대 특성에 따라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와 상호인식, 행복 및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여 학부모를 유형화한 후, 분류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과 사후검정으로 Scheffe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응답 사례를 분류하여 유형화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군집분석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유형의 수를 결정하는데 통계적 검증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다(홍세희, 2010).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으로 대상을 분류할 때 적절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는데 Collins와 Lanza (2010)와 Nylund 등(2007)이 제안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였다. Log-likelihoo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 Entropy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는 특징이 있고,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

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 잠재집단 수가 하나 적은 모형보다 현재 설정한 모형이 더 좋은 것임을 의미하는 특징을 지닌 지표이다. 분석을 통해 적절한 잠재집단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 집단에서부터 하나씩 증가시킨 모형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얻어진 지표값을 비교하여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형태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잠재계층분석에는 양극단의 대립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변별척도 9문항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을 이용하였다.

(2)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특성에 따른 집단 분류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특성에 따른 분류하기 위해 잠재 집단의 수를 두 집단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증가시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21>과 같다.

분석 결과, 잠재집단 수가 3개인 모형의 BIC 절대값과 Entropy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MR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5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지표의 값과 Lanza 등(2007)의 제안대로 모형의 간명성,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잠재 집단의 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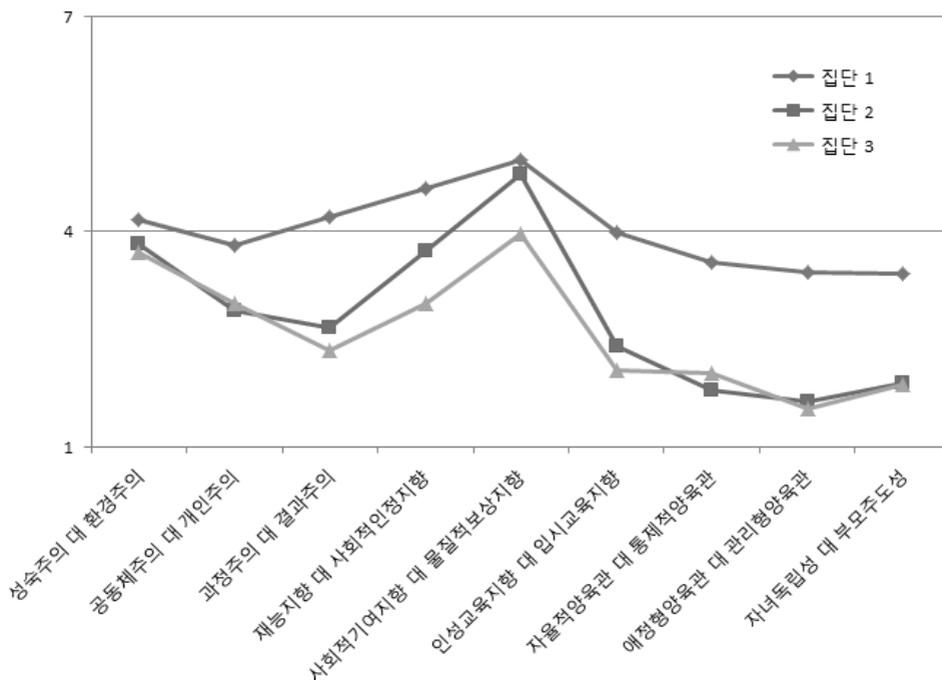
표 III-21 잠재계층분석 결과

	잠재집단 수 2개 모형	잠재집단 수 3개 모형	잠재집단 수 4개 모형	잠재집단 수 5개 모형
Log-likelihood	-10880.443	-10206.052	-9923.920	-9779.684
AIC	20630.103	20175.840	20021.369	19857.139
BIC	21126.171	20922.217	21018.056	21104.135
ABIC	20780.074	20401.484	20322.687	20234.130
Entropy	.872	.850	.862	.861
LMR	p<.001	p<.01	p>.05	p>.05

총 700명의 학부모를 잠재계층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3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분류된 각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에 사용한 의미변별척도 9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II-22>에 제시하고, [그림 III-11]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표 III-22 잠재계층분석으로 분류한 학부모 집단의 특징

	집단1 (N=199)		집단2 (N=150)		집단3 (N=351)	
	Mean	S.D.	Mean	S.D.	Mean	S.D.
성숙주의 대 환경주의	4.17	1.54	3.83	2.73	3.70	1.63
공동체주의 대 개인주의	3.81	1.41	2.89	2.58	3.00	1.61
과정주의 대 결과주의	4.20	1.43	2.65	2.54	2.34	1.43
재능지향 대 사회적 인정지향	4.60	1.36	3.72	2.73	2.99	1.58
사회적 기여지향 대 물질적 보상지향	4.99	1.25	4.79	2.73	3.97	1.69
인성 교육지향 대 입시 교육지향	3.99	1.57	2.39	2.37	2.07	1.33
자율적 양육관 대 통제적 양육관	3.56	1.46	1.79	1.66	2.03	1.15
애정형 양육관 대 관리형 양육관	3.42	1.62	1.63	1.62	1.52	.83
자녀독립성 대 부모주도성	3.40	1.53	1.89	1.88	1.87	1.11



[그림 III-11] 잠재계층분석으로 분류한 학부모 집단의 특징

학부모 집단 1은 다른 집단에 비해 환경주의, 개인주의, 결과주의, 직업의 사회적 인정, 직업의 물질적 보상, 입시교육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고 통제적 양육관, 관리형 양육관을 갖고 있으며 부모주도적인 자녀 양육 특성이 높은 집단으로 199명이 이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성취지향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부모 집단 3은 성숙주의, 공동체주의, 과정주의, 직업과 재능 일치, 직업의 사회적 기여,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고 자율적 양육관, 애정형 양육관을 갖고 있으며, 자녀독립성을 강조하는 집단으로 351명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집단 3을 ‘과정지향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학부모 집단 2는 두 집단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절충형’ 집단이다. 이 집단은 전반적으로 과정지향형 집단인 학부모 집단 3과 유사한 패턴과 성향을 보이면서, 직업의 물질적 보상 지향 면에서 집단 1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 집단이며, 직업과 재능일치 지향과 사회적 인정지향 지향의 문항에 대해서는 학부모 집단 1(직업의 사회적 인정 중시)과 집단 3(직업과 재능의 일치 중시)의 중간 수준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150명이 이에 해당한다. 절충형 집단으로 명명한 학부모 집단 2는 성숙주의, 공동체주의, 과정주의,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고 자율적 양육관, 애정형 양육관을 갖고 있으며, 자녀독립성을 강조하는 집단이며, 직업의 재능 지향과 사회적 인정 지향에 대해 절충적 입장을 보이며, 직업의 물질적 보상을 강하게 지향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분류한 학부모 집단에 따라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와 상호인식 전체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방식의 사후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23>에 제시하였다.

**표 III-23** 학부모 집단에 따른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와 상호인식 차이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상호기대차 이 평균	(a) 성취지향형 집단	1.44	.35	11.170***	a<c<b
	(b) 절충형 집단	1.62	.39		
	(c) 과정지향형 집단	1.56	.37		
상호인식차 이 평균	(a) 성취지향형 집단	1.38	.41	16.797***	a<c<b
	(b) 절충형 집단	1.67	.50		
	(c) 과정지향형 집단	1.51	.49		

\* : p<.05, \*\* : p<.01, \*\*\* : p<.001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기대가 자녀 직업의 사회적 인정과 물질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율, 인성, 독립적 양육관을 함께 강조하는 형태인 절충형 집단이 학부모와 자녀의 바람직한 자녀상에 대한 상호기대 차이와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인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과정지향형 학부모 집단, 성취지향형 학부모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형태에 있어 대립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의 경우 학부모와 자녀 간 기대나 인식의 차이가 더 높으며, 일관성 있는 자녀상 기대를 갖고 있는 집단의 경우는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나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학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자녀상 기대 형태에 따라 전체 34개 문항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에 차이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방식의 사후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의 <표 III-24>는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제시한 것이다.

절충형 집단은 성취지향형 집단에 비해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학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인생목표를 사회경제적 성공을 중시여기는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다방면 보다는 한 분야의 소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바라는 측면에서도 성취지향형 집단에 비해 학부모와 자녀의 기대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동아리, 학생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성공을 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학교 공부 외에도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기대 차이에 있어서는 성취지향형 집단과 과정지향형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왕따문제에 대한 개입 회피와 자녀성공과 학부모 성공을 동일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정지향형 집단의 기대 차이가 성취지향형 집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학부모 집단에 따른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의 차이

내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교육 필요	(a) 성취지향형 집단	1.43	1.24	4.01*	a,c<b
	(b) 절충형 집단	1.75	1.58		
	(c) 과정지향형 집단	1.41	1.20		
손해감수 원칙주의 지향	(a) 성취지향형 집단	1.36	1.18	4.93**	a<b,c
	(b) 절충형 집단	1.75	1.38		
	(c) 과정지향형 집단	1.65	1.28		
왕따문제 개입 회피	(a) 성취지향형 집단	1.28	1.15	3.29*	a<c
	(b) 절충형 집단	1.47	1.34		
	(c) 과정지향형 집단	1.57	1.32		
사회경제적 성공 인생목표	(a) 성취지향형 집단	1.41	1.23	4.82**	a<b
	(b) 절충형 집단	1.85	1.50		
	(c) 과정지향형 집단	1.68	1.33		
한 분야의 소질 개발	(a) 성취지향형 집단	1.45	1.21	4.40*	a,c<b
	(b) 절충형 집단	1.82	1.53		
	(c) 과정지향형 집단	1.48	1.22		
동아리, 학생회 등 참여 불필요	(a) 성취지향형 집단	1.25	1.20	4.93**	a<b
	(b) 절충형 집단	1.69	1.48		
	(c) 과정지향형 집단	1.52	1.37		
높은 성공목표 설정 기대	(a) 성취지향형 집단	1.21	1.11	4.77**	a<b
	(b) 절충형 집단	1.59	1.30		
	(c) 과정지향형 집단	1.46	1.22		
자녀성공과 어머니성공 동일시	(a) 성취지향형 집단	2.95	1.74	4.81**	a<c
	(b) 절충형 집단	3.24	1.91		
	(c) 과정지향형 집단	3.44	1.68		

\* : p<.05, \*\* : p<.01, \*\*\* : p<.001

더불어 학부모 집단에 따라 총 16개 문항 중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인식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내용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25>와 같다. 절충형 집단의 경우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 사회공헌 및 봉사를 인생 목표로 하는 것, 사회 경제적 성공을 인생목표로 하는 것, 가족중심 행복추구를 인생목표로 하는 것, 자녀 성공과 학부모 성공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생각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학부모가 스스로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과의 차이가 성취지향형 집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학부모가 생각하는 재능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성취지향형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인식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학부모 집단에 따른 학부모와 자녀 간 상호인식의 차이

내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	(a) 성취지향형 집단	1.62	1.34	4.51*	a,c<b
	(b) 절충형 집단	2.01	1.53		
	(c) 과정지향형 집단	1.64	1.32		
사회 공헌 및 봉사 인생목표	(a) 성취지향형 집단	1.22	1.17	6.21**	a<b
	(b) 절충형 집단	1.71	1.47		
	(c) 과정지향형 집단	1.44	1.24		
사회 경제적 성공 인생목표	(a) 성취지향형 집단	1.30	1.08	5.18*	a<b
	(b) 절충형 집단	1.72	1.42		
	(c) 과정지향형 집단	1.44	1.20		
가족중심 행복추구 인생목표	(a) 성취지향형 집단	1.23	1.09	7.04**	a,c<b
	(b) 절충형 집단	1.71	1.32		
	(c) 과정지향형 집단	1.54	1.27		
자녀 성공과 학부모 성공 동일시	(a) 성취지향형 집단	1.36	1.22	5.76**	a,c<b
	(b) 절충형 집단	1.72	1.47		
	(c) 과정지향형 집단	1.29	1.31		
자녀, 학부모가 생각하는 재능 일치	(a) 성취지향형 집단	1.09	0.98	5.40**	a<b,c
	(b) 절충형 집단	1.46	1.27		
	(c) 과정지향형 집단	1.36	1.18		

\* : p<.05, \*\* : p<.01, \*\*\* : p<.001

학부모 집단에 따라서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 및 갈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III-26>과 같다. 사회경제적 성공과 인정을 강조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성취지향형 집단의 경우 절충형 집단이나 과정지향형 집단에 비해 학부모의 행복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의 갈등, 자녀의 갈등 수준은 성취지향형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행복에서는 학부모 집단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26** 학부모 집단에 따른 학부모 및 자녀의 행복, 갈등에서의 차이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학부모 행복	(a) 성취지향형 집단	4.98	.94	13.64***	a<b,c
	(b) 절충형 집단	5.42	1.04		
	(c) 과정지향형 집단	5.41	.98		
학부모 갈등	(a) 성취지향형 집단	3.66	1.34	8.97***	b,c<a
	(b) 절충형 집단	3.13	1.44		
	(c) 과정지향형 집단	3.20	1.37		
자녀 행복	(a) 성취지향형 집단	4.69	1.19	1.55	
	(b) 절충형 집단	4.89	1.29		
	(c) 과정지향형 집단	4.86	1.25		
자녀 갈등	(a) 성취지향형 집단	3.64	1.31	6.32**	b,c<a
	(b) 절충형 집단	3.21	1.38		
	(c) 과정지향형 집단	3.26	1.29		

\* : p<.05, \*\* : p<.01, \*\*\* : p<.001

## 제 4 장

---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의 원인 분석

1. 연구 방법
2. 연구 결과



## 제 4 장

#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의 원인 분석

### 1.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FGI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거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FGI는 총 5개 그룹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총 31사례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 <표 IV-2>와 같다.

학부모 참여자의 연령분포는 38세에서 48세였고, 학생들은 14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의 집단으로 이루어졌다. 학부모들의 경우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었고, 직업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에도 전일제 회사원 1명을 제외하고는 박사과정 연구원, 과외교사, 학원경영, 파트타임 방송리포터 등으로 시간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종에 종사하였다. 특히 학부모 대상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엄마들로만 집단이 구성된 것은 우리나라의 자녀양육 및 교육문화를 잘 설명해 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부모=엄마'라는 등식은 아주 자연스러우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부모'가 뭐든 잘하지 않으면 자녀를 실패자로 만든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서점에 깔린 자녀 교육서만 훑어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모는 바로 '엄마'이다. '엄마표'로 시작하는 각종 자녀 교육서를 비롯, 엄마가 아이의 마음도 치료해주고, 엄마가 아이의 사회관계까지도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아이를 망치는 '엄마',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우는 '엄마'에 이르기까지, 온갖 '좋은 엄마 담론'이 난무한다. 말하자면 '자식은 엄마 하기 나름'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며, '유능한 엄마 되기'를 강요하는 사회인 것이다.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또 FGI에서 만난 무수한 학부모 역시 바로 '엄마들'이었다.

표 IV-1

학부모 집단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4)	거주 지역	자녀 성별	학교 유형	자녀 구성	직업
1 김은주(41) (이세윤의 어머니)	경기도 분당구	여	일반중	딸 2	과외교사
2 이선영(42) (홍지효의 어머니)	경기도 분당구	여	일반중	딸1 아들1	전업주부
3 최정민(38) (정상미의 어머니)	경기도 분당구	여	일반중	딸1	파트타이머
4 최성애(42) (박재민의 어머니)	경기도 분당구	남	일반중	아들1 딸1	박사과정연구원
5 강경림(43) (홍희철의 어머니)	경기도 분당구	남	일반중	아들2	회사원
6 박미라(40) (김명재의 어머니)	경기도 분당구	남	일반중	아들1	전업주부
7 김돌선(48)	서울시 양천구	여	사립 일반고	딸 1 아들1	전업주부
8 김정미(46)	서울시 영등포구	남	사립 자율고	아들2	전업주부
9 성정희(47)	서울시 강동구	남	사립 자율고	아들1	전업주부
10 김영선(42)	서울시 동작구	여	사립 일반고	딸1 아들1	학원운영
11 방희영(45)	서울시 광진구	남	사립 자율고	아들1 딸1	전업주부
12 여미애(43)	서울시 성동구	여	공립	딸2	전업주부
13 이영지(45)	서울시 서대문구	여	사립 자율고	딸2	전업주부
14 조문정(46)	서울시 마포구	남	사립 일반고	아들2	전업주부

4) 모든 사례의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제시함

표 IV-2 청소년 집단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거주지역	자녀 성별	학교 유형	형제자매관계	장래희망	
1	이세윤(14)	경기도 분당구	여	일반중	딸 2 중 첫째	의사 또는 교사
2	홍지효(14)	경기도 분당구	여	일반중	딸1 아들1 중 첫째	가수
3	정상미(14)	경기도 분당구	여	일반중	외동딸	안무 트레이너
4	박재민(14)	경기도 분당구	남	일반중	아들1 딸1 중 첫째	애플회사 연구원
5	홍희철(14)	경기도 분당구	남	일반중	아들2 중 첫째	변호사
6	이유민(17)	서울시 은평구	여	사립 일반고	아들1, 딸1 중 첫째	승무원 (모르겠음)
7	손연지(17)	서울시 은평구	여	사립 일반고	아들1, 딸2 중 셋째	세무사
8	김지영(17)	서울시 은평구	남	사립 일반고	딸2중 둘째	모르겠음
9	민나경(17)	서울시 은평구	남	사립 일반고	아들 1, 딸1 중 둘째	메이크업 아티스트
10	공수진(17)	서울시 은평구	여	사립 일반고	딸1 아들 1 중 둘째	모르겠음
11	박유정(17)	서울시 서대문구	남	사립 자율고		교사
12	박상훈(17)	서울시 강북구	남	사립 일반고	아들 2중 첫째	교사
	주민석(17)	서울시 강북구	남	사립 일반고	딸1 아들1 중 둘째	교사
13	진달래(17)	서울시 강북구	여	사립 일반고		범죄심리 분석가
	이서희(17)	서울시 강북구	여	사립 일반고	딸2 중 둘째	연극배우
14	오수정(17)	서울시 강북구	여	사립 일반고	아들1, 딸1 중 둘째	제약 연구원
	도지유나(17)	서울시 강북구	여	사립 일반고	딸1, 아들 1중 첫째	모르겠음

## 2) 연구절차

### (1) 연구 대상 선정

FGI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청소년)로 총 31명(5개 그룹)이었다. 서울소재 고등학교 1학년 2집단(각 6명), 고1자녀를 둔 어머니 1집단(8명)과 경기소재 중학교 1학년 1집단(5명) 및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1집단(6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각 그룹은 동학년 청소년 혹은 동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집단을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

FGI의 참여자를 모집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은 '동질성'으로 동질성이 확보되었을 때, 그룹 내의 참여자들 간에 대화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고 그룹과 그룹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검증 분석이 용이하다(Morgan, 1996). 따라서 보통의 경우, 연령이나 성별에 의한 분할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한 점은, 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학년에 따른 관심사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학년의 부모들끼리 모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자녀 성별의 경우 딸과 아들에 대한 기대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녀 성별에 따라 어머니 집단을 분리하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및 자녀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고교 입시 및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학년으로, 입시가 아닌 인생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불행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입시라는 통과의를 기점으로 하여 재편·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중고등학생인 자녀를 둔 학부모(특히 엄마)들의 관심사는 입시에 집중되어 있게 마련이다. 다만, 1학년인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입시와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연구대상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및 자녀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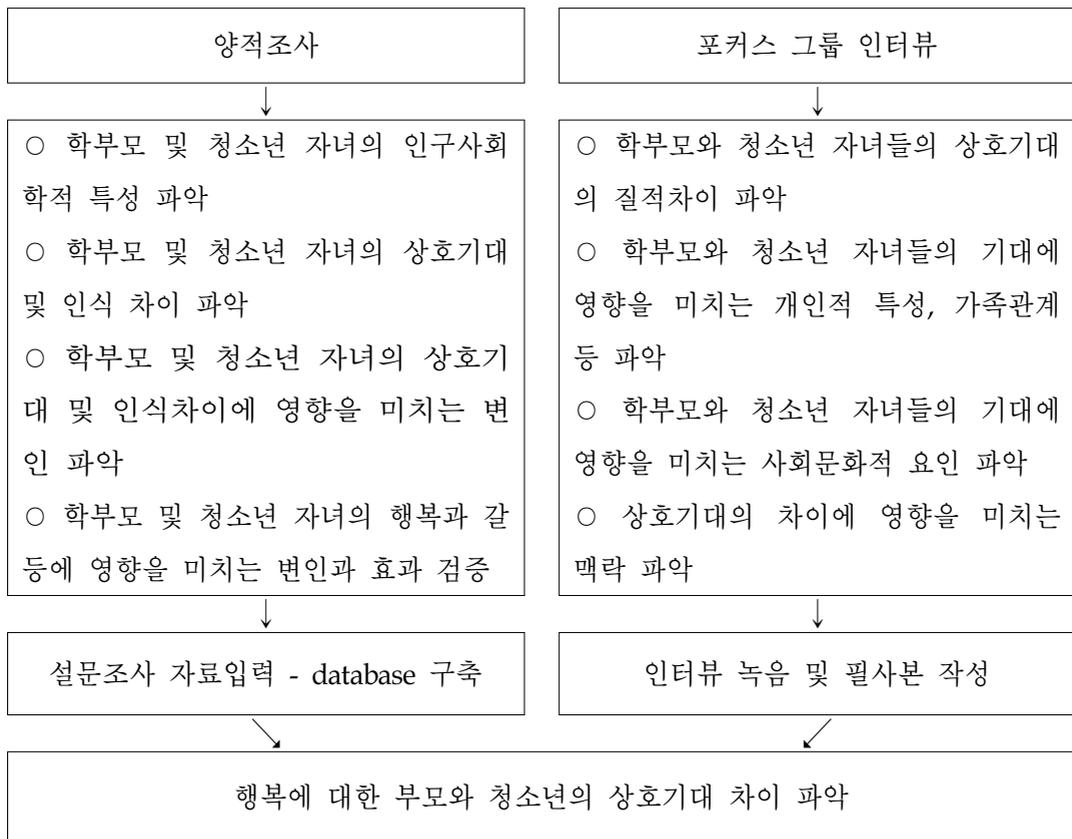
연구 참여자는 전문 리서치 회사의 중재로 고 1 자녀를 둔 학부모 집단이 구성되었고, 나머지 집단은 눈덩이표집에 의해 연구 대상자들이 구성되었으며 자발적 연구 참여의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였다.

### (2) FGI 인터뷰 실시

FGI가 실시된 기간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8일 사이였으며, 총 6회기의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어머니 집단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집단에 따라 평일 오전, 오후 및 일요일 오후 시간에 집단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중학교 1학년 학부모는 총 6명으로, 경기도 내 소재 A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었다. 이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소개 받아, 중학교 1학년 학생 5명(남2명, 여3명) 대한 FGI를 실시하였고, 모든 FGI가 마무리 된 직후, FGI 내용을 토대로 한 학부모 추후면담(중1 학부모)을 1회 실시하였다.



[그림 IV-1] 조사체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총 8명으로, 서울시내 고등학교(자사고 및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었다. 리서치 회사의 도움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남학생의 학부모 4명, 여학생의 학부모 4명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FGI는 총 2개 집단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서울 시내 일반 고등학교 2개를 선정, 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면서 학생들 모집에 난항을 겪었으나, B여고와 C고교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실시가 가능하였다. B여고에서는 여학생 6명을 한 집단으로, C고교에서는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 한 집단이 되어 FGI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은 각 그룹마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일관된 진행과 심층적 면접이 가능하도록 질적 연구분야 전문가인 가정학 박사 한 명에 의해 각 집단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여자 거주지 인근에서 이루어졌다. 어머니 집단은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카페에서 실시하였고, 청소년 집단은 상황에 따라 학교 교실과 학교 인근 패스트푸드점 및 카페가 장소로 활용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모든 녹취자료는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FGI 실시에 따른 연구 조사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IV-1]과 같다.

### 3) 자료분석

학부모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상호기대에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측면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색하였다.

넷째, 학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부모 FGI에서는 이들의 현재 양육실태, 부모-자녀 관계, 양육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청소년 자녀들 대상의 FGI에서는 이들의 생활실태,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자신의 장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 2. 연구결과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FGI 과정을 통하여 떠오른 ‘행복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상호기대’에 대한 주요 테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부모의 기대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 (1) 불안하고, 흔들리는 학부모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 마다 무서워요.” (김영선, 고1 학부모)

학부모들과의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가장 눈에 띄게 관찰되는 부분은 바로 그들의 ‘불안함’이었다. ‘엄마’라는 이름표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제대로 된 진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은 정보가 있는데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새로운 입시전형이 발표 될 때마다 “두렵다”는 그녀들의 표현은 진로지도를 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전형이요, 전형이라는 게 3000가지가 넘는대요. 학교마다도 틀리고, 과 마다도 틀리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 저희 고등학교에서 입시에 관한 설명회를 하는데요. 전 인제 1학년이고, 그런 걸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정말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80% 밖에, 70% 밖에 못 알아들겠어요. 무슨 소릴 하는 지 못 알아들겠어요. (방희영, 고1 학부모)

저는 이쪽(사교육) 일을 해서 늘 들어야 하고, 늘 공부해야 되고 늘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멍청해지는 건가! 아니

면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둔화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제도가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로 점점 점점 넓고 폭넓게 가고 있는 건가. 근데 전에는 이렇게 넓기만 했는데요, 이젠 넓으면서 깊어지고 있어요. (김영선, 고1 학부모)

자녀 교육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엄마 탓’이 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입학전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입학전형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이 자신의 잘못인지, 정책을 만든 사람의 잘못인지 원망하게 되고, 자신도 어찌지 못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결국 아이들에게 투영되어, 밤 10시 넘게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학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게 만든다. 파김치가 되다시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부모의 ‘공부하라’는 요구가 매우 폭력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제가 이제 아이를 고등학교 보내놓고 생각한 게, 늘 2%가 가슴이 인제 좀 원가 채워지지 않고 원가,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왔는데도, 이제 그만 쉬어야지가 아니고, 좀만 쉬었다가 빨리 다시 자리에 앉았으면 하는.....(방희영, 고1 학부모)

그러니까 제가 야자를 하고 집에 오면 열시 반이 넘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좀 쉬면은 집에서 공부 안하고 놀기만 한다고 열시 반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놀기만 한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할 거 면은 뭐, 더 이상하지 말고 차라리 딴 거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시죠. (주민석, 고1)

‘대중매체’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선동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강북 일반고에서 공부할 아무리 잘해 봐도, in 서울 하기가 어렵다.’, ‘S대에 강남구 학생 편중 현상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특목고 학생들이 SKY 입학을 휩쓴다.’와 같은 헤드라인에 학부모들은 연연하게 되고, ‘진로지도’라는 큰 그림은 그려볼 수도 없이, 자녀를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 시키는 것을 학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가장 큰 미션으로 삼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저는 인제 교육 정보지 같은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요즘에 그 어떤 입시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1%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정말 교실에서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인서울이 안 된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 아이들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앞으로 그런 진로를 뭐가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기사를 제가 많이 접하면서 고민하게 되죠. (최정민, 중1 학부모)

저희 아이가 지금 뭐 일반고에서 그래도 꽤 잘하는 축에 끼워짐에도 불구하고 무슨 TV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일반고를 막 이렇게 복돋는다(복돋아준다) 그러면 지가 일반고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저래봤자 특목고한테 못 이겨. 특목고한테 못 이겨.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난 서울 안에 있는 학교 나 갈 수 있을까? (김영선, 고1 학부모)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정책과 대중매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자녀의 진로지도 최일선에 있는 교육현장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마음이 커 보였다. 특히 학교현장의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다거나, 부모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미래 삶에 대한 가치를 정립한다거나, 스스로 꿈과 비전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돕기 보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전략에 그치는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진로지도로 인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가 ‘입시 및 진학’으로 경도(傾倒)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EBS에서 학교관련, 학교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를 봤는데 그때 그걸 봤을 때 아, 선생님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반에 뭐 30명이 있을 때 뭐 반에서 몇 등까지만 자기가 이렇게 하고 뭐 자기 선 밖에 있는 애들한테는 관심을 안 쓴다는 결론은 그거였는데 그래서 인제 그거를 그 애들까지 다 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선생님 자질이 있나 없나,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중략) 애 인생이나 성장기에 선생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학교나 선생님이 이렇게 좀 많이 서포트 해주고 부모님, 부모하고도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부모하고 교류를 애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그 부모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과연 계실까, 저는 이때까지 지금 저희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항상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를 하지, 선생님이 아, 애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나쁜 점이 있고 이러는 데 애를 뭐 이런 좋은 식으로 뭐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강경림, 중1 학부모)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직업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서 애들한테. (중략) 입시, 직업 이런 거에 대한 건 애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성정희, 고1 학부모)

저희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요. (중략) 얼마 전에 중학교 애의 소속으로 진로 교육을 받는 게 있어서 진로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일주일 정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진로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이예요. 이상적이어서 그대로 가면 (중략) 나중에 장족의 발전을 하면 나라가 정말 편중되지 않게 잘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라에서 그리는 그림과 우리가 사실 집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은 조금 이질감이 있다고 보여 쳐요. (중략) 요즘 아이들은 머릿속에 이미 하나가 딱 결정 되서 가니까 그게 아니면 멘붕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 자꾸자꾸 이렇게 좁히어서 진로 교육들을 벌써 이과성향과 문과성향이 좀 갈라져야 한다. 그리고 갈라진 성향 안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 가야한다. 그리고 니네들이 또 어떤 과를 가고, 졸업을 해서 어떤 직업을 하려면 미리 이런 이런 준비를 조금 해가지고 가면 좋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라에서 원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범위의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점점 커트 커트 커트. (중략) 어떤 거에 딱 들어갔을 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보다는 벌써 좌절 모드가 탁 꺾여서 그렇게 출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김영선, 고1 학부모)

(2) 공부를 강조해야만 하는 이유 : “적어도 나만큼은 살아야 되니까.”

자녀의 미래의 삶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이야기 하는 방식에는 특별한 양상이 관찰된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다가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보수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 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것이다. 인터뷰의 초입에는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 매우 ‘이상적인’ 답변들을 제시하다가, FGI가 진행될수록 이면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수순이었다.

아래의 사례를 보게 되면, 명재엄마는 자녀가 일상의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FGI가 진행되면서는 그것이 자신이 꿈꾸는 자녀의 삶의 지향점이기보다는 자녀의 기질과 능력, 육아경험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지레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식의 신포도 기제가 작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냥 아이가 행복을 느끼면서 일상을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남이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속은 곪아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행복을 느껴야지. 제일 중요한 건. (중략) 저는 그래요. 정말 예술 하는 사람들, 특히 그러잖아요. 힘들지만, 아 왜 저렇게 살까, 어떻게 밥은 벌어 먹고 살까 해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본인이 행복이라면 관찮을 것 같아요. (명재엄마, 중1 학부모)

그게(목표와 지구력) 안보이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왜냐면 그게 확실한 애가 애들이 보통은 상위 1% 애들이더라고요. (중략) 저는 가까이 저희 조카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개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봐왔기 때문에 저희 애랑 이미 너무, 같은 중학교 1학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미 너무 벌어진거야. 그래서 아예 아, 우리 애는 안 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조카들을 보고 같이 컸으니까.(중략) 어려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걸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 그런데 우리 애한테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제 플에 아, 애랑 개는 너무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중략) 그니까 가까이서 그렇게 뭐 좋은 학교가고 그런 애들을 보면 대부분, 뭐가 목표가 있고 옆에서 아무리

서포트가 필요 없어도 개네들은 갈 애들은 죽어라 하고 가더라고요. 저희 애는 그런 게 안보여요. 없고, (중략) 아직은 그니까 덜 당한거지 내가. 어 덜 당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지레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인제 그거 그거거나 둘 중에 하나 인 것 같아요. (명재엄마, 중1 학부모)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감추어 두고, 이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다. 양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학부모들은 '사회에 공헌하는 자녀들의 삶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지만, FGI에 참여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공히 '원래 어른들은 본심을 숨긴다.'라고 설문결과를 평가하였다.

연구자 : 음. 엄마들은 뭐라고 대답을 많이 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공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 (피식피식)

오수정 : 솔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연구자 : 솔직하지 않아?

오수정 : 네, 엄마들은.

여학생 : 맞아.

(중략)

이서희 : 아, 저건.

오수정 : 아, 진짜 가식이야.(웃음)

(C고등학교 1학년)

저는 사회 공헌? 그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그냥 좀 신기(해요). (손연지, 고 1 학생)

일단 부모님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모범적으로 못 사셨으니까 좀 양심에 찔리니까 그런 답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가장 모범적인 답이잖아요. 사회에 공헌한다는 게. 그래서 그걸 선택하신 거 같아요. (김지영, 고 1 학생)

부모는 이상적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김영선 - 고1의 학부모)

(아이들이 사회경제적인 성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듣고) 엄마의 생각이 자식한테 투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선영-지효엄마, 중1 학부모)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신봉이론: espoused theory),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원리(사용이론: theory-in-use)는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지점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터뷰 내용의 하나는 바로 학생생활기록부에 적어둔 ‘아이의 장래 희망’에 대한 학부모의 답변이다.

가끔 우리는 옛 추억을 쫓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들이 어린 시절 다니던 학교로 찾아가 생활 기록부를 들추어 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장래 희망란에는 보통 ‘부모’의 희망과 ‘본인’의 희망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부모들의 경우 외교관, 대통령, 장군과 같이 지극히 ‘부모스러운’ 희망사항을 기재해 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 역시 딸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하고, 학교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아이의 장래 희망을 기재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받고, 망설이고 망설인 끝에 ‘아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라고 써 두었다. 그런 다음, 내 개인이 말한 내용과 나의 실제 욕망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FGI에 참석한 학부모들 중에도 학적부에 ‘아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라고 쓴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자녀의 장래에 대한 학부모로서의 욕망은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하며, 그것을 가감 없이 드러내놓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는 작은애나 큰애나, 학교 초등학교 때 엄마가 원하는 거기에 쓸 때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항상 간에 적었어요. 본인이 원, 제가 저도 그렇고 애기 아빠도 그렇고 학교 아무리 좋은 데는 안 나왔지만, 아무리 좋은 데 나와도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면 아무런 행복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대신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니까. 일단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

라는 길잡이를 많이 해줬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본인이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중략) 어차피 본인들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줄 거 아니  
잖아요. 그냥 또 틀렸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중략) 세 살 때부터 인제 영어 대회를 끌고 나갔을 때 다른 엄마들이  
혀를 찢을 때, 저는 저만의 그런 교육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감이나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아이가 나가서 거기서 성취감을 얻었을 때  
다음부터는 엄마가 나가라고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나가줬고. 모든 걸 자기들이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만족했고, 아이들도 스스로 만족하고. 학교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너가 여기 가라가 아니라 자기가 국제중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냥 보내줬고. (김정미, 고1 학부모)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처음에는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  
다며, 그냥 자녀가 원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질문이 거  
듭될수록, 자녀가 명문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세 살 때부터  
영어 대회를 끌고 나가’면서 아이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세  
살 아이 욕망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명문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아닐 것  
인데 말이다. 말하자면, 부모는 자신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며 그것이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삶이라고 믿어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외교관’, ‘의사’, ‘프로듀서’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직종에 자녀  
들이 종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드러내는 것을 과거의 부모들에 비해 현재의 부모들은 어려워할까? 과거의 부모들은 ‘자  
식이 ○○이 되면 좋겠다.’하는 마음을 자식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돈과 권력이 없는 부모들이 소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으  
로 성공하라고 대놓고 이야기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 욕망은 말하자  
면 ‘너는 나처럼은 안 살면 좋겠다.’는, 그야말로 부모로서 가질 법한 순수한 바람을 내포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생활 기록부에 법관, 대통령, 의사라고, ‘부모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능력’에 상관없이 솔직한 희망 사항을 써 넣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부모들은 그렇게 ‘순박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  
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복잡한 시스템의 사회에 살고 있

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책도 너무 많이 보았고, 각종 전문가라는 사람들로부터 ‘부모라면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교육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자원과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적 성공이 재생산된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래서 선불리 자녀가 무엇이 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 미술대학의 교수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기 보다는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평생 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밥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마는 식이다. 나의 진짜 욕망은 자녀가 ‘나를 뛰어 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과거의 부모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다 보니 ‘나 만큼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추론된다.

우리 자식세대는 우리 보다, 부모세대보다 못살게 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안 하나? 나만하나? (일동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가지는 기득권이 큰 기득권도 아니지만, 이거 정도는 애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그게 진짜 상류층의 기득권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겠지만 우리도 그래도 나보다 못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을까. 나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머릿속이 정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너무 프리한 생각을 못하잖아요. 우리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제일 편한 방법 있잖아요. 성공을 위한 제일 편한 방법은 공부고, 돈도 제일 조금 들고, 약간 효율을 따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한정으로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애한테 시간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것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100을 투자했을 때 150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자꾸 취사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선영-지효엄마, 중1 학부모)

부모들이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에 대해 비난할 수 있을까?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성과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부모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그만둘 수 없는 그들은, 말하자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가진 자산도 재산도 없어

자식들이 대중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캥거루족’이 되어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삶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보통 시민이기 때문인 것이다.

저희 노후는 저희 애들이 잘 되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퇴직을 하고 늙었을 때, 우리 애들이 좋은 직장을 가져서 저희한테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뭐 애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만 이렇게 좀 애들이 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희철엄마, 중1 학부모)

연구자 : (전략) 지금 어머니들은 나처럼만 나만큼만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라는 걸로 바뀌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일동 : 좀 그렇죠.

연구자 : 나만큼 살려면 그래도 공부를, 이 정도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처럼 살지 마라가 나만큼만 살려면 공부해라.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건, 그러니까 이제 큰 재산은 다 없다. 이런 이야기세요. 물려줄 재산이 없고 그럴려면 너희가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거고? 그것이 결국 내 노후를 편하게 하는……

일동 : 그렇죠. 맞아요. 서로서로 손 벌리지 말자 이거지. 서로서로 손 벌리지 말자.

연구자 : 내 노후에 대한 준비가 결국 자녀의 교육이다라는 그걸로 등치가 된다는……

지효엄마 : 네가 나한테 캥거루족 안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엄마들 여담으로 얘기하잖아요. 건물하나만 물려줄 것만 있어도 공부하란 말 안하겠다. 출근 없고, 죽고 나면 남는 거 딱하나 집 하나 남는데 어떡해. 애가 성공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어떻게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든 거 알지만 그냥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조문정, 고1 학부모)

저도 건물하나만 줄 것 있으면 아이 너 혼자서 찾아라! 어머니들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애들만 행복하면 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행복이 정말 학창시절만 행복할 것인가 학창시절 졸업하고 나머지 인생이 행복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방희영, 고1 학부모)

특히 부모들은 우리 사회가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가 희박한’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 특히 경제적 능력에 의해 자녀 교육의 성패가 좌지우지되는 현 세태에 대한 강력한 우려와 반발을 가지고 있어 보였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자유를 존중하고 학벌주의를 경계하다가도 ‘아이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로 인해 금세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뉴스를 들은 게 자기가 하층민으로 사는 게 50%고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정말 희박하게 되는 (방희영, 고1의 학부모)

저의 남편은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사회의 계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면서 키우는) 안 된다 주의예요. 애가 될 성 같은 애면 전폭 적으로 지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좋은 대학을 보낼 생각을 해야지. (중략) 제가 고등학교 때 생활에 대해서 제가 했었던 것에 대해서 큰 만족을 하고 살았냐, 그때는 만족스러웠지만 지금 생활, 이렇게 지나와서 보니까 참 그 때 해 볼, 해 봐야 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내가 못하고 살았구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애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마인드로 살아 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애가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현실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갈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략) 자꾸 그쪽으로 뉴스나 학원 설명회나 보러 가면은 되게 걱정이 되면서 ‘애를 망치고 있나’라는 불안감? 그런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도 괴로워요. (김은주-세윤엄마, 중1 학부모)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는 그 동안의 삶의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다. 직업에 귀천이 존

제한한다든가 육체(신체)보다 정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실제로 은행 대출에서 직종별 차별을 한다거나, 화이트 칼라 계층에게 허락된 쾌적한 근무환경, 급여에서의 차별 등을 몸소 경험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노동직 보다는 정신적인 직업을, 몸 보다는 머리를 쓰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장에서 기름 묻혀가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해주잖아요. 지금 모 은행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뭐 대출 금리도 이쪽은 적게 주고 이쪽은 많이 주고 그렇게 하니깐. 그게 은연중에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이 인식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엄마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펜대 굴리는 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저희도 제가 애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똑같이 여름에 더운 날에 더운 때 밖에서 땀을 뻘뻘 일하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래, 에어컨 쿨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일하면서 펜대 굴러가면서 일을 할래? 엄마, 부모님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것 보다는 좀 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좀 경제적으로 운택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네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강경림-희철엄마, 중1 학부모)

지효엄마 :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최저 임금은 올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들한테 평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야되고 이런 이유가 왜냐하면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오는 불이익을 너무 알고 있잖아요.(중략) 스웨덴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북유럽권에 있는 웨이터를 인터뷰한 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웨이터가 나이도 되게 많아요. 그 쪽 나라에 그 식당 웨이터들의 월급의 구조를 거기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매출의 30%래요. 매출의 30%가 웨이터의 월급이래요. (중략) 평생 그냥 웨이터 해도 행복한 거예요.

명재엄마 :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는.....

지효엄마 : 없는 거지.

희철엄마 : 저도 인제 다른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가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저희는 솔직히 지금 펜대 굴리는 직업

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화이트칼라?) 그쵸. 근데 기술자를 우대하는 이 사회가 되면 분명히 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손재주가 많거나 기술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되면 이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 기술자를 우대하는……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인터뷰 중)

대한민국의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대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들은 우리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성과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욕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세대적인 특성과 연결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들 중 대개는 80년대 후반 이후 대학에 입학한 세대로, 최근 사회학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397세대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자력으로 중산층 진입 첫 불가 세대’로, 20대에는 IMF 외환위기를 겪고, 30대에는 부동산 버블의 희생양이 됐다. 그래서일까? “앵그리 397”이라고 이들을 명명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인터뷰 내내 다소 사회적·경제적인 성공에 대해 양가적이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다가올 미래에 대해 암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등은 이 같은 세대적 속성이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세대는 1980년대 중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기에 청소년 시절을 보낸 만큼 소비와 욕망에 익숙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가 가져온 정치적 개방 속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문화에 역시 익숙해 있다고 평가된다. 프랑스 역사학자 그룹인 아날학파가 주조해낸 ‘망탈리테(mentalites)’란 특정한 시대의 개인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간단히 말해 집단적 무의식 또는 심성을 뜻하는데(김호기, 2013), 이들의 사고 깊숙이에는 소비와 욕망에 대한 생활방식에 대한 동경과 함께, 함께 사는 사회, 계층 간 조화로운 민주사회에 대한 양심적 망탈리테 또한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에 공헌하는 자녀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공부를 잘 해서, 남들 보다 좋은 학교에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성공의 열매를 이 사회를 위해 나누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이상향이라고 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3) 자녀의 미래가 너무 일찍 재단되어 안타까운 학부모들

이렇듯, 자녀들의 학업적 성취와 성공은 모든 부모들에게 강도를 달리하지만 동일한 욕망임이 확인된다. 하지만 입시경쟁의 치열함에 가속도가 붙고, 오히려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가 더 이른 시기에 결정되어 지는 냉엄한 분위기 속에서 속이 더욱 타고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으로 고등학교 입시가 서열화 되게 되면서, 빠르면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특히 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고민을 깊게 하게 되고, 고등학교 입학 관문을 통과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미래를 재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자녀가 특목고 입시에서 실패하고 일반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부모는 자녀 앞에서 감히 ‘네 꿈이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없게 되어 버린 현실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과학교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과 쪽인 성향과 이과에 주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아이가 한 발씩 빼고 가는 거죠. 왜냐면 쓴 맛을 봐서요. 한 발씩을 빼고 가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은 감히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애 아빠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감히 한 말에 내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중략) 무엇이 되라, 어떤 쪽의 과를 선택해라, 네가 이런 과를 하면 좋겠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얘기할 생각은 아니에요. (중략) 너무 어린 나이에 좌절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좌절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저희는 사실 한 번 그렇게 해 보는 것도, 해 봐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 어때? 어른의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고요.(중략) 처음에 교복 입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처음에 교복입기. 처음에 교복을, 처음에 교복을 맞추러 가는 것부터 벌써 딜레이 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려고 굉장히 그렇게 하지 말게 하려고 땀에는 굉장히 한 번 가슴 아파서, 그렇게 해 주고 싶지 않아서 훨씬 더 밝고 막 할머니들, 양가에 계시는 할머니들, 집안 식구부터 시작해서 다 애 눈치 슬슬 보면서 뭐 도 뭐 그래 할머니가 교복 이거 사주고 뭐 이거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교복을 사러 가는 거 자체가 세 번이나 약속 어기고, 엄마 나 내일 사러 갈래요, 내일 모레 사러 갈래요, 사러 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김영선, 고 1의 학부모)

위 사례의 학부모는 특목고 입시에 도전하는 것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줄 알았지만, 전략적으로 실패한 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게 된 딸은 교복을 맞추러 가는 것을 ‘세 번이나 딜레이를 시킬 만큼’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거의 다 보낸 지금까지도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례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해지면서,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아이들로 하여금 제 미래를 창의적으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은 하였다.

#### (4) 출생순위, 성별에 따라 다른 기대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나 미래의 생활과 관련하여 가지는 희망 사항은 자녀의 출생순위가 성별에 따라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GI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희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딸의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나라 중년 대상의 대규모 조사연구에서도, 부모는 아들이 대학 졸업 이후 곧바로 취업하여 자립하기를 원하지만, 딸은 학교 졸업이나 취직과 관계없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한경혜, 이정화, 2012).

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을 나눌 수 있으므로, 생계유지와 관련한 걱정이 덜하며 전업주부로서의 삶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계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것에는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식이다. 반면, 아들의 경우에는 취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거나 이상실현도 좋지만 그 이전에 밥벌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보인다.

희철엄마 :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가정을 꾸려서 자기 자식을 낳고 이렇게…….

연구자 : 아드님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중략) 부양자로서 기능을 아들들은 해줘

야 한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지효엄마 : 약간 종족번식? 그니까 딸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이야. 이러면서 아들은 너는 해야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면 그 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그게 필요한 거 같애.

명재엄마 : 그게 최곤 것 같애. 좋아하는 일을 생계 걱정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그 길을 찾는 것.

(딸의 결혼 이런 거는 선택사항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고.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을 닦달하죠. 남편이 더 벌어야겠다는. (세윤엄마, 중1의 학부모)

그리고 딸에 대한 기대는 우리사회의 여성 직업군에 대한 성향이 반영되어 ‘교사’나 ‘연구원’ 등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반면, 아들의 경우 전문직이라고 분류되는 ‘변호사’, ‘의사’, ‘공무원’, ‘엔지니어’ 등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엄마는 그거는 너무 엄마 시대의 그 교사면 여자는 교사면 최고의 직업 이런 건데, 본인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둘선, 고1의 학부모)

저는 아예 옛날 사람은 아니어도 공무원을 해서. 여기 엄마처럼. 여자는 또 출산,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공무원을 하려면 좀 문과 쪽으로 해가지고 가서 했으면 좋겠다. (이영지, 고1의 학부모)

저희는, 우리 아이(아들)는 좀 병원을 자주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괜찮다고 저도 느꼈었어요. 일단 꿈은 높게 잡는 게 좋아서. 그렇게 4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는 외과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성정희, 고1의 학부모)

자녀의 출생순위에 대해서도 기대의 내용이나 정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에 대해서는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편으로, 일상생활과 학업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아래 동생에게는 관대한 양육태도를 보이게 된다는가, 첫째에게 칭찬이 인색하다든가 하는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내가 둘째 아이한테는 욕심이 없거든요. 근데 월 하나 해도 월 하나 잘해가지고 오면 그냥 그것으로써 기쁘고 행복한데 큰아이는 기대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잘 해와도 잘했던 말 안하니까. 애도 이게 사춘기가 된 거야. 언제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말을 험하게 하는 거예요, 애가. “도대체 저 입에서 언제 칭찬이 나오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쇼크를 받았거든요. (중략) (큰)애는 이번에 구십오점, 백 점 맞아도 엄마가 별, ‘그냥 하나 더 받아왔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애한테 한마디로 ‘그냥 잘했어’ 넘어갔는데 둘째 동생은 구십점 받으면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저럴 수,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엄마 왜 그래?’ ‘왜 엄마 나한테 자꾸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가 사춘기라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구요. (세운엄마, 중1의 학부모)

둘째한테는 훨씬 더 자유롭게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니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는데……. (김영선, 고1의 학부모)

청소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성별에 따라,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가 강조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기대가 상이한 점으로 인해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고 있었다.

그래서 출생순위가 후순위인 경우, 아무래도 부모로부터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받는 압박이 덜하다고 느낀다거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벌어도 되지만, 남학생들은 부양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모로부터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최고’라는 식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저는 다른 건 아닌데 저희 오빠랑 언니는 되게 엄마가 열심히 되게, 언니 오빠는 연년생이랑 말이에요. 언니 오빠는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저는 막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안 시키고 그냥 놀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오빠는 어릴 때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해서라도 잘 됐는데 저는 엄마가 공부를 별로 안 시켜서. 지금은 안 부러운데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하나? (손연지, B여고 1학년)

민나경 : 부모님은 그냥 여자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어도 된다고.

민나경 : 제가 하고 싶은 거.

연구자 : 네가 형제가 남매? 남동생이나 오빠?

민나경 : 오빠요.

연구자 : 오빠한테는 뭐라고 하셔?

민나경 : 공무원 되라고.

연구자 : 공무원 되라? 그럼 좀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거네? 오빠한테는 확실한 직업을 가져라 라고 하고 너한테는 하고 싶은 일해도 된다고 하고. 그러면 네가 보기에 남자랑 여자랑 느끼는 부담 그런 게 어떨 거 같애? 뭐 어떤, 장래에 대해서 여자가 좀 유리하다? 부담이 좀 덜하다?

민나경 : 남자는 돈 벌어서 나중에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요.

(B여고 1학년)

연구자 : 그럼 오빠한테는 뭐라고 하시는데?

공수진 : 오빠한테는 오빠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돈 안정적인 거.

연구자 :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한다.

공수진 :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시집을 잘 간다.

연구자 : 시집을 잘 가는 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뭐 때문에 시집을 잘 가라고 하셔?

공수진 : 여자 인생은 시집가는 거라고.

(B여고 1학년)

## 2) 청소년의 기대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1) “성적에 맞춘 진학지도를 진로·직업 탐색이라고 해요.”

현재 학교에서는 진로상담 교사 및 진로지도 시간을 별도로 두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진로지도는 단지 성적에 맞추어 갈 만한 학교와 과를 ‘찍어’ 주는 ‘입시지도’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하는 것도 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기대하고 진로 지도 교사를 찾았다가 상처를 입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보인다.

손연지 : 상담을 했는데 유민이랑 저랑 어떤 친구랑,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종이에 쓰면서 너네가 몇 등급이면 지방대를 갈 수 있고 몇 등급이면 인서울을 갈 수 있고, 유민이 승무원 되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그러면 몇 등급은 해야 되고 영어는 얼마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민 : 그래서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으니까 그럼 인하공대를 가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인하공전 가면 되겠네, 가면 되겠네, 그게 끝이었어요. 몇 등급이냐고 묻기에 3-4등급이라고 하니까 딱 가면 된다고. 여길 가면 되겠다.

김지영 : 과목명을 좀 바꿔야겠어요. 진로잖아요.

연구자 : 원래 과목명이 뭐야? 진로야? 진로지도야?

김지영 : 진로직업인데 진로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꿈, 되고 싶은 거, 미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학 지도, 입시 지도니까.

또한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 학교와 과마다 서로 다른 전형을 채택하고 있는 등 입시에 관한 한 그 어느 누구도 전문가라고 내세울만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는 ‘~카더라’ 식의 확인되지 않은 낭설들이 쉽게 유포되고, 부풀어지고, 번져나가면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특히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꿈을 써서 내

는 것이 ‘입학사정관 제도에 유리하다’는 식의 담론이 만들어 지면서 이에 대해 부모도, 아이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교육현장의 건강성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인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작은애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기하는 게 “엄마, 나 있잖아. 학교에서 꿈을 써서 내라는데 순간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일단 다 포괄할 수 있는 과학자를 써서 냈어.” 그래서 “뭐라고? 뭘 냈다고?” 그랬더니 과학자를 써서 냈대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애긴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중학교 1학년인 아이 자체도 벌써 그 생활기록부 상에 남는 희망을 장래 희망을 쓰는 칸에 무언가 바꾸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나를 보면서 다 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과학자라고 포괄을 짓는 것 보다 의사면 의사, 물리학자면 물리학자, 화학자면 화학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맥을 잡아서, 1학년 때 화학자인 애가 2학년 때 화학자, 3학년 때 화학자인 애가 그대로 고등학교 들어가서 화학자, 화학자, 화학자로 가면 6코스가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 입학사정관제도에서 훨씬 더 으뜸을 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무슨 희망사항이 그렇게 뚜렷하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누나만큼 생각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아이가 이거 바꾸는 거 그 희망사항을 쓰는 거 칸에 그 단순한 글씨 자체도 두려워하는 사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으면 안 될텐데. (김영선, 고1의 학부모)

#### (2) 배금주의 사회풍토에 지배당하는 아이들

양적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을 지향한다. 이는 FGI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지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돈’에 성공의 기준을 두고, 이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연구자 : 유민이는? 잘 된다는 게(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유민 : 돈 많이 버는 게.

연구자 : 돈 많이 버는 게 잘 되는 거다. 유정은?

박유정 :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돈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연구자 : 아, 지영이는? 잘되는 게 뭐야?

김지영 : 저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연구자 : 그러면 돈이 좀 많아야겠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전제 조건은 돈을 많이 버는 삶?

김지영 : 돈도 많이 벌고 가족도 잘 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도 돈이 좀 우선 이죠.(중략)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냥 돈은 기본이고 다른 것도 중간 정도로 해야지.

연구자 : 혹시 나는 이 의견에는 반대다. 돈이 기본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라는 친구가 있으면. 아니면 동의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 번 얘기해볼까?

공수진 : 지영이 생각에는 동의하는데…….

연구자 : 돈이 먼저다?

공수진 : 돈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연구자 : 수진이 넌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 같아?

공수진 : 유치원 때부터.

연구자 : 유치원 때부터? 어떤 점 때문에.

공수진 : 그때는 엄마가 쓰는 걸 보잖아요.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살림에도 돈 들어가고 음식 사는 데도 돈 들어가고 다 따라 가잖아요 돈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한 거 같아요.(중략)

이유민 : 그런데 항상 막 이런 거 직업 고를 때나 봐도 돈 되는 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연극배우라고 해도 되고 싶은 게 가난한 연극배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상상하면서 하는 거겠죠.

손연지 : 저는 돈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돈을 잘 버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집에서 돈 가지고 싸워서 그냥 아 돈이 중요하긴 하구나. 오늘 생각해보니까 돈이 중요하긴 하가보다 하고.

(B여고 1학년 인터뷰 중)

연구자 : 응,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

주민석 :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C고 1학년)

홍지효 : 엄마 아빠가요 막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 보면 저는 원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홍지효 : 돈을 잘 벌어야 해요. (A중 1학년)

연구자 : 오래 사는데 내가 오래 살려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본 적 있니?

재민 : 돈 준비해야죠. (A중 1학년)

학생들이 말하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성공한 삶, ‘돈’을 잘 버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에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적 태도, 타인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지는 징후가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수진 : 저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안 말해요. 단지 이기적으로 살으라고.

연구자 :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게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해석이 돼? 이기적으로 살으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공수진 : 착하게 살지 말래요.

연구자 : 아! 착하게 살지 마라.

공수진 : 세상은 착하게 살아서는 살 수가 없대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 대요.

연구자 : 손해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착하게 사신 것 때문에 손해를 보셨다든지 불의를 당했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

공수진 : 아뇨 엄마가 그렇게 살으셔서 가지고 저한테도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연구자 : 아 엄마가 손해 보지 않고 사는 것 같다. 네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되니?

공수진 : 맞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 맞다. 그럼 엄마가 네가 보기에 잘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공수진 : 일단은 뭐……. 손해 안 보고 사니까 잘 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괜찮게 사는 거 같아요.

청소년의 뇌리 속에 젖어든 윤리와 도덕의 잣대는 기실 어른들이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배금주의는 결국 부모를 비롯한 우리 사회로부터 이식된 가치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이 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부모로부터, 대중매체로부터 끊임없이 받게 되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메시지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전파되게 되고,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더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으로, 모든 관계를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불행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달래 : 돈이 많아야지 먹고 싶은 거도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연구자 : 그래? 돈이 많으면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까?

진달래 : 돈이면 다 돼요.

연구자 : 돈이면 다 된다는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온 거 같아?

진달래 : 그냥 막 여기저기서 봐도.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더라도 그냥 막 돈이면, 돈만 많으면. 그냥 막 나쁜 거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니까.

(C고 1학년)

연구자 : 유민이는. 부모님은 너에게 뭐 되라고 말씀하시니?

이유민 : 컴퓨터 쪽 가라고. 그리고 공무원 하라고. 돈 잘, 딱딱 들어오게.

연구자 : 컴퓨터 쪽 가라. 그리고 공무원 되라. 돈이 딱딱 들어오게? 엄마가 진짜 그렇게 표현하셨어? 돈이 딱딱?

이유민 : 매달, 매달 딱딱 들어온다고.

(B여고 1학년)

박재민 : 장가는 가래요.

연구자 : 아, 장가는 가라고. 왜 가라고 하셔?

박재민 : 가정을 꾸리래요.

연구자 : 아, 가정을 꾸려라. 가정을 꾸리려면 뭐가 필요해?

박재민 : 돈, 능력, 집.

(A중 1학년)

도지유나 : 그냥.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연구자 : 어떤 측면에서? 나처럼 살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로.

도지유나 :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게 살라고.

연구자 : 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보다 네가 좀 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잘 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도지유나 : 그냥, 막. 부유하게.

연구자 : 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처럼 배금주의, 물질만능의 풍토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서 자라나다 보니,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다든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식의 불만을 가지게 된다거나,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좌절하는 등 일찍 패배주의를 경험하는 모습도 관찰 할 수 있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든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돈만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닐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돈 없으면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요. (손연지, B여고 1학년)

이유민 : 배우고 싶은 걸 더 배우고 싶어요.

연구자 : 배우고 싶은 걸 더 배울 수 있었을 거다?

이유민 : 그때마다 딱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 있을 때마다 엄마 나 하고 싶은데 이런 학원 보내주면 안 돼? 이런 거 나 사고 싶은데 이거 사면 안 돼? 이러는 게 미안해가지고.

연구자 : 혹시 그래서 못한 게 가슴에 맺혀 있는 게 있어? 그때 꼭 하고 싶은데 못 했던 것.

이유민 : 저는 예고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연구자 : 어떤 걸해서 가고 싶었는데?

이유민 : 원래 1학년 때는 피아노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 학원을 다녔는데 끊었어요.

(중략) 원래 꿈이었어요.

연구자 : 그렇구나. 어쨌든 약간의 너로서는 되게 큰 좌절? 그런 경험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유민 : 음... 그때 좀 그랬죠.

연구자 : 좀 어땠어?

이유민 : 되게 많이 싸웠어요.

(B여고 1학년 인터뷰 中)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가치를 잃고, 표류하는 모습이 어린 청소년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미래를 위해 무조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현재 삶을 음미하고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도, 우리 사회와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일정부분 이상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홍지효 : 왜냐면요 독신이면 편하잖아요.

연구자 : 어떤 점이 편할 것 같아?

홍지효 : 혼자 사니까 배려해 줘야 할 것도 없고 먹여 살리는 것도 저만 먹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 사는 걸 보니까요 좀 자기도 못 꾸미고, 자기한테 되게..... 자기한테 투자를 많이 못 한다 해야 하나? 그런 걸 보고선 내 자식들에게 투자하기 보다는 저에게 투자하면서 제 할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A중 1학년 인터뷰 中)

다른 무엇보다도 돈이 우선인, 배금주의가 만연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성장하면서, 사

회적 공헌이나 봉사보다 개인의 사회 경제적 성공을 인생 목표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가족보다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양적 연구의 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꿈을 꿀 수 없게 만들고,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말하는 어른들

FGI 초입에 청소년들에게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하자. 꿈이 무엇이야?”고 물었다. 장래희망 정도는 가볍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자의 기대를 반영한 질문이었으나, 의외로 학생들은 머뭇거린다고, ‘몰라요’라고 답한다고 하는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랬을 때 다시 ‘지금 꿈이 없거나, 잘 모르겠으면 더 어릴 때 꿈을 이야기 해 줄래?’라고 물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의사’, ‘변호사’, ‘승무원’, ‘요리사’ 등 자신의 ‘원래’ 꿈을 들려주었다. 그 동안, 왜 꿈이 변화하게 되었는지 또는 꿈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가면서, 현재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와 더불어 기대치가 조정되는 과정과 이유를 탐색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고등학생들의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진학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였고, 이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폭장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학교에 입학 한 이후 받게 된 성적이나 자신의 성향, 가령 문과에 적합한가, 이과에 적합한가 하는 성향을 고려하여 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방향성이나 목표를 잃게 된 학생의 경우, ‘모른다’거나, ‘아직 찾지 못했다’고 얼버무리듯이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자 : 유민이 부터 장래희망이 뭔지 한 번들어볼까?

이유민 : 뭐…….

연구자 : 없어?

이유민 :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 잘 모르겠어? 원래는 뭐였어? 잘 모르게 되기 전에는.

이유민 : 승무원

연구자 : 승무원? 언제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이유민 : 고등학교?

연구자 : 고등학생? 그런데 지금은 왜 잘 모르겠어? 1년 지났는데?

이유민 : 공부를 못해서

연구자 : 공부를 못하니까. 아, 승무원이 되려면 네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야? (승무원 되려면) 공부를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유민 : 영어도 잘해야 하고……. 대학을 잘 못 갈 것 같아요.

(B여고 1학년 인터뷰 中)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보기에는 실현하기에 벽찬 꿈들, 가령 가수라든가 댄스 트레이너, 외과의사와 같이 운과 노력, 실력을 겸비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도, 비교적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고등학생들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고르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한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말하자면 고등학생들에게는 꿈이나 비전 보다는 성적에 따른 과와 대학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장래 직업이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 것이다. 게다가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부양자로서의 기대나 압박,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부담 등이 작용함으로써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의 모습을 재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였다.

박상훈 : 저 그냥 선생님 되서 선생님 해갖고 정년퇴임을 하면, 연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갖다 엄마아빠가 그때까지 살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고.

연구자 : 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

박상훈 : 네.

연구자 :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상훈이 머릿 속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박상훈 :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C고 1학년 박상훈 학생 인터뷰 中)

B여고 학생들과의 인터뷰 말미에, 어떤 한 참여자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꿈이 왜 없냐고 하지만 막상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사회인 것 같다고 푸념했다. 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 청소년의 부모세대들이 보낸 청소년기는 어떠한가라는 점을 되짚어 보았다.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고등학생이던 80년대 초중반도 여전히 입시 스트레스가 활개를 치던 때이지만, 소위 공부와 담을 쌓고 놀더라도 고3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하면' 모두가 바래마지 않는 서울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의 떡잎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보였다는 것이다. 덕분에 학부모 세대들은 중학생일 때에, 고등학교 1, 2학년일 때에 '나는 이미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는 식의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자녀의 공부 인생이나 학습 성향을 미리 판가름 하려고 하고, 학생들 역시도 자신의 가능성이나 능력을 일찍이 판단하고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불만하는 것을 보니,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그 간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갔나 싶어 인터뷰를 하는 내내 초조하고, 안타까운 면이 느껴졌다.

## 제 5 장

---

# 논의 및 정책제언

1. 논의
2. 정책제언



# 제 5 장

## 논의 및 정책제언

### 1.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이 본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 인식이라는 가정 하에, 부모가 자녀의 인생과 관련된 각 영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기대를 파악하고, 동일 영역에 대한 자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며, 더 나아가 이들 각 영역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기대를 자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여 부모와 자녀 간 상호기대와 인식의 근원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학부모와 자녀가 기대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를 한 쌍으로, 총 700쌍을 대상으로 각 연구 대상이 지닌 인생관, 양육관, 성취관, 재능관, 사회관, 학교관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와 자녀가 자녀상에 대해 상호 기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녀의 인생관, 양육관, 사회관, 성취관, 재능관, 학교관에서 상호기대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생관 영역에서, 학부모는 자녀에 비해 경험을 중시하고 사회공헌이나 가족중심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자녀는 사회경제적 성공이나 일상생활의 재미를 인생목표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양육관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자녀보다 애정적인 양육태도와 형제자매에 대한 공평대우에 대해 스스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대화시간 증가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지니고 있었으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성취관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자녀보다 높은 목표 설정과 모든 과목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기를 기대하였다. 재능관 영역에서 자녀는 자신의 재능과 관심의 일치에 대한 확신이 학부모보다 더 강하였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학부모의

성공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관 영역에서는 학부모가 원칙주의나 공동체주의와 같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더 지향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자녀들은 패배주의적 경쟁 회피의식이나 왕따와 같은 문제 개입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관 영역에서, 학부모는 학교교육 외에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부 이외에 동아리나 학생회 등 학교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강하여 학부모는 학습에 대한 기대 뿐 아니라 학습 이외의 학교 활동에 대한 기대가 모두 높았다. 각 영역에 대한 의미변별 문항에서도 상호 기대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부모는 자녀에 비해 공동체주의적, 과정주의적이며, 인성교육, 직업의 사회적 인정, 직업의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였고, 자율적 양육관, 애정적 양육관을 선호하며, 자녀의 독립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녀의 삶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사회의 세대 간 특징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생관 영역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학부모와 자녀 모두 사회공헌 및 봉사(학부모: 4.16, 자녀: 3.48)나 사회경제적 성공(학부모: 4.07, 자녀: 4.40)보다 가족중심 행복(학부모: 5.39, 자녀: 4.92) 및 일상생활의 재미 추구(학부모: 4.61, 자녀: 5.36)를 인생목표로 더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학부모와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성은 다음과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70~80년대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시기에는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개인의 헌신과 열정이 사회적으로 중시되었고, 개인의 발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이 고속화되고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성공이나 국가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그 무게가 이동하였다. 또한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한 도시화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가족 중심의 가족이 핵가족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자녀 가정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단위로 하는 공동체주의적 사고방식보다 핵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중심의 사고방식이 중요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되었다.

학부모와 자녀 집단이 공통적으로 사회공헌 및 봉사나 사회경제적 성공보다 가족중심 행복 및 일상생활의 재미 추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치관에 대한 기존 연구들 역시 이상의 결과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정명숙, 김혜리(2005)는 가족의 중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젊은 층일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세대에 관계없이 가정화목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목한 가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빈번히 보고되는 결과(김경신, 1998;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김의철, 박영신, 김경자, 2011)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전반적 사회 변화의 흐름 안에서도 학부모와 자녀 세대의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며, 학부모 집단은 자녀가 사회공헌 및 봉사와 가족중심 행복 추구를 더욱 중시 여기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자녀 집단은 자신의 인생 목표로 일상생활의 재미와 사회경제적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세대들이 경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어머니 세대의 경우 70~80년대 초중등학교를 다니면서 성장한 세대(연령범위: 36세-59세, 평균연령: 44.29세)로서, 개인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사회공헌 및 봉사를 중요한 인생 목표로 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자녀에 비해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핵가족화라는 흐름에서 성장한 세대로서 가족중심의 사고방식이 확산되는 시기에 가정을 이루었고, 생활의 핵심단위인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성인기 경험은 시대변화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형성시켜 자녀가 가족중심의 행복 추구를 인생목표로 삼기를 바라는 정도에 반영되어 그 정도가 자녀에 비해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명숙, 김혜리(2005)는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중시하고 가족 중심적이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주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더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녀보다 어머니에게 가족중심 행복추구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70년대 말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대 차이를 1990년대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한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말에 가장 눈에 띄는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는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증가였다(나은영, 차재호, 1999). 특히 뚜렷한 세대차이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주로 풍부한 인생 중요시, 정조관념 및 상하 구별 경시, 개인주의 및 자기주장성의 증가와 관련되는 가치들이라는 결과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탈물질주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성적 합법적 권위의 기반 위에서 경제성장과 성취동기에 역점을 두었던 시대가 물질주의 시대라면, 선진국들로부터 점차 권위를 덜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탈물질주의 시대의 시작이었다고 밝히고, 1990년대 후반 한국은 아직 물질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이지만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부모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가 더 강하게 지니고 있는 탈물질적 성향은 본 연구의 결과처럼 개인의 일상적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을 더욱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세대는 한국사회의 경제수준이 1인당 GDP 2만불을 넘어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진입해 있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출산율이 1.5가 되지 못했던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로 국가 사회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중시하고 공동의 이익과 사회에 대한 기여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강했던 부모 세대의 가치관 보다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시대 변화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성공에 대한 가치에 우위를 두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밀레니엄 세대인 청소년들은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미래를 위해 무조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현재 삶을 음미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 탈물질적 성향이 강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헌이나 봉사보다 개인의 사회 경제적 성공을 인생 목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중심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이 부모 집단에 비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이상의 결과는 개인의 가치관이 단지 개인 내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환경의 변화와 시대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사회적 산물이기에 부모 세대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자녀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해석하려 한다면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치관은 주입되고 수용되는 전달물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이해와 조화의 대상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자녀가 부모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다. 중고등 학생이 부모 세대를 이해하는 일은 아마도 자신이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접어들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을 해 본 뒤에서야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30·40대의 부모들은 10대 자녀와 자신의 차이를 “세대 간 차이”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자녀와 부모의 갈등, 특히 어머니와의 갈등은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를 차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이라는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때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하는 세대 이해가 부모-자녀 간 갈등을 줄이는 시작이라 생각된다.

둘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학부모-자녀의 상호기대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출생순서가 첫째일수록, 학부모가 희망하는 자녀 교육년수가 길수록, 맞벌이 가정이 아닌 경우 상호기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청소년의 자율성의 욕구와 부모의 통제적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갈등의 양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한 기존 연구들(Melching, 2011; 이영미, 2013)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육년수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 교육 및 성취기대처럼 갈등을 촉발 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이영미, 2013)를 확인할 수 있다. 희망하는 교육년수가 높아질 경우, 학부모가 바라는 모습과 실제적 자기 모습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긍정 정서를 적게 경험하고, 불행감이 증대(Higgins, 1987)하여 상호기대 차이를 더 크게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관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현실 경험 간에 불일치를 증가 시켜 행복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학부모-자녀의 행복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 차이가 자녀의 행복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인생관, 양육관, 성취관, 재능관, 사회관, 학교관 영역에 대한 자녀의 인식도 자녀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녀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부모-자녀의 대화 횟수, 학년, 성적수준이었다. 자녀의 행복과 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는 그 차이가 클수록 자녀의 행복감은 줄어드는 부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생각하는 여섯 영역에 대한 자기인식이 긍정적 방향일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횟수가 많고 성적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복감은 높아졌으며, 학년은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부적 관계였다.

부모-자녀 관계, 성취도, 학년은 청소년의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다수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김신영, 백혜정, 2008; 김의철, 박영신, 2004; 박영신 외, 2012; 전경숙, 정태연, 황병의, 2008; Diener, 1984; Myers, Diener, 1995).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간관계, 화목한 가정, 성취정도, 경제적 안정, 자기 조절을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대표적 영역으로 인식한다고 지적한 연구에서, 화목한 가족관계 범주에는 가족 간의 대화가 포함되었다(김의철, 박영신, 2004). 그리고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도 간에 인과적 효과가 있어 긍정적 관계를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행복이 높다는 결과가 주를 이룬다(Kirkcaldy, Furnham, Siefen, 2004; Lewis et al., 2011; 소연희, 2007; 문은식, 2007).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행복한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학업성취도가 행복에 미치는 효과 크기는 정서적 지원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 크기에 비해 30%정도로, 청소년들이 주위의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느끼는 행복감에 비해 학업성취도의 효과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4)는 학업성취도가 다른 변인에 비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주요 변인임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복과 학년이 부적 관계를 보이는 본 연구 결과는 학교급별로 청소년의 행복에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박영신, 김의철, 2009;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 최인재 외, 2011).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은 중, 고, 대학생보다 월등하게 행복의 정도가 높았고, 특히 학교생활과 관련된 행복도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행복감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다. 최인재 외(2011)의 연구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행복 수준을 비교한 결과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행복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에서 그 요인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기대의 차이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인생관, 재능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갖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긍정적 자기 인식이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 결과도 청소년의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지금까지 인간의 행복을 설명하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다루어져 왔다(김신영, 백혜정, 2008). 하나는 사회학에서 주로 연구된 객관적 삶의 질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학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것이다.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삶의 질이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람직한 외부 환경 조건은 건강 상태, 교육수준, 사회적 신분, 여가시간, 소득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지표를 통해 설명된다(이훈구, 1998; McCall, 1975; Liu, 1976; Morris, 1979; Cereseto, Waitzkin, 1986). 그러나 이들 시도가 지닌 한계점은, 객관적 지표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김신영, 백혜정, 2008). 나이,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주관적 삶의 질의 총 변량의 15%이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Diener, 1984; Myers, Diener, 1995).

이후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행복(happiness) 또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주제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행복이란 객관적 지표 자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부 조건과 환경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 지가 중요하며, 객관적 삶의 지표와 독립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청소년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조건이나 환경적 요소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가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라는 점 암시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인식은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기대의 차이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생관, 양육관, 재능관, 사회관, 학교관 등 긍정적 자기 인식이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점은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개입 방안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바람직한 자기 인식과 가치관을 지니도록 교육하는 것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된다.

더욱이 학교급별로 행복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행복의 요인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국내 한 연구를 살펴보면 마음의 평화, 가족의 화목과 같은 행복의 내적 조건에 대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돈, 직업, 학벌과 같은 행복의 외적 조건에 대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결과(이종한, 박은아, 2010)가 있다. 이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앞선 논의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관련지어 본다면, 학년이 높을수록 행복의 외적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결과는 결국, 외적 조건을 중시할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내적인 조건을 중시할 때 개인의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확장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행복의 내적 조건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학부모와 자녀의 자녀상이 자신과 상대방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HLM)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와 자녀의 자녀상이 서로와 자기 자신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에 포함된 학부모와 자녀 간 배경 변인인 대화횟수와 소득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즉 부모와 자녀 간 일주일 동안 15분 이상 대화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의 행복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강화됨을 알 수 있다(Thomas, 1977).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밝힌 선행연구들(소옥현, 2005; 안현정, 2005; 이영숙, 2001;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한지선, 2006)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기대차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대화 시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집단 보다 4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의 행복수준이 높은 결과는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 때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이는 소득수준 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의사소통 개방성 등으로 인한 차이가 자녀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부모-자녀 상호기대가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차이가 나타나며, 부모-자녀 상호인식에 있어서는 차이의 폭이 더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부모-자녀의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에 대한 차이는 자녀 삶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전제들에 대해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자녀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 자녀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상과 자녀가 인식한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상호인식 차이에서, 자녀는 보다 물질적, 외재적 목표를 더 강하게 추구하지만 학부모는 관계적, 내재적 목표를 더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부모가 자녀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바람직성과 자녀의 다양한 경험 및 행복한 생활을 강조하는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해 자녀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학부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자녀가 생각하는 학부모는 사회경제적 성공 및 대입준비 학업성취를 더 강조하는 모습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또한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과 행복을 중시하고, 가족중심 행복, 사회공헌 및 봉사, 원칙주의를 지향하며, 자녀의 감정에 대해 수용적이라고 자신을 인식하는 학부모 생각에 비해, 자녀는 학부모가 이를 덜 강조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부모의 이상적 사고나 신념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결과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상호인식 차이는 Argyris와 Schön(1974)가 제시한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Argyris와 Schön(1974)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은 신봉이론(espoused theory)과 사용이론(theory-in-use)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신봉이론이란, 타인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의 이론으로 누가 자신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물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신봉이론은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어나가는 원리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개인의 신념체계이다. 이는 다분히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러나 개인의 행위는 항상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 즉, 신봉이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신봉이론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인 신념을 담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 내에서 실현된 이론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론을 사용이론이라고 한다. 신봉이론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을 관장하는 것이라면, 사용이론은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을 관장한다. 때문에 사용이론은 실제 행동을 위해 사용된 원리로서 관찰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자신을 설명하는 이론 즉,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나 가치관,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신봉이론; espoused theory),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적용하는 원리(사용이론; theory-in-use)는 다를 수 있다. 일례로, 부모는 공부보다 자녀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에서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강하게 표현하는 모순된 행동을 할 경우,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행동을 통해 부모의 생각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는 자신의 자녀상에 대한 인식과 달리 자녀는 부모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유추하고 부모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생각들은 학부모의 신봉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 외재적 목표보다 관계적, 내재적 목표를 더 강하게 추구하고, 학업성취보다 다양한 경험과 자녀의 행복을 중시하며, 자녀의 감정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고, 사회공헌 및 봉사와 원칙주의를 중시한다는 설문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은 곧 학부모의 신봉이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봉이론은 개인의 의식적인 신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설문 결과에서 학부모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지향하는 이상적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학부모 스스로 자신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자녀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모습은 양적 연구 뿐 아니라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눈을 통해 관찰된 학부모의 행위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는 일상생활에서 학부모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게 되고, 이렇게 관찰된 행동을 통해 학부모의 생각을 추론하고 인식하게 된다. 즉, 자녀가 인식하는 학부모의 자녀상에 대한 기대나 생각은 곧, 학부모의 행위를 통해 표출되어 온, 학부모의 실제 행위를 관장하는 사용이론인 것이다. 따라서 자녀상에 대한 학부모와 자녀의 상호인식 차이는 학부모의 의식적 자기인식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표출되는 학부모의 행위가 덜 이상적이고 덜 규범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Argyris와 Schön의 행위이론에서 말하는 사용이론과 신봉이론의 불일치 현상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말한 내용과 실제 행동은 종종 불일치하기도 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사람들은 신봉이론과 사용이론의 불일치를 지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정 수준의 자기 인식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것을 수정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Greenwood, 1993). 이러한 사실은 부모-자녀의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Greenwood(1993)는 간호 분야에 Argyris와 Schön의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간호사에게 신봉이론이란 수업시간에 배운 간호학 이론이며, 사용이론은 실제 간호근무를 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매일매일 간호사가 행하는 행동을 일컫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신봉이론과 사용이론의 불일치로 인해 행동과 신념이 마찰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과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행동과학이란 간호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간호사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원리, 신념, 이론을 파악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관찰하여 불일치점을 발견한 후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적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표현되지 않았던 행동지침이나 원리, 신념을 뜻하는 신봉이론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자신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지, 몸에 배어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로는 실제 행동이 신봉이론과 다를 때, 어떻게 일치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지, 어떤 처방이나 중재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Argyris와 Schön(1989)은 사용이론 때문에 개개인이 실제 자기의 비효율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밝히고, 교육을 위해서는 사용이론을 밝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신이 자녀상에

대해 갖고 있는 바람직한 생각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 숙고하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녀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성찰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부모 교육에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부모의 사용이론이 신봉이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개입 및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 혹은 부모-자녀 관계를 주제로 한 행동과학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교육과 경험에서 비롯된 신념이나 육아에 관련된 이론들은 무엇이고, 또한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신념, 가치, 생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 2. 정책제언

위에서 살펴본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녀 세대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재 정부주도적인 부모교육의 대부분은 학령기 이전 자녀나 중학교 자녀 이전의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생애 발달에 있어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시기의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과 같은 정부 기관이나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시간과 질은 관계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대화 기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줄이고,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사용이론과 신봉이론에 대해 행동과학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된 바 있다. 부모가 자신의 신봉이론을 성찰하고, 사용이론과 불일치를 줄여갈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 자신 내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 2) 부모-자녀 상호기대 및 인식 차이 진단도구 개발

청소년기 부모-자녀 갈등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최외선, 백양희, 이미옥, 1997; Silverberg, Steinberg, 1990). 대다수 부모와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갈등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피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부모와 자녀가 갈등유발 요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 표준화 진단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부모들이 진단도구를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부모-자녀 갈등관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심리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설 심리상담기관을 찾아 갈등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게 된다. 또한, 대다수의 진단도구들은 상호작용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부모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인식과 같이 한 개인의 인식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어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일방향에서 진단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결국 부모-자녀 갈등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에 예방의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 차이를 밝히는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다수의 학부모들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진단도구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된다면, 부모-자녀 갈등의 원인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3) 부모-자녀 의사소통지수(Parent-Child Communication Index; PCCI) 개발

부모-자녀의 상호기대 및 상호인식은 학부모와 청소년의 행복과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의 행복감에 중요한 요인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지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지표들은 대체로 심리적 현상에 주목하기 보다는 외적, 물질, 경제적 수치를 다루어왔다. 그러나 인간의 만족감과 행복감은 외재적 요소로만 설명될 수 없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개인을 둘러싼 외적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환경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며, 주관적 만족감이 개인의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자녀의 관계와 같은 심리적 현상을 지표화하여 행복감을 설명할 수 있다면 부모-자녀 관계 회복, 갈등 예방, 행복감 향상 등을 위해 적절한 개입 지점을 발견하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부모-자녀의 상호기대와 상호인식이 탐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학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는 행복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려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현실화되어 더 많은 연구와 지원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청소년들의 행복관 정립을 위한 교육 실시

최근 들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화되고 있다. 학교에서도 진로, 체험학습을 강조하면서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낌으로써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이 바람직한 인생관이나 행복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다양하지 못하다. 행복이란 즐거움의 요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또는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도 느낄 수 있는 주관적 심리상태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지향할수록 행복하고, 갈등이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인이 지닌 행복의 잣대가 다른 것처럼, 개인의 윤리적 기준도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또는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규범적이거나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근시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람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할 때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을 추구하는 것이 고루하고 힘든 일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행복관을 정립한다면,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5) 학부모가 행복한 마을 조성 정책 제안

행복은 철학의 오랜 주제로, 심리학에서 다루게 되면서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일찍이 Kraut는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며, 자신이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의 긍정적인 정서를 동반한 상태라고 정의(서은국, 구재선, 2011 재인용)하면서, 개인의 내적 해석 작용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설계하는 데 단초(端初)로 삼는다. 가장 가까이에 보게 되는 부모의 실존적 삶의 본질은 자녀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부모의 삶은 그대로 자녀에게 레퍼런스(reference)가 되는 것이다. 인터뷰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빠의 삶이 힘들어 보여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써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 지는가에 대해 끊임없는 자기검열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지향하는 데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부모의 행복을 함께 고려하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학부모들은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무감각한 듯 보이거나,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는 말 그 자체를 ‘한 인간으로서 개인이 누리는 행복’ 이전에 그야말로 ‘부모로써’ 누리는 행복, 가령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행복’이라는 명제가 우리 사회 부모들에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자녀의 성공’에 저당 잡힌 채 자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깨달은 적이 없는 엄마가 과연 자녀의 행복을 찾아줄 수나 있나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의 전제조건은 부모도 함께 행복한 마을이어야 한다. 부모들이 자신의 행복을 떠올리는 데 주저하고, 행복에 대해 제대로 배워 보고 누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명제는 부모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은 부모가 행복한 마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강유진, 문제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 배경요인과 가족관계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구자경, 황진숙 (2007). 청소년의 가정, 학교 및 대중매체환경과 자아정체성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8(4), 1623-1636.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 권은정 (199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와 청소년의 인성 특성.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 (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 43-65.
- 김경신, 김오남 (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지각과 가족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2(3), 105-119
- 김경원 (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 (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 임지영 (2003).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83-97.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 181-204.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김선옥, 유미현 (2012).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부모양육태도 인식, 정서지능 비교 및 영재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관계.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4(3), 175-189.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양숙 (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주 (2011). **대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박경자 (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49-64.
- 김영수, 신희천 (2012). 자기불일치가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745-760.
- 김영애 (1990). **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이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의철, 박영신, 김경자 (2011). 청소년과 부모의 미래성취의식: 미래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일과 미래성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29-60.
- 김인희 (1993).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백, 김준엽 (2009). 학업 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지윤, 이동귀 (2012). 여고생의 가족관계 및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자기불일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조절 역할. **상담학연구**, 13(3), 1443-1460.

- 김지현 (1996). 가정환경, 학교적응,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1983).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 김향림 (2001).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의 영향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8(5), 49-60.
- 김현수 (1997). 한국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1), 57-69.
- 김현수, 김현실 (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 인자 분석. 신경정신의학, 41(2), 279-291.
- 김현수, 김현실 (2002). 한국청 소년 음주 및 약물 남용과 비행 행동 간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41(3), 472-485.
- 김홍규(1994). **신생활지도론**. 서울: 형성출판사.
- 김희화 (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호기 (2013, 12, 3). [김호기의 예술과 사회] ‘서태지와 아이들’과 한국적 개인주의. 주간경향 1053호.
- 김홍규, 최재향 (2006). 초등학생의 학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미래교육연구, 13(4), 57-79.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남민숙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은식(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유치원 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145-154.
- 박소혜 (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연호 (2000). **현대인간관계론**. 서울: 박영사.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 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박영애, 장창현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67-168.
- 박은주 (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 조공호 (2003). 고등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우울, 불안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인간이해**, 24, 127-148.
- 박현희 (2006). **자기불일치 및 자기통제력이 대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숙진 (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숙, 권용신 (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서수균 (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 개념 및 자기 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 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 및 성격, 25(1), 96-114.
- 소연희 (2007).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 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교육심리학회지**, 21(4), 1007-1028.
- 소옥현 (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신민희, 강문희 (2005). 소년원 수용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불일치 및 우울 수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1), 183-205.
- 신수정 (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전사춘기 자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린 (2002).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 자의식에 따른 성적하락과 시험불안의 관계모형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식, 김근화 (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7(2), 47-58.
- 안현정 (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한국방정환재단 (2011).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행동과학연구소**, 11(2), 1-15.
- 오연옥 (1987).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오현석, 이현웅 (2010). **인적자원개발론**. 서울: 학지사.

- 유성경 (2000). 청소년의 일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 연구**, 38(3), 81-106.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윤진, 최정훈 (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문제와 그 대처행동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2(1), 16-35.
- 이가은, 강민주 (2011). 중·고등학생이 자기불일치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처 방식과 희망적 사고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2(6), 141-155.
- 이경주, 신호식 (1990).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13.
- 이금 (1993).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1988).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 의사소통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67-185.
- 이상철, 정상원, 김새로미, 이혁준 (2008). 자기불일치가 불안 및 우울을 매개로 부적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3), 183-206.
- 이선경, 이재연 (1998).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이론적 과정모델. **아동학회지**, 19(2), 49-64.
- 이연숙 (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2013).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극복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미, 한재희 (2013). 모가 지각한 부모기대로 인한 부모-자녀 간 갈등극복경험. **상담학 연구**, 14(2), 1401-1422.
- 이영숙 (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최정원 (1998). 실제자기 수준, 이상적 자기 수준 및 자기불일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69-87.
- 이은경, 박성연 (200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106.
- 이은영, 김경혜 (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0(1), 105-119.
- 이재경 (2012). 청소년기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청소년복지연구**, 14(2), 51-73.
- 이정아 (200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양명숙 (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 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7(3), 865-883.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종한, 박은아 (2010). 내외적 자기개념, 행복조건,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4), 423-445.
- 이주옥 (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 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용 (1990). **어머니 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숙, 유영주 (1988). 한국남편과 부인들이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25.
- 이현주, 이미나, 최인수 (2008).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교육심리학회지**, 22(1), 301-315
- 이훈구 (1998). **행복의 심리학: 주관적 안녕감**. 서울: 법문사.
-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자기불일치와 정서적 불편감의 관계: 자기불일치 이론의 경험적 검증. **신경정신의학**, 34(5), 1416-1431.
- 임종석 (2000). **부모의 학업압력과 아동의 성취불안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 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0), 69-85.
- 장호선 (1986).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일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성인의 웰빙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 전경숙, 정태연, 황빙의 (2008).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 간 행복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08-209.
- 전귀연, 최보가 (1995). **청소년의 고민과 갈등**.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교영, 이민규 (1998). 편집성향과 자기개념 및 자기불일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27-138.
- 정명숙, 김혜리 (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15-135.
- 정혜중 (1986). **자아불일치와 상태-특성불안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정소희, 양성은 (2011). 부모의 성취압력과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3), 1-37.
- 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1(1), 209-227.
- 조용래, 김선태, 표경식 (1996). 신경증적 증상 환자들의 자기불일치와 정신병리의 관계: 자기불일치 이론의 임상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5(3), 664-677.
- 천영희, 고재홍 (2005). 모-청소년 자녀의 자존감, 성격특성 및 의사소통 방식이 상대방과의 갈등에 미치는 영향: APIM모형의 적용. **청소년상담연구**, 13(2), 47-60.
- 최미경 (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2), 105-121.
- 최외선, 백양희, 이미옥 (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4), 27-39.
- 최인경 (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김윤희, 이재연(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정원 (1996). 실제자기 수준, 이상적 자기 수준 및 자기불일치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욱, 권일남, 문선량 (2004). **청소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희철, 황매향, 김연진 (2009).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37-558.
- 한경혜, 이정화 (2012). **지금 중년을 말할 때**. 서울: 교문사
- 한신애, 문수백 (2010).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5), 441-155.
- 한지선 (2006). 가족기능 중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기능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자녀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M., & Hughes, H. M. (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465.
- Argyris, C. (1952). *An introduction to field theory and interaction theor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Labor and Management Centre.
- Argyris, C., Putnam, R., & Smith, D. (1985). *Action scien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Argyris, C., & Schön, D. A. (1974). *Theory in practice: Increasing professional effectivenes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Argyris, C., & Schön, D. A. (1989).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and action science compared.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2(5), 612-623.
- Ary, D. V., Duncan, T. E., Biglan, A., Metzler, C. W., Noell, J. W., & Smolkowski, K. (1999). Development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2), 141-150.
- Baldwin, A. L. (1955). *Behavior and development in childhood*. Texas: Dryden Press.
- Bandura, A. (1971). *Social learning theory*. Morristown.
- Barber, B. K. (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75-386.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 Monograph*, 4(1, Pt. 2).
- Benner, A. D. & Mistry, R. S. (2007). Congruence of mother and teacher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low-income youth's academic compet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140-153.
- Bienvenu, M. J. (198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9, 29.
- Blaustein, K. B. (1999). *Th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child on young adult adjustment: A model*. Doctoral Dissertation, Fordham University.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ronstein, P., Clauson, J., Frankel M. F., & Abrams, C. L. (1993).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diverse family structure. *Family Relation*, 42, 268-276.
- Bronstein, P., Briones, M., Brooks, T., & Cowan, B. (1996). Gender and family factors as predictors of late adolescent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Sex Roles*, 34(11/12), 739-765.
- Burt, S. A., Krueger, R. F., & McGue, M. (2003). Parent-child conflict and the comorbidity among childhood externalizing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5), 505-513.
- Cereseto, S., & Waitzkin, H. (1986).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economic system, and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6(6), 661-666.
- Chartrand, J. M. (1992). An empirical test of a model of nontraditional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39(2), 193 - 202.
- Chen, X., Liu, M., & Li, D. (2000).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dulgence and their relations to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3), 401-419.
- Christenson, S. L., Rounds, T., & Gomey, D. (1992). Family factors and student achievement: An avenue to increase students' success. *School Psychology*

- Quarterly*, 7(3), 178-206.
- Collins, W. A. (1992). Parents' cognitions and developmental changes in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transition analysis*. Hoboken, NJ: Wiley.
- Crocetti, E., Rubini, M., Luyckx, K., & Meeus, W. (2008). Identity formation in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from various ethnic groups: From three dimensions to five status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8), 983-996.
- Cumsille, P. E., & Epstein, N. (1994).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in outpatient clinic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2), 202-214.
- Davis-Kean, P. E. (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94-304.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4), 705-715.
- Deosaran, R. A. (1978). Social class and academic guidanc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0(3), 239-247.
- Diener, E. (1984). Subject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oherty, W. (1981). Cognitive processes in intimate conflict: I. extending attribution theor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1), 3-13.
- Dornbusch, S. M., Ritter, P. L., Leiderman, P., Roberts, D. F., & Fraleigh, M. J. (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8, 1244-1257.
-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 Duvall, E. M. (1965). Family dilemmas with teen-agers. *The Family Life Coordinator*, 14(2), 35-38.
- Eccles, J. S., & Wigfield, A. (2002). Motivational beliefs,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109-132.
- Edwards, K. H. (1980) *Understanding communication and cognitive homeosta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Entwisle, D. R., & Hayduck, L. A. (1978). *Too great expectations: The academic outlook of young childre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erguson, G. M., Hafen, C. A., Laursen, B. (2010). Adolescent psychological and academic adjustment as a function of discrepancies between actual and ideal self-percep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2), 1485-1497.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lang* (2nd ed.). IL: Scott, Foresman & Company.
-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 (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2-33.
- Goodnow, J. J. (1990). The socialization of cognition: What's involved?. In J. W. Stigler, R. A. Schweder, G. Herd (Eds.), *Cultural psychology: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 J. R. (1961). *Defensive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 141-148.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2), 286-320.
- Greenwood, J. (1993). Reflective Practice: a critique of th work of Argyris and Schö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 1183-1187.
- Grossman, J. A., Kuhn-McKearin, M., & Strein, W. (2011). Parental expectations and academic achievement: Mediators and school effects. Presentation (Poster Session)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ossman, S. M., Shea, J. A., & Adams, J. R. (1980). Effects of parental divorce during

- early childhood on ego development and identity forma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vorce*, 3, 263-272.
- Hall, C. S. & Lindzey, G. (1957). *Theories of personality*.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 Harter, S., Bresnick, S., Bouchey, H. A., & Whitesell, N. R. (1997). The development of multiple role-related selve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835-853.
- Hawkins, J. L., Weisberg, C., & Ray, D. L. (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3), 479-490.
- Hess, R. D., Kashiwagi, K., Azuma, H., Price, G. G., & Dickson, W. P. (1980). Maternal expectations for mastery of developmental tasks in Japan and the U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5, 259-271.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ggins, E. T. (1989a). When do self-discrepancies have specific relation to emotions? The second-generation question of Tagney, Niedenthal, Covert, and Barlo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313-1317.
- Higgins, E. T. (1989b).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 of self-belief cause people to suffe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93-168). New York: Academic Press.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 (6th ed.). New York, NY: McGraw-Hill.
- Irwin, S. & Elley, S. (2013). Parents'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s future occupations. *Sociological Review*, 61(1), 111-130.
- Jacobs, N., & Harvey, D. (2005). Do parents make a difference to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Differences between parents of higher and lower achieving students. *Educational Studies*, 31(4), 431-448.
- Ketsetzis, M., Ryan, B. A., & Adams, G. B. (1998). Family processes,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 characteristics influencing school-based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2), 374-387.

- Kirk, C. M., Lewis-Moss, R. K., Nilsen, C., & Colvin, D. Q.. (2011). The role of parent expectations on adolescent educational aspirations. *Educational Studies, 37*(1), 89-99.
- Kirkcaldy, B., Furnham, A., & Siefen, G.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Efficacy, Educational Attainment, and Well-Being Among 30 Nations. *European Psychologist, 9*(2), 107-119.
- Lanza, S. T., Collins, L. M., Lemmon, D. R., & Schafer, J. L. (2007). Proc LCA: A SAS procedure for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671-694.
- Laursen, B., Coy, K. C., & Collins, A. (1998). Reconsidering changes in parent-child conflict across adolescence: A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69*(3), 817-832.
- Lee, S. M., Daniels, M. H., & Kissinger, D. B. (2006).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Adjustment: Parenting Styles Versus Parenting Practices. *The Family Journal, 14*(3), 253-259.
- Lewis, A. D., Huebner, E. S., Malone, P. S., & Valois, R. F. (2011). Life satisfaction and engage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249-262.
- Liu, B. C. (1976).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S Metropolitan Areas. New York: Praeger.
- McCall, S. (1975).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 229-248.
- McGillicuddy-De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e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7-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lching, J. A. (2011). *Exploring parent-adolescent conflict: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and longitudinal predictors in early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New Orleans.
- Miller, A. (1995). Parent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Development, 66*(6), 1557 - 1584.
- Morretti, M. M., & Higgins, E. T. (1990). Relating self-discrepancy to self-esteem: The contribution of discrepancies beyond actual-self rating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6*, 108-123.

- Morris, D. M. (1979). *Measuring the Conditions of th World's Poor: The Physical Quality of Life*. New York: Pergamon Press.
- Myers, D. G.,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O.(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atersen, A. C. (1988).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583-607.
- Reed, J. S., & Dubow, E. F.(1997). Cognitive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communication in clinic-referred and nonclinical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91-102.
- Renk, K., Roddenberray, A., Oliverosa, A., & Siegerb, K. (2007).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children to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9(1), 35-57.
- Roseman, I. J. (1996). Appraisal determinants of emotions Constructing a mo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theory. *Cognition and Emotion*, 10(3), 241-278.
- Rosenthal, R., & Jacobson, L. (1968). Pygmalion in the classroom. *The Urban Review*, 3(1), 16-20.
- Santisteban, O. A. , Tejada, M., Dominicis, C., & Szapocznik, J. (1999). An efficient tool for screening of maladaptive family functioning in adolescent drug abusers: The problem oriented screening Instrument for teenagers.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25(2), 399-404.
- Shaffer, D. (200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Wadsworth Publishing.
- Silverberg, S. B., & Steinberg, L. (1990).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with early adolescent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58-666.
- Smetana, J. 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tein, N., L., & Jewett, J. L (1986).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meaning of negative emotions:

## Implications for a theory of development

- Steinberg, L., Elmen, J. D., & Mounts, N. S. (1989). Authoritative parenting, psychological maturity and academic success among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0, 1424-1436.
- Tesser, A., Forehand, R., Brody, G. & Long, N. (1989). Conflict: The role of calm and angry parent-child discussion in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3), 317-330.
- Thomas, E. J.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Analysis, assessment, and change*. New York, NY: Free Press.
- Tillery, D., & Kildegaard, T. (1973). *Educational goals, attitudes, and behaviors: A comparative study of high school seniors*.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 Company.
- Warrick-Swansen, S. A. (1999). Risk factors of comorbidity between aggressive behaviors and depressive disorders in school-aged childre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59(7-B), 3742.
- Wish, M., D'Andrade, R. G., & Goodnow, J. E. (1980). Dimension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rrespondences between structures for speech acts and bipolar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848-860.
- Zhan, M. (2006). Assets, parental expectations and involvement, and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8), 961 - 975.



부  
부



# 부 록

학부모용

## 학부모 및 자녀의 상호기대차이 연구

부  
록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의 협조 하에 우리나라 학부모 및 자녀의 상호기대차이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부모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인식 및 기대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자녀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부모 교육의 방향 및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 및 개인의 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을 해 주신 귀하의 의견은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성은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문항을 읽고 어머니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재능과 자녀가 좋아하는 일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자녀의 감정이나 기분을 이해하면서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공부를 아무리 못하더라도 자녀가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의 자녀에게 학교 공부 외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자녀가 반드시 전문 직업인(의사, 교수, 변호사 등)이 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의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자녀가 지거나 실패로 상처받기보다 경쟁적인 활동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자녀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자녀가 재능과 적성을 찾기 위해 성적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아도 공부 이외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보았더라도 자녀가 나서서 따지기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자녀의 능력에 비해 나의 기대가 더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사회·경제적 성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은 우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자녀가 다방면 보다는 한 분야의 소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자녀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나는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영적·종교적 만족'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자녀가 공부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등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8. 성공을 위해 자녀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나는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가족 중심 행복 추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의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나는 자녀가 모든 과목을 다 잘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우리 가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자녀에게 필요한 적극적 지원을 해주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인생에서 자녀의 성공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나는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일상생활의 재미와 즐거움 추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나는 현재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재능을 살리는 것보다 대학입학에 도움이 되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현재 나는 자녀와 휴대폰, 컴퓨터 사용 문제(예: 게임, 동영상, SNS 등)로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현재 나는 자녀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문제(예: 주말에 시간 보내는 문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문제, 읽는 책에 관한 문제 등)로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현재 나는 자녀와 친구관계 문제로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현재 나는 자녀와 공부 문제(예: 숙제, 학교 성적, 과외나 학원 등)로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나는 자녀가 인생의 목표를 '사회 공헌 및 봉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가족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나는 자녀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 문항은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세요.						
34. 나는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보기>와 같이 양쪽에 제시된 서로 다른 내용 중에서 어머니의 의견과 가까운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아이가 싸우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참는 것이 낫다.	<보기>	아이가 싸우더라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만일 어머니의 의견이 참는 것이 더 낫다는 쪽에 아주 가까우면 ①에 가깝게 표시해 주십시오 ④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만일 어머니의 의견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더 낫다는 쪽에 아주 가까우면 ⑦에 가깝게 표시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①

자녀가 공부를 잘하려면, 35. 타고난 지능이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녀가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학급의 중요한 결정 사항 36. 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 이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녀가 학급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나는 자녀의 학업성적이나 결과 37. 보다 학습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자녀의 학습과정보다 학업 성취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38. 라도 자녀의 소질과 재능을 살 리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녀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기보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를 택하는 것이 낫다.
나의 자녀는 수입이 적더라도 사 39. 회에 기여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의 자녀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교육에서 입시보다 인성 교 40. 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나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 41. 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자녀들이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 42. 녀에게 따뜻한 애정과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녀의 학업과 생활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 43. 끌어 가는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녀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존재이다.



9. 부모님 중 평소 경제활동(수입이 있는 일)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어느 분입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아버지, 어머니 모두 참여함  
④ 아버지, 어머니 모두 참여하지 않음

10. 세금 공제하기 전 귀댁의 월평균 총 가계소득(상여금, 재산소득, 생활보조금 등도 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월평균 200만원 미만  
② 월평균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③ 월평균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⑤ 800만원 이상

11.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양천구      ⑮ 영등포구  
⑯ 용산구      ⑰ 은평구      ⑱ 서대문구    ⑲ 서초구      ⑳ 성동구  
㉑ 성북구      ㉒ 송파구      ㉓ 중구      ㉔ 종로구      ㉕ 중랑구

12. 현재 부부와 자녀의 동거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부부와 자녀      ② 부와 자녀      ③ 모와 자녀  
④ 조부모, 부모와 자녀      ⑤ 자녀 독립거주 (예: 기숙사, 하숙 등)  
⑥ 기타 \_\_\_\_\_

13. 부부의 결혼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초혼  
② 별거 혹은 이혼  
③ 이혼 후 남편과 본인 모두 재혼  
④ 이혼 후 남편만 재혼  
⑤ 이혼 후 본인만 재혼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학부모 및 자녀의 상호기대차이 연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의 협조 하에 우리나라 학부모 및 자녀의 상호기대차이 실태를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부모의 기대에 대한 자녀의 인식 및 기대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자녀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부모 교육의 방향 및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 및 개인의 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을 해 주신 귀하의 의견은 우리나라 부모와 자녀의 상호기대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성은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v)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는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이해하면서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나에게 학교 공부 외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반드시 전문 직업인(의사, 교수, 변호사 등)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거나 실패로 상처받기보다 경쟁적인 활동에 깊이 개입 하지 않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의 재능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재능과 적성을 찾기 위해 성적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 아도 공부 이외의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보았더라도 나서서 따지기보다 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나의 능력에 비해 어머니의 기대가 더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내 인생의 목표는 '사회 · 경제적 성공'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다방면보다는 한 분야의 소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내 인생의 목표는 '영적 · 종교적 만족'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나는 공부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등 학교생활에 참 여하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8. 성공을 위해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내 인생의 목표는 '가족 중심 행복 추구'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우리 가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나에게 필요한 적극적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내 인생의 목표는 '일상생활의 재미와 즐거움 추구'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나는 현재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재능을 살리는 것보다 대학입학에 도움이 되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현재 나는 어머니와 휴대폰, 컴퓨터 사용 문제(예: 게임, 동영상, SNS 등)로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현재 나는 어머니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문제(예: 주말에 시간 보내는 문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문제, 읽는 책에 관한 문제 등)로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현재 나는 어머니와 친구관계 문제로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현재 나는 어머니와 공부 문제(예: 숙제, 학교 성적, 과외나 학원 등)로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내 인생의 목표는 '사회 공헌 및 봉사'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나는 현재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나는 가족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 문항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세요.					
34. 어머니는 우리 형제·자매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보기>와 같이 양쪽에 제시된 서로 다른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의견과 가까운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친구와 싸우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참는 것이 낫다.	<보기>	친구와 싸우더라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만일 학생의 의견이 참는 것이 더 낫다는 쪽에 아주 가까우면 ①에 가깝게 표시해 주십시오.		만일 학생의 의견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더 낫다는 쪽에 아주 가까우면 ⑦에 가깝게 표시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공부를 잘하려면, 타고난 지능이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가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 학급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급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나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3. 학업 성적이나 결과보다 학습과정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습 과정보다 학업성취 결과가 더 중요하다.
4.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도 나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기 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진로를 택하는 것이 낫다.
5. 수입이 적더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6. 학교교육에서 입시보다 인성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7.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머니는 어머니가 정해 놓은 규칙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신다.
8.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에게 따뜻한 애정과 보살핌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녀의 학업과 생활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다.
9. 나는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존재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존재이다.

※ 다음은 여러분에 대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읽고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에게 느꼈던 **‘어머니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 다
1. 어머니는 내가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는 내가 인생의 목표를 ‘사회 공헌 및 봉사’로 삼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어머니는 내가 한 분야보다는 다방면의 소질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아무리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어머니는 내가 반드시 전문 직업인(의사, 교수, 변호사 등)이 되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어머니는 내가 재능과 적성을 찾기 위해 성적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아도 공부 이외의 경험을 많이 쌓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어머니는 내가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보았더라도 나서서 따지기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어머니는 내가 인생의 목표를 ‘사회·경제적 성공’으로 삼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어머니는 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어머니는 내가 공부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등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어머니는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가족 중심 행복 추구’로 삼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어머니는 내가 재능을 살리는 것보다 대학입학에 도움이 되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어머니는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어머니는 자신이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이해하면서 대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어머니는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재능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어머니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출생 순위 : 자녀 (        )명 중 (        )째
3. 학년: ① 중학교 (        학년) ② 고등학교 (        학년 )
4.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사립입니까? 국공립입니까?    ① 사립    ② 국공립
5.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현재 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일반고의 직업교육과정    ③ 특목고    ④ 특성화고    ⑤ 자율고
6. 가장 최근의 시험에서 학급에서의 자신의 성적 수준은 어떠합니까?  
(단, 학급 전체 인원을 빈 칸에 쓰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반 전체 인원 :        명 중,  
① 5등 이내    ② 6~10등    ③ 11~20등    ④ 21~30등    ⑤ 31~40등    ⑥ 41등 이상
7.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합니까?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석사)            ⑥ 대학원 (박사)

★ 여러분의 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8. 현재 흡연을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the expectation and percep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ir children's lives and to examine their effects on parents' and children's happiness and conflicts.

To identify differences on mutu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mother-child pairs residing in Seoul, a total of 700 pairs of subjects were select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Survey items included the meaning of life, parenting style, opinions about achievements, child's talents, society or community and child's school life.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as analyzed by applying various statistical approaches such as the paired-sample t-Test, Multipl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Latent Class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n the major issues related to children's liv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arents and children's mutual perceptions significantly affect to not only their own happiness and conflicts but each other'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and children's level of happiness and conflict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al expectation on children's lives.

To investigate where the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ere origina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otal 14 mothers, 5 middle school students and 12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feel sorry for children's situation, which their future was pre-shaped and limited, but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arents tends to have lower expectation and pressure for the younger child and daughter than the eldest child and son.

Students was discontented that career guidance in school turned into college admission guidance. Even though they seek for social and economic success highly, they are having a hard time adjusting their dream and finding directions to their future and goals.

Based on these results, variou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o enhance the happiness of school children, such as conducting some parent education program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about children's culture, developing measurements for differences in parent-child mutu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developing a Parent-Child Communication Index.

##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한영근·허효주·이영화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단분석 - / 황진구·허효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박정배 · 오해섭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총괄보고서: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황진구 · 김지연 · 이해연 · 김광혁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리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보고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학부모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 연구**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723-9 94330

978-89-7816-721-5 (세트)